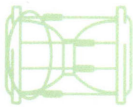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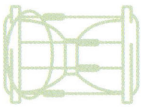
제22회 경기도 민속예술제 결과보고서





제22회

경기도 민속예술제 결과보고서



Contents

I. 행사개요	03
II. 추진과정	13
III. 프로그램별 시행결과	17
IV. 평가	57
V. 기타자료	87

I

제22회 경기도 민속예술제

행사개요

1. 목적
2. 개요
3. 운영방침
4. 추진방향
5. 기대효과
6. 추진위원회 조직도
7. 추진위원회
8. 실무추진단
9. 지역추진위원회
10. 주요행사
11. 세부시간계획
12. 행사장 안내도
13. 참가현황(경연순)
14. 시상계획
15. 연도별 개최지 및 수상 현황

1. 목적

- 경기도 내 각 시·군의 민속예술을 발굴, 육성하여 지역문화 정체성 확립
- 전통문화에 대한 도민의 관심과 이해를 증진하여 경기 민속예술에 대한 긍지를 높이는 계기 마련
- 한국의 민속예술과 다른 나라 민속예술의 교류를 통해, 세대 및 인종간의 벽을 허물고 남녀노소, 다문화 가정 모두가 함께 어울리며 화합하는 축제의 장을 마련

2. 개요

- 행사명 : 제22회 경기도민속예술제
- 기간 : 2019년 9월 20일(금) ~ 21일(토) 【2일간】
- 장소 : 경기도 수원종합운동장 수원체육관 일원
- 주최 : 경기도문화원연합회
- 주관 : 수원문화원
- 후원 : 경기도, 경기도의회, 수원시, 수원시의회, 한국문화원연합회

3. 운영방침

- 경연종목은 경기도 각 지역의 민속 문화를 새롭게 인식하고 전통성 유지 및 계승을 위한 내용으로 민속 놀이, 민속무용, 민속극, 소리 등 장르의 구분 없이 전 분야를 대상으로 함.
- 참가 작품은 인위적 연출을 자제하고 향토민속예술의 원형 재현에 충실하도록 각 시·군 문화원과 협의
- 객관적인 심사규정으로 수상자 선정에 공정성 확보
- 우수 단체(대상 1팀)는 한국민속예술축제 경기도 대표로 참가
※ 올해 전국대회(한국민속예술축제)가 60주년을 맞아 역대 수상팀 중심으로 추진예정(경기도는 김포 통진두레놀이_대통령상 수상팀이 출전함)으로, 2019년 최우수상팀(안산 둔배미 배치기놀이)이 올해 전국 대회를 출전하지 못하고 연차가 밀리게 됨. 이에 올해(2019년) 수원대회는 대상 1팀만 전국대회 출전팀으로 선발
-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접수창구의 단일화(시·군 문화원을 통해서만 접수)

4. 추진방향

- 경기도 민속예술 발전을 위한 경연 및 공론의 장으로서의 의미를 살림
- 경연 이외에도 체험과 직접참여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도입, 도민들이 경기도의 민속예술을 보다 친숙하게 즐길 수 있는 기회 마련
- 철저한 사전준비를 통해 참가자 및 관람객에게 최상의 문화서비스 제공
- 다양한 홍보 전략을 통해, 경기도 대표 축제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함

5. 기대효과

- 지역의 전통문화를 연구·개발·보존·선양하여 문화적 자산 마련
- 31개 시·군의 민속예술이 한데 어우러지는 본 축제를 통해, 민속예술을 보존하는 참가자들에게는 문화적 자부심을, 그리고 관람하는 도민들에게는 경기도 전통문화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고취시킴
- 민속예술 한마당 축제를 통해 향토애와 경기도의 문화 정체성 확립

9. 지역추진위원회

직 위	소 속	성 명	비 고
위원장	수원문화원 부원장	김 봉 식	추진위 위원
위 원	수원문화원 부원장	신 광 자	추진위 위원
위 원	수원문화원 이사	고 진 수	
위 원	경기도문화원연합회 사무처장	최 영 주	지역추진위 위원 실무추진단장
위 원	수원문화원 사무국장	최 중 영	지역추진위 위원 실무추진부단장
위 원	수원시 문화정책팀장	고 기 남	
위 원	수원도시공사 차장	차 희 석	

10. 주요행사

구 분	행 사 명	일 시	장 소
의전행사	개막식	09.20(금) 11:00	수원체육관 특설무대 (내부)
	폐막식	09.21(토) 17:30	
경연대회	1일차 경연: 13개 팀 참가	09.20(금) 09:00~18:00	수원체육관 메인경연장 (내부)
	2일차 경연: 17개 팀 참가	09. 21(토) 08:30~17:30	
전시 · 체험행사	문화예술 체험부스	09.20(금)~21(토) 10:00~17:00	주차장 특별부스 (외부)
	푸드트럭 운영		
	수원역사문화투어		관내
후생 지원	의료, 미아, 안내, 자원봉사자 및 행사 인력 관리	09. 20(금)~21(토)	체육관 외부 종합안내소
축하공연	개막식 : (사)사물놀이 한울림	09.20(금) 11:00~11:20	수원체육관 특설무대
	폐막식 : 수원시립공연단 무예24기 시연팀	09.21(토) 17:30~18:00	
토론회	지속발전 가능한 문화원 만들기 액션 토크	12.10(화) 13:00~18:00	남양주 서경청소년수련원 대강당

11. 세부시간계획

구분	시간		소요 시간	내용	전시체험	비고
	부터	까지				
1 일 차	경연	09:00	10:30	90	경연대회 3개팀	-
		10:30	10:45	15	장내정리	
	입장	10:45	11:00	15	경연팀 입장 퍼레이드	고양문화원 대취타
	개 막 식	11:00	11:20	20	개막공연	(사)사물놀이 한울림
		11:20	11:23	3	내빈소개	
		11:23	11:26	3	국민의례	
		11:26	11:30	4	개회선언 및 대회사	-시·군 홍보부스 -문화예술체험부스 -푸드트럭 운영 -수원역사문화투어
		11:30	11:45	15	축사	대회장
		11:45	11:48	3	우승기반납	내빈
		11:48	11:50	2	선수단 선서	
		11:50	11:55	5	심사위원 소개(기준 발표)	
		11:55	12:00	5	폐회 및 퇴장	심사위원장
	중식	12:00	13:00	60	중식	
	경연	13:00	18:00	300	경연 10개팀	-
2 일 차	경연	08:30	12:30	240	경연 8개팀	-시·군 홍보부스 -문화예술체험부스 -푸드트럭 운영 -수원역사문화투어
	중식	12:30	13:00	30	중식	
	경연	13:00	17:30	270	경연 9개팀	
	폐 막 식	17:30	18:00	30	폐막공연	수원시립공연단 무예24기
		18:00	18:03	3	국민의례	
		18:03	18:05	2	폐회사	대회장
		18:05	18:10	5	심사위원 평가	심사위원장
		18:10	18:30	20	시상식	
		18:30	~		폐회선언	대회장

12. 행사장 안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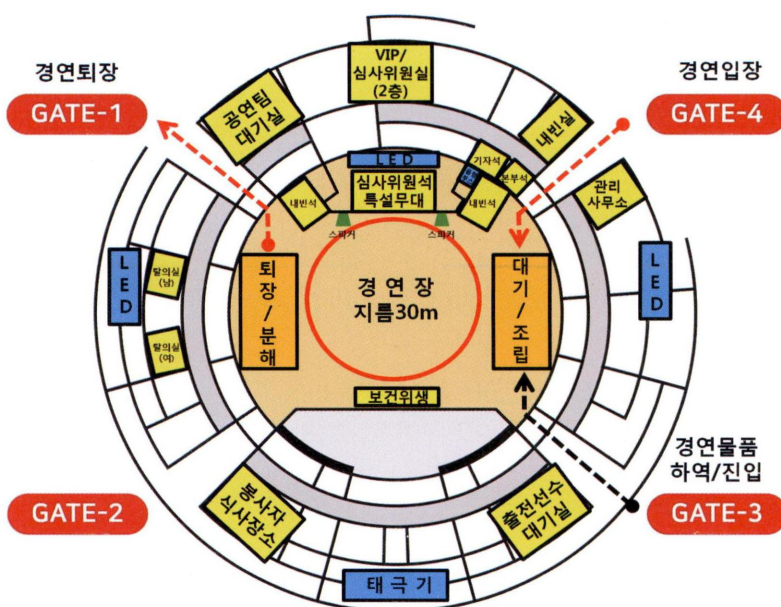
12-1. 외부 전체



12-2. 경연장 외부



12-3. 경연장 내부



13. 참가현황(경연순)

순서	지역	경연작품명	경연구분	단체명
1	오산	오산금암동거북놀이	민속놀이	오산금암동거북놀이보존회
2	광주	엄미리장승제	민속의례	엄미리장승제보존회
3	안산	안산둔배미배치기소리	민속놀이	안산둔배미놀이보존회
4	이천	이천자채농요	민요	이천자채농요보존회
5	양평	양평두레농악놀이	민속놀이	양평두레농악보존회
6	성남	성남이무술집터다지는소리	민속놀이	성남이무술집터다지는소리보존회
7	연천	아미산울어리	민속놀이	아미산울어리보존회
8	의정부	의정부녹양버들개농요	민속놀이	의정부버들개농요민속보존회
9	안양	안양만안답교놀이	민속놀이	안양민속예술단
10	포천	포천가노농악	농악	포천문화원
11	가평	풍년기원 기우제와 대동놀이	농악	가평문화원
12	수원	수원대보름굿	농악	수원두레농악보존회
13	의왕	의왕왕곡동제	민속극	의왕문화원
14	군포	군포군웅제민속마당	농악 · 민속놀이 · 무용 · 민속극	군포문화원
15	동두천	탐동상여회다지소리	민속놀이	탐동상여회다지소리보존회
16	김포	조강치군패놀이	민속놀이	김포시조강치군패보존회

순서	지역	경연작품명	경연구분	단체명
17	과천	삼남길새술막놀이	민속놀이	과천민속예술단
18	부천	부천석천농기고두마리	민속놀이	부천석천농기고두마리보존회
19	화성	화성역말두레놀이	민속놀이	화성시봉담역말농악보존회
20	남양주	늘을지신밧기	민속놀이	늘을풍물단
21	안성	안성장승성혼식	민속극	안성장승제보존회
22	광명	철산리두레농악	농악	광명농악보존회
23	용인	백암농요	민속놀이	백암농요보존회
24	구리	구리구지농악	농악	구리구지농악단
25	고양	진발두레농사소리	민요	성석농악진발두레보존회
26	여주	봉산탈춤	민속극	문화체험공동체다스름
27	양주	양주들노래	민속놀이	양주들노래보존회
28	평택	평택안중농요	민요	평택안중농요보존회
29	시흥	시흥월미농악	농악	시흥월미농악보존회
30	파주	파주교하농악	농악	전통예술단호연

※ 출전 미신청 (하남)

14. 시상계획

시상구분		훈 격	시상대상	시상품	비 고
계			단체 30 개인 2		
단 체	대 상	경기도지사	1개팀	우승기 · 상장 · 상패	2021년 한국민속예술축제 출전
	최우수상	경기도의회의장	1개팀	상장 · 상패	2020년 10개지역 경기도 우수전통 민속보존단체지원대상으로 선정예정
	우 수 상	한국문화원연합회장	1개팀	상장 · 상패	
		경기도문화원연합회장	1개팀	상장 · 상패	
		수원시장	1개팀	상장 · 상패	
	공 로 상	수원시장	1개팀	상장 · 상패	
	예 술 상	수원시장	3개팀	상장 · 상패	
	민 속 상	수원시의회의장	2개팀	상장 · 상패	
	장 려 상	경기도문화원연합회장	18개팀	상장 · 상패	
	소 품 상		1팀	상장 · 상패	
개 인	지 도 상	경기도문화원연합회장	1명	상장 · 상패	
	연 기 상		1명	상장 · 상패	

II

제22회
경기도
민속예술제
추진과정

1. 추진위원회/지역추진위원회/실무추진단 경과보고
2. 세부추진일정

1. 추진위원회/지역추진위원회/실무추진단 경과보고

구분	일시	장소	주요내용
제1차 추진위원회	5/8(수) 11:00	수원문화원 3층 다목적실	기본계획(안) 승인 심사위원 추천 기타 안건
1차 지역추진위원회	6/14(금) 10:30	수원문화원 3층 다목적실	기본계획 설명 기관별 협의사항 등
2차 지역추진위원회	7/2(화) 10:30	수원문화원 3층 다목적실	1차 회의 논의사항 확인 기타 협의사항 등
제2차 추진위원회	7/9(화) 11:00	수원문화원 3층 다목적실	세부계획(안) 심의 심사위원 확정 참가팀 확정 기타 안건
시·군관계자 회의	7/16(화) 14:00	수원시체육회관 2층 대회의실	행사개요 및 운영계획 안내 참가팀 경연대회 순서 추천 행사장 답사
제3차 추진위원회	8/26(월) 11:00	수원문화원 3층 다목적실	심사위원 선정 참가자 확정 기타 안건
3차 지역추진위원회	9/4(수) 11:00	수원문화원 3층 다목적실	2차 회의 논의사항 확인 기타 확정 및 향후 추진사항 보고 기타 협의사항 등
실무추진단 회의	9/4(수) 13:00	수원문화원 3층 다목적실	업무분장 및 공유 미흡사항 점검
심사위원 회의	9/20(금)	수원종합운동장 수원체육관	심사 기준 및 방법 설명 세부 심사기준 논의
내부 평가회의	10/8(화) 16:30	수원문화원 3층 다목적실	내부 평가회의 및 토론

2. 세부추진일정

구분		주요내용	일자(기간)	비고
기본계획수립		기본계획안 완성	3/25	
		1차 세부 운영계획안 완성	5/3	
		세부 운영계획(최종) 완성	6/5	
행사 부분	의전	개폐막 공연팀 확정	9/4	
		대상자 확정 및 초청장 발송	9/4	
		시나리오 확정	9/17	
	경연대회	개최 일정 및 주의사항 안내	3/25	
		대회요강 및 참가신청서 접수 공문 발송	5/13	
		참가신청 접수	~6/21	
		시·군 관계자 회의	7/16	
		참가팀 확정 및 세부기획 진행	8/26	
		참가자 안내 사항 및 축제관련 최종공지	9/9	
		상장 의뢰 및 수신	8/28~9/17	
		상패 및 우승기 제작	8/28~9/6	
		행사 큐시트 완료	9/19	
	전시·체험 행사 및 부대행사	참여 단체 섭외 및 확정	8/27	
		역사문화투어 접수신청	7/26	
		행사장 부스 설치 및 셋팅	9/19	
		부스 철거	9/21	
운영 부분	임차 및 시설 (무대, 음향, 조명 등)	행사장 시설물 개수 확정	9/5	
		배치 현황 및 전달	9/6	
		행사장 시설물 설치	9/19	
		시설 안전점검	9/19	
	실비보상	단체복 제작 발주	9/4	
		단체복 수령	~9/10	
		단체복 배포	9/20,21	
		기념품 발주	9/3	
		기념품 수령	9/10	
		교통정리 및 주차안내유도 단체 섭외	9/6	
		의료 및 자원봉사자 섭외	~9/16	
		일시사역 섭외	9/5	
		행사보험 가입	7/15	
		경연장 대관	9/5	

구분		주요내용	일자(기간)	비고
홍보	인쇄물	1차 홍보물 제작 및 발송	8/21	
		2차 홍보물 배포	9/4	
		프로그램북 제작	9/5~9/17	
	옥외	거리 홍보물 게첨	8/6~26	
		홍보선전탑 설치	8/29	
	온라인	홈페이지 게시	8/13	
	보도자료	보도자료 배포	8/28	
후속작업		행사장 시설물 철거 및 정리	9/20	
		내부 평가회의 진행	10/8	
		동영상 제작 완료 및 배포	12/31	
		정산 및 결과보고서 제작 및 발송	12/31	
		토론회 개최	12/10	



III

제22회 경기도 민속예술제

프로그램별 시행결과

1. 개막식
2. 폐막식
3. 경연대회
4. 체험 및 부대행사

1. 개막식

1-1. 개요

- 일시 : 2019.09.20.(금) 11:00~12:00
- 장소 : 수원종합운동장 수원체육관 특설무대
- 참가대상 : 시·군 30개 참가팀 및 관람객

1-2. 세부일정

시간		소요 시간 (분)	행사내용	비고
부터	까지			
10:30	10:45	15	장내정리 입장 퍼레이드 준비	
10:45	11:00	15	경연팀 입장 퍼레이드	고양문화원 취타대
11:00	11:20	20	개막공연	(사)사물놀이한울림 축원 삼도농악가락
11:20	11:23	3	내빈소개	영상 송출
11:23	11:26	3	국민의례	
11:26	11:30	4	개회선언 및 대회사	염상덕 대회장
11:30	11:45	15	축사	염태영 수원시장(영상송출) 김태웅 한국문화원연합회장 송한준 경기도의회 의장
11:45	11:48	3	우승기 반납	2017 제21회 대상팀 : 화성시
11:48	11:50	2	선수단 선서	수원시 대표 : 장선옥, 조수진
11:50	11:55	5	심사위원 소개(기준 발표)	서한범 심사위원장
11:55	12:00	5	폐회 및 퇴장	

1-3. 입장 퍼레이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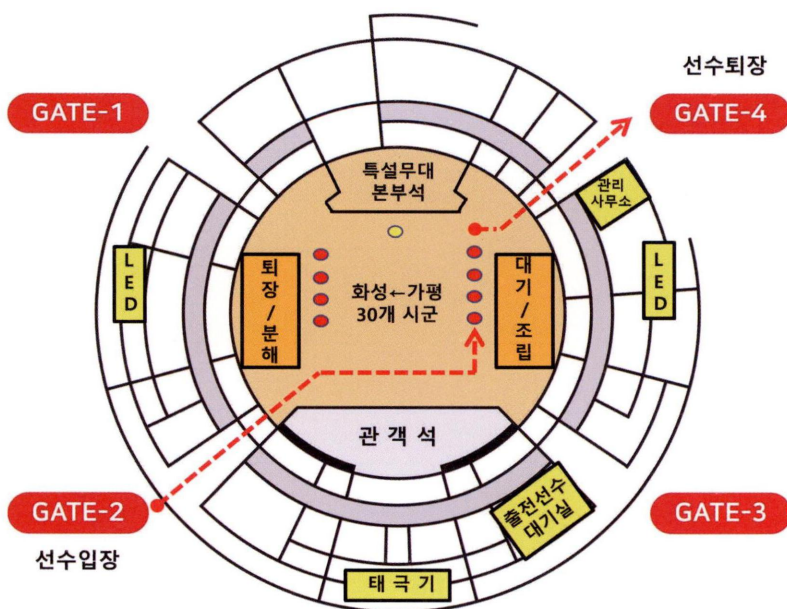
● 입장식 전체순서

- 선두 : 고양문화원 취타대
- 입장 : 우승기 ← 대회 메인피켓 ← 출전시·군문화원 피켓 ← (이하 만장기)출전 문화원기
← 참가단체 또는 작품깃발 ← 특색을 나타내는 문구기수(농자천하지대본 등)

● 문화원별 입장순서(가나다순)

- 가평01, 고양02, 과천03, 광명04, 광주05, 구리06, 군포07, 김포08, 남양주09, 동두천10, 부천11, 성남12, 수원13, 시흥14, 안산15, 안성16, 안양17, 양주18, 양평19, 여주20, 연천21, 오산22, 용인23, 의왕24, 의정부25, 이천26, 파주27, 평택28, 포천29, 화성30

● 방법 및 도열



2. 폐막식

2-1. 개요

- 일시 : 2019.09.21(토) 17:30~18:30
- 장소 : 수원종합운동장 수원체육관 특설무대
- 참가대상 : 시·군 30개 참가팀 및 관람객

2-2. 세부일정

시간		소요 시간 (분)	행사내용	비고
부터	까지			
17:30	18:00	30	폐막공연	수원시립공연단 무예24기
18:00	18:03	3	국민의례	
18:03	18:05	2	폐회사	염상덕 대회장
18:05	18:10	5	심사위원 평가	서한범 심사위원장
18:10	18:30	20	시상식	총29팀/2인
18:30	~		폐회선언	염상덕 대회장

3. 경연대회

3-1. 개요

- 일시
 - 2019.09.20(금) 09:00~18:00/ 총 13개팀
 - 2019.09.21(토) 08:30~17:30/ 총 17개팀
- 장소 : 수원종합운동장 수원체육관 메인 경연장
- 참가대상 : 시·군 30개 참가팀 및 관람객

3-2. 경연 일정

- 1일차(9월 20일 금요일)

시간		소요 시간 (분)	지역	작품명
부터	까지			
09:00	09:30	30	오산	오삼금암동거북놀이
09:30	10:00	30	광주	엄미리 장승제
10:00	10:30	30	안산	안산둔배미 배치기소리
10:30	12:00	90	—	개회식
12:00	13:00	60	—	중식
13:00	13:30	30	이천	이천자채농요
13:30	14:00	30	양평	양평두레농악놀이
14:00	14:30	30	성남	성남 이무술 집터 다지는 소리
14:30	15:00	30	연천	아미산 울어리
15:00	15:30	30	의정부	의정부녹양버들개농요
15:30	16:00	30	안양	안양 만안답교놀이
16:00	16:30	30	포천	포천 가노농악
16:30	17:00	30	가평	풍년기원 기우제
17:00	17:30	30	수원	수원대보름굿
17:30	18:00	30	의왕	의왕 왕곡동제

● 2일차(9월 21일 토요일)

시간		소요 시간 (분)	지역	작품명
부터	까지			
08:30	09:00	30	군포	군포 군웅제 민속마당
09:00	09:30	30	동두천	탐동상여회다지소리
09:30	10:00	30	김포	조강치군패놀이
10:00	10:30	30	과천	삼남 길 새술막놀이
10:30	11:00	30	부천	부천석천농기고두마리
11:00	11:30	30	화성	화성역말 두레놀이
11:30	12:00	30	남양주	늘을지신밧기
12:00	12:30	30	안성	안성장승제
12:30	13:00	30	—	중식
13:00	13:30	30	광명	철산리 두레농악
13:30	14:00	30	용인	백암농요
14:00	14:30	30	구리	구리구지농악
14:30	15:00	30	고양	농사소리
15:00	15:30	30	여주	봉산탈춤
15:30	16:00	30	양주	양주들노래
16:00	16:30	30	평택	평택안중농요
16:30	17:00	30	시흥	시흥월미농악
17:00	17:30	30	파주	파주교하농악

3-3. 수상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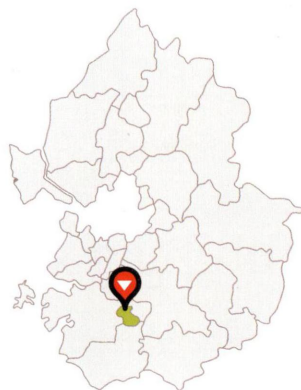
● 단체(29팀)

시상구분	훈격	지역명	출전작품명	비고
대 상	경기도지사	광명	철산리두레농악	2021년 한국민속예술축제 경기도 대표 출전
최우수상	경기도의회의장	성남	성남 이무술 집터 다지는소리	2020년 우수민속예술 보존단체지원
우 수 상	한국문화원연합회장	용인	백암농요	
	경기도문화원연합회장	시흥	시흥월미농악	
	수원시장	평택	평택안중농요	
공 로 상	수원시장	동두천	탐동상여희다지소리	
예 술 상	수원시장	의정부	의정부녹앙버들개농요	
		부천	부천석천농기고두마리	
		이천	이천자채농요	
민 속 상	수원시의회의장	고양	진발두레농사소리	
		양주	양주들노래	
장 려 상	경기도문화원연합회장 (구, 나, 다순)	가평	풍년기원 기우제와 대동놀이	
		과천	삼남길 새술막놀이	
		광주	엄미리 장승제	
		구리	구리 구지농악	
		군포	군포 군웅제 민속마당	
		김포	조강 치군패놀이	
		남양주	늘을지신밧기	
		수원	수원 대보름굿	
		안산	안산 둔배미 배치기소리	
		안성	안성 장승성혼식	
		안양	안양 만안답교놀이	
		양평	양평 두레농악놀이	
		여주	봉산탈춤	
		오산	오산 금암동 거북놀이	
		의왕	의왕 왕곡동제	
		포천	포천 가노농악	
		화성	화성 역말두레놀이	
소 품 상	경기도문화원연합회장	수원	수원대보름굿	

● 개인(2팀)

시상구분	훈격	지역명	출전작품명	비고
지 도 상	경기도문화원연합회장	용인	백암농요	박상옥
연 기 상		시흥	시흥월미농악	김소민

※ 경기도내 총 31개 시·군 중 출전 미신청 하남,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으로 연천(1일차), 파주(2일차) 최종 불참

01
오 산

오산금암동거북놀이

고 증 | 노한문

지도위원 | 김상호

유 래

예로부터 오산 지역은 마을마다 특유의 민속놀이가 존재하였으며 특히 추석날 저녁 마을 사람들이 모여서 한해 풍년과 무병장수를 기원하는 대동제 성격의 놀이가 성행하였다. 금암동 거북놀이는 거북애비와 큰거북이를 중심으로 마을 주민들이 함께 전승되어 오고 있다.

발굴경위

선사시대의 고인돌(지석묘) 수습기가 자리하고 있는 오산 금암리 (옛칭: 금바위 마을)는 1980년대 초반까지 한가위(추석) 저녁에 마을 주민들이 거북이를 만들어 놀이를 행하였으나, 신도시개발로 인하여 주민이 다른 곳으로 이주하면서 전통놀이가 단절됨.

이에 금암향우회를 중심으로 옛 금암리 어르신들과 함께 2014년 4월 독산성축제(고인돌공원: 옛 금암리 자리)를 시작으로 거북놀이를 재현함.

특 징

* 오산금암동 거북놀이는 다른 지역과 달리 분지형태의 지형으로 농토가 적은 곳으로 사방이 야산이며 시냇물이 마을 앞을 지나고 있는 지형임. 따라서 농악 위주가 아닌 큰 거북이(길이:약5미터, 뿔이 달린 머리)가 놀이의 중심이며, 무병장수와 풍년을 기원하고 거북애비(구부)와 큰거북이가 채담과 재풍을 통하여 마을의 안녕과 가뭄 및 풍수해를 없도록 기원하고 마당밧기를 통한 액운을 막아내고, 마을 주민의 화합과 상부상조의 두레정신을 나타내다 는 점.

* 태평소를 사용하지 않는다.(밤에는 피리소리를 내지 않는다는 전통 토속신앙에 기인함.)

놀이시기

추석(한가위) 저녁부터 밤늦게까지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북을 기원함.

구 성

농악 / 거북애비 / 큰 거북이 / 새끼거북이 / 대감 및 안주인 / 마을주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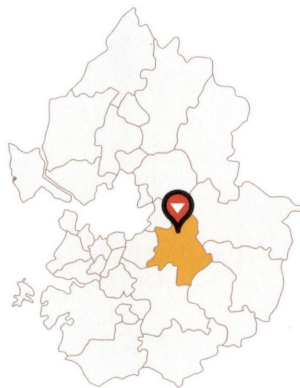
진행과정

1.산신령께 고향 2.길놀이(입장) 3.문굿 4.쌈굿 5.대청굿 6.거북애비 채담 및 마당판굿 7.어울림 마당 8.인사굿 9.길놀이(퇴장)



02

광 주



엄미리장승제

고 증 | 유주영, 허현무

지도위원 | 남진우

유래

병자호란(1636년) 발발 이후 잦은 외부인의 왕래로 전염병이 창궐하자 이를 예방함과 동시에 마을의 안녕과 번영을 기원하기 위해 마을 어귀에 장승을 세워 제를 지내게 된 데서 유래되었다. 일제강점기와 6.25로 잠시 중단되다 다시 복원되어 400년째 전승되고 있다. 당시 엄미1리에서 엄미2리를 거쳐 남한산성으로 넘어가는 길에 장승들이 여럿 세워져 있었으나 1988년 고속도로가 개통되면서 옛길이 끊기고, 장승이 세워져 있던 곳으로 도로가 나면서 자연스럽게 여타 마을들의 장승이 사라지고 엄미리 장승만 남게 되었다. 당시 장승제와 산신제가 병행되었으나 현재는 장승제만 전승되고 있다.

발굴경위

10년 전까지만 해도 장승제와 산신제를 병행했으나 과정의 엄격함과 번거로움 때문에 산신제는 사라지고 현재는 장승제만 남아있다. 현재 격년제로 단순한 형태의 장승제만 전승되고 있으나 원주민의 잦은 외부 진출로 전승이 어려운 실정에 놓였다. 뿐만 아니라 1910년까지 도당굿과 농악이 함께 병행되었다는 사실을 밝혀내게 되었다. 따라서 본 민속제를 계기로 그 원형을 살려 전승기반을 좀 더 확실히 구축하고자 본 대회에 출전하게 되었다.

특징

- 다른 지역의 장승과 다르게 눈이 세로로 그려져 있다.
- 장승의 안면에 황토를 발라 벽사기능을 강화시킨다.
- 제사 비용은 쌀이나 술을 찬조 받아 해결하기도 하지만 원칙적으로는 대동 걸립(乞粒)으로 충당한다.
- 장승터에서 도당굿을 한다.
- 나무로 깎아 특유의 조형미를 갖추고 있으며, 솟대를 함께 배치한다.
- 격년제로 지낸다.

놀이시기

격년제로 매년 2월 초, 부정이 없는 날을 택해 지냈으나 현재는 출향주민까지 참여할 수 있도록 음력 2월 초 주말에 지내고 있다.

구성

1. 장승목 이동(걸립패 등장) / 2. 장승깎기(새참 먹기 추가)
3. 장승 옮기기(선소리 등장) / 4. 장승제지내기(도당굿 연주)
5. 대동놀이(뒷풀이)

진행과정

장승 목을 걸립패와 함께 이동하여 새참을 먹으며 장승을 깎고 화장을 시킨다. 완성된 장승을 언덕 모퉁이로 옮긴 후 제수를 갖춰 제를 지내고, 제가 끝난 후 인근마을 농악패와 대동놀이를 한다. 제를 지낼 때 도당굿 연주를 추가한다.



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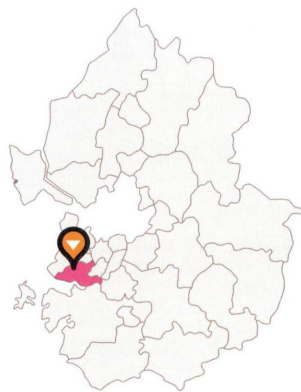
안 산



안산둔배미배치기소리

고 증 | 천병희

지도위원 | 차도열, 이성호, 유경석, 천병희, 최명선



유래

조선시대 안산에는 궁중에 지방특산물을 진상했던 사옹원분원이 있어 안산바다에서 잡히는 밴댕이, 민어, 준치, 새우 등의 해산물을 진상하여 왔으며(동국여지승람, 안산군읍지) 세종 때부터 안산 둔배미 마을 근처에 초지양령을 설치하여 크고 작은 전선(戰船)을 주둔시키고 조세, 조운, 해안방위 등의 임무를 수행하였다. 별망성 아래 별망마을(현 열병합발전소)에는 초지진의 별망군(別望軍)들이 주둔하던 망루가 있기도 하였으며 초지진을 보호하던 별망성은 현재 경기도 지정기념물로 보호되고 있다. 안산의 둔배미 포구(둔포, 원포: 현 안산시 초지동 안산공과대학 인근)는 안산에서 유일하게 전선(戰船)과 중선(重船)이 드나들 수 있는 가장 큰 포구로서 어업이 성행했었다.

발굴경위

1987년 안산의 풍물가락과 농요를 찾기 위해故 박해일(국가 중요무형문화재 79호 발탈예능보유자, 안산국악협회장)선생이 둔배미 포구와 성머리 포구에서 어업에 종사하던 어부들을 탐문하여 배치기소리를 채록하고, 능길마을의 농부들에게 농요를 채록하기 시작하여 1989년 향토사학자故 이한기 선생과 함께 배치기소리에 대한 원형을 정리하여 40여 년 만에 둔배미 놀이를 정리하였다. 이 후 1989년 제6회 경기도민속예술경연대회에 참가하였고(종합우수상) 1990년 안산 둔배미놀이 보존회가 구성되었으며 1991년 제32회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에 참가하여 장려상을 수상한 이후 매년 안산시 문화행사에서 시연을 하고 있다.

특징

안산 둔배미 배치기 소리는 안산의 옛 둔배미 포구의 어부들이 어로 작업을 하며 부르던 배치기소리, 바다질소리, 서낭당고사 풍물놀이 등의 민속놀이로 구성된 옛 둔배미 포구의 지역적 특색을 살린 대동놀이이다. 특히, 둔배미 배치기소리는 황해도 배치기와는 메김소리와 받음 소리가 가락 면에서 구분되며 경기도지역에서 유일하게 보존 및 전승되고 있는 배치기소리이다.

구성

- 1) 성황당 고새(서낭제)
 - ① 선주가 제관이 되어 당집에 제물을 차린다.
 - ② 선주가 먼저 잔을 올리고 이어 도사공이 선원들을 대표하여 잔을 올린다.
 - ③ 도사공은 선주가 내어주는 소지를 받아 소지를 올린다.
 - ④ 선주는 도사공에게 봉축을 건네준다.
 - ⑤ 사공들은 서낭당 산신기와 임장군기, 백기를 제각기 받아 들고 배치기소리를 하며 어선에 오른다.
- 2) 길놀이(배치기소리)
 - ① 어부들의 배치기행진에 농부들과 아낙들이 화답하며 함께 배로 향한다.
 - ② 용왕제를 모실 떡시루와 음식을 머리에 인 아낙들이 배 옆에 이르러 춤을 추고 어부들이 승선한다.
- 3) 용왕제와 선상 배치기소리
 - ① 어부들이 배에 기를 꽂고 용왕제를 모신다.
 - ② 배가 출항하며 어부들이 배치기소리를 하고 아낙들과 농부들이 같이 소리를 받는다.
 - ③ 떠나는 배를 보며 아낙들과 어부들이 축원을 드린다.
- 4) 어부들의 행선 및 어로작업(선상배치기)
 - ① 어부들이 배를 저어 바다로 나간다.
 - ② 용왕제를 모셨던 술과 음식을 모두 바다에 뿌린다.
- 5) 만선귀향(바디질소리)
 - ① 그물 가득 고기가 잡히면 바다로 퍼올리며 바디질소리를 한다.
 - ② 만선 오색기를 올리고 백포장 둘러치고 배치기소리를 하며 어선이 귀향한다.
- 6) 대동축제
 - ① 둔배미 포구에 배가 도착하면 배치기소리와 풍물소리가 어울리며 축제의 장이 선다.
 - ② 동네아낙들이 고기를 받기위해 그릇을 이고 배로 모여든다.
 - ③ 어부들과 아낙들은 고기를 퍼 나르고 선주부인은 술동이를 이고 나와 어부들의 노고를 치하한다.
 - ④ 배에서 내린 어부들과 아낙들과 농부들이 함께 어우러져 풍물소리에 맞춰 춤을 춘다.



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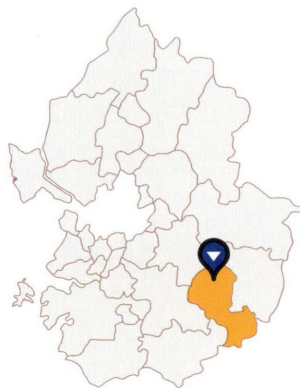
이 천



이천자채농요

고 증 | 이인수

지도위원 | 심덕구



유 래

‘광주분원 사기방아, 여주이천 자채방아’라는 민요 구절처럼 자채(紫彩)씨는 이천지역에서 재배했던 극조생 벼품종으로, 밥맛이 좋아 임금님의 수라상에 올랐던 이천쌀의 원류이다. 그러나 자채쌀은 직과농법으로 재배해야 하는 한계가 있어 수확량이 워낙 적었기 때문에 1950년대 초반에 이미 거의 재배를 하지 않았고 결국 멸종되고 말았다. 자채농요(紫彩農謠)와 농악은 이천지역 농부들이 자채벼를 재배하며 불렀던 노동요로 이천의 지역성을 담은 특별한 민요였으나 산업화 이후 농촌사회가 큰 변화를 겪으며 점차 사라져 한동안 흔적을 찾아보기 힘들었다. 이에 이천문화원은 이천자채농요를 복원하는 사업(2017)을 펼쳤고, 대월면주민자치센터에서 민요강좌를 통해 이천자채농요를 보급하였다.

발굴경위

자채농요에 대한 연구는 1986년 김순제 교수가 대월면을 중심으로 조사한 「이천지방 일노래의 음악적 분석」(기전문화연구 제15집, 인천교육대학) 이후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대월면 군량리 등에 이천자채농요를 기억하는 일부 이천토박이노인이 있어 인터뷰를 통해 내용을 채록하였고, 이천문화원에서 이천지역 국악전문가를 중심으로 복원사업을 펼쳐서 자채농요발표회를 진행하였다. 이에 올해 경기도민속예술제 참가를 계기로 이천자채농요가 이천의 대표민요로 발돋움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특 징

자채농요는 크게 1.논 모 찢 때의 노래, 2.논에 모를 심을 때의 노래, 3.논의 김을 맬 때의 노래로 구분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자채농요는 메기는 소리(독창)와 받는 소리(제창)로 나누며 일반음악과 같이 짝 짜여진 형식이 있어 그것이 되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정해진 구절의 바탕 위에 참가자들의 즉흥적인 감흥에 따라 불리워지므로 시작과 끝이 딱 떨어지지 않는다. 상황에 따라 노래 도중에 일이 끝나거나 쉬 때도 있고, 잠시 후에 노래를 이어갈 수도 있기 때문이다.

놀이시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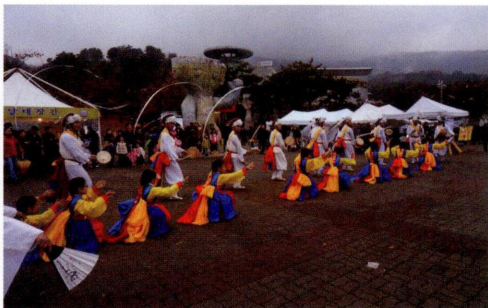
자채농요는 말 그대로 농사를 지을 때 부르는 노동요이기 때문에 농사일정과 관련이 깊다. 같은 이유로 특징 항목의 자채농요의 구분체계 또한 모를 찢는 과정, 모를 심는 과정, 논에서 김을 매는 과정에서 부르는 노래로 분류하였다. 즉 이천자채농요의 놀이시기는 정확한 날짜를 특정할 수 없고 다만 일반적인 농사일정에 맞춰 모내기를 준비하는 5월부터 김매기를 하는 여름철까지로 볼 수 있다.

구 성

기수, 풍물(꽁과리-징-장구-북-벽구), 농민, 아낙네

진행과정

모를 찢 때 부르는 노래 → 모를 심을 때 부르는 노래 → 농기싸움 → 김을 맬 때 부르는 노래



05

양 평



양평두레농악놀이

고 증 | 박건영

지도위원 | 박다열

유 래

조선민족사의 농사와 함께 해오던 민속놀이입니다. 정월 대보름 풍년기원 놀이와 함께 이어져 가는 양평산간지방의 다랑이 논농사를 하며 전해오던 놀이문화입니다. 놀이는 풍년기원과 농악놀이이며 특히 양평에 남사당놀이 뿌리를 내리면서 접목된 공마당 놀이입니다.

발굴경위

양평에 민속놀이가 점차 사라질 시점에서 선조님들이 전해오고 생활해오던 놀이문화를 발굴하고 전승보존하기 위하여 정월대보름 놀이부터 농사를 짓기 위한 농요소리와 풍요로운 우리 문화를 후손들에게 전수하고 놀이문화로 이어지기를 바라는 심정으로 발굴 하였습니다.

특 징

웃다리 풍물놀이와 남사당풍물놀이가 접목된 농악놀이이며 봄부터 농사가 시작되는 못자리 모심기 논매기 초벌 두벌소리 및 율동 벼베기 태질하기 까지의 농요소리와 율동이 함께 하는 놀이 문화와 남사당의 악기 개인 놀이들이 함께 어우러 지는 놀이입니다.

놀이시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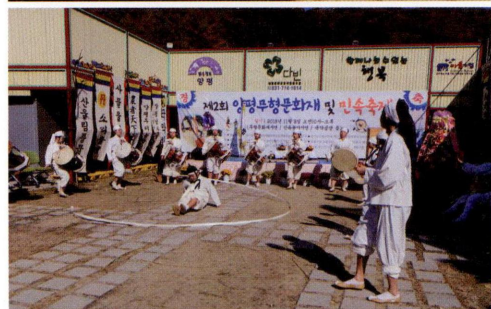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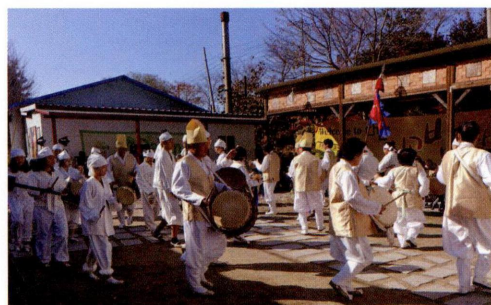
정월대보름부터 가을 추수하기까지이며 가을 대풍 맞이 대동놀이까지 이어져가는 1년 동안 농사와 함께하는 놀이입니다.

구 성

농악놀이악사 상쇠, 부쇠, 삼쇠, 징, 장구, 북, 소고잡이, 피조리, 잡색 들로 구성합니다. 농사 두레놀이는 선소리꾼, 후렴 받는 소리꾼들, 모내기못줄꾼, 잡일꾼들, 참을 가져오는 아낙네들, 지나가는 나그네들 및 망반 등으로 구성 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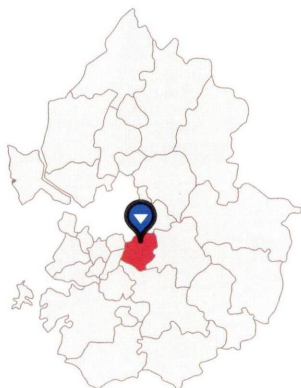
진행과정

입장전 풍년기원 대동놀이 / 입장하여 한마당놀이 웃다리놀이 / 모내기놀이 / 초벌논매기 / 두벌논매기 / 벼베기 / 태질하기 / 풍년 맞이 대동놀이 악기 및 개인놀이



06

성 남



성남이무술집터다지는소리

고 증 | 故 최종민

지도위원 | 방영기

유래

‘이무술’은 과거에 광주군 돌마면 이매리 옛 지명으로 현재 분당구 이매동을 일컫는 마을 이름입니다. ‘이무술 집터 다지는 소리’는 곧, 이무술 마을 주민들이 집을 지을 때 좋은 터를 고른 후 집을 짓기 위해 터를 단단하게 다지는 과정에서 불렀던 노동요입니다. 옛날에는 자손을 분가시키거나 이사를 가서 새로 집을 지을 때, 집터를 고르고 지반을 튼튼하게 다져야 할 때, 집을 짓는 동안의 안전과 지은 후에도 영원히 복을 누리기 위해 기원하고 평안을 기원하는 고사와 덕담을 내용으로 하는 소리를 부르며 작업을 했던 것입니다. 이 때, 마을 사람들은 품앗이라고 하는 우리 고유의 미풍양속을 살려 마을 사람들의 화합과 협동심을 이어왔고, 소리를 통해 신명을 돋우면서 고단함을 덜었던 것입니다.

발굴경위

이무술은 현 성남시 분당구 이매동의 옛 이름으로서 원래 ‘이무술’이란 자연부락이었다. 300년 전 천렵을 즐기던 한 농부가 냇가에서 커다란 고기를 안고 나와 죽은 일이 있었는데, 그 고기는 천 년만에 승천할 이무기로서, 마을 주민들이 죽은 이무기의 원한을 풀어주기 위해서 위령 승천제를 지내자 그 자리에 난데없는 매화나무 두 그루가 솟아 그 후부터 이매동으로 불리웠다 한다. 이무술 집터 다지는 소리도 경기지방의 물음이 반영되고 있는데, 집터를 닦고, 다지고 집을 완성하기까지의 과정 중에서, 특히 집터 다지는 소리가 특색있게 잘 발달되어 전해지고 있었다. 또한 이무술 집터 다지는 소리(지경다지기)는 1982년 발굴 및 재연하여 1983년 3월 27일 관계기관 및 고증인, 감수, 마을주민과 함께 시연회를 하였고, 2017년 1월 17일에 성남시 향토문화재 제15호로 지정되었다. 1985년 경기도민속예술경연대회에서 장려상을 수상하였으며, 1994년 경기도민속예술경연대회에서는 우수상을, 1997년에는 경기도민속예술경연대회에서 장려상, 2013·2015년에 경기도민속예술제에서 예술상을, 2016년 제6회 전국국악예술작품 안양대회에서 장원상, 2017년 제21회 경기도민속예술제에서 장려상·소품상을 수상했다.

특징

집터 다지기는 주로 밤에 이루어지는데, 마을 사람들이 낮에는 농사일을 하기 때문이기도 하고, 터주신이나 귀신은 밤에 움직인다고 믿어 밤에 행하여야 액신을 쫓아낼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절자로는 집주인이 술과 안주를 푸짐하게 장만하고, 지경돌과 햇불을 준비해 놓으면 동네사람들이 모여든다. 먼저 고사 술상을 준비하여 동티나지 말고 큰 부자가 되게 빌며, 술을 사방에

뿌리고 동네 사람들은 술을 한 순 배 마시고, 햇불을 꺼들고 터를 다지는데, 보통 선소리꾼이 선창을 하면 지경꾼들은 후렴을 한다. 이때의 소리는 고된 작업을 흥에 겨워 힘든 줄 모르고 신명나게 일할 수 있게 할 뿐만 아니라, 마을사람들의 화합과 협동심을 고취하는 역할을 하는 건설지향적이고 미풍양속이 듬뿍 담겨있는 것으로, 음율은 서울과 경기일원이 비슷하다. 왜냐하면, 경기도 중심부에 서울이 있고 그 둘레가 모두 경기도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집터 다지는 소리도 각 지역마다 다양하게 불리워졌는데 사대문 안과 밖의 음율은 역력한 차이가 있다. 즉, 서울의 경우에는 서두에 “에이려라”로 시작되는데 비해, 경기지역의 경우에는 서두가 “에이려라 지경이요”라고 불리워졌다.

놀이시기

- 자손을 분가시키거나 이사를 가서 새로 집을 지을 때
- 집터를 고르고 지반을 튼튼하게 다져야 할 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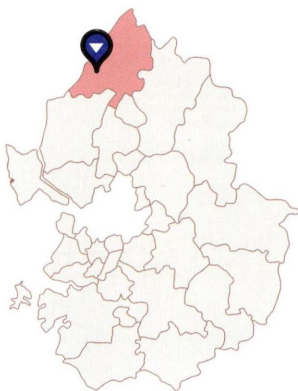
구성

임장 및 농악놀이 - 성토 - 지경다지기 - 풍년가

진행과정

고사 → 동아줄 꼬는 소리 → 성토(가래질 소리) → 도편수, 석수쟁이 → 지경다지기 (초지경 - 양산도타령, 중지경 - 방아타령, 종지경 - 잣은 방아타령) → 휘모리 → 뒷풀이



07
연 천

아미산울어리

고 중 | 이준용

지도위원 | 박흥식

유래

울어리란 해마다 추수를 앞두고 산마을 주민들이 한 데 모여 겨우살이에 대비한 땀 나무를 하고 석양이 들 무렵에 잡목으로 가마를 만들어 연장자를 태우고 마을로 돌아와 농악과 농요소리에 맞춰 마당놀이를 벌여 마을주민의 화평단합을 다지며 풍년에 감사하는 농민들의 놀이이다. 현재 우리나라 전역에 전래되어 있는 많은 농요 가운데 겨우살이를 대비하기 위하여 연료를 채취하면서 부르는 노래는 흔하지 않아 이러한 희귀성이 아미산 울어리의 특징이다.

발굴경위

8·15광복 전까지도 연천군 중면, 미산면, 신서면 등의 산악지대에서 세습적으로 연희되어 오다가 남북분단과 전쟁 등의 역사적 격변기를 맞아 중단되었던 것을, 이재순옹과 유춘리 원로들의 노력에 의하여 그 원형을 찾아 지금의 아미산 울어리로 복원되어 전수되고 있다.

특징

- ①울어리(나무 벨 때 부르는 노래)
- ②동계타령(남여와 영좌의 춤에 맞춰 부르는 노래)
- ③방아타령(모두 함께 부르는 노래)

놀이시기

추수를 앞두고 산마을 주민들이 겨우살이에 대비할 땀 나무를 하고 석양이 들 무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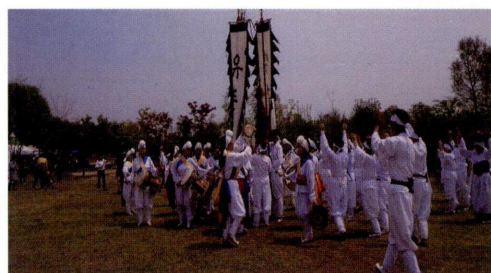
구성

- ①뿔나무베기 ②남여행차 ③마당놀이

진행과정

마을 일꾼들은 감발을 하고 낫과 솥돌 등의 연장을 들고 산에 오른다. 일꾼들이 모이면 상겨리, 중겨리, 하겨리 등의 두세파로 편을 갈라 나무베는 일을 시작하는데 이때

상, 중, 하겨리에서 번갈아 뿔나무베기 소리를 메기고 받으며 일을 한다. 뿔나무베기는 일이 끝나면 몇사람은 잡목과 흙을 베어 한 사람이 탈 수 있는 남녀(藍輿 가마)를 2개 만들고 일꾼 중에서 연장자(승坐)를 태워 남녀부사라 칭하여 양반행세를 하면서 마을로 가는 길놀이를 벌이는데 맨앞에 길라잡이가 인도하고 한 사람이 소리를 메기면서 남녀행차를 한다.(생략)



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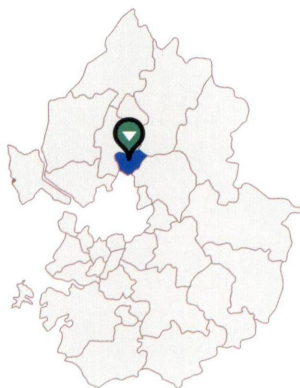
의정부



의정부녹양버들개농요

고 증 | 조수기

지도위원 | 이미숙



유래

버들개 농요는 주로 농사철 모내기과 7, 8월 김매기에 부르던 농요다. 우리나라 민요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농요는 일의 성격, 환경, 지역특성에 따라 불리는데 의정부는 산과 들이 펼쳐있어서 다양한 농요가 전해져 내려오고 있다. 인근 지역인 포천, 연천, 파주와 같이 의정부 버들개마을은 메나리조의 농요가 전해져 내려오고 있다. 버들개 농요는 농사일의 힘든 과정과 협동심을 자아내어 능률을 높여주는 역할을 한다. 녹양동일대에 자리하고 있는 버들개마을에 보존화를 두며 이를 계속 발전해 나가고 있다.

발굴경위

농민들은 힘들고 바쁜 일손으로부터 피로를 잊고 능률을 올리기 위해 노래를 부르며 일을 해왔다. 이러한 노래를 농요라 하는데 들노래 또는 농사짓기 소리라고도 한다. 주제는 농사와 관계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협동심과 능률을 올리는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급격한 도시개발 및 산업화와 환경변화 등으로 조금만 더 방치하면 소중한 무형유산이며 지역의 개성있는 모든 농요들이 사라질 위기에 처해있다. 그러한 의미에서 경기도북부를 대표하는 의정부에서 농요를 되살려 우리의 전통문화와 무형유산을 보존, 발전시키고자 하는데 목적을 두며 이 프로그램을 실행함으로써 농요뿐만 아니라 그 소리에 맞춰 농사를 짓는 모습을 춤으로 엮어 각각 역할의 통일성과 협동심, 단결을 보여줘야 시연이 가능한 프로그램으로 연희자들의 협동심을 심화시킬 수 있다.

특징

대부분 풍물놀이가 기본바탕이 되는 민속놀이와 달리 버들개농요의 악기는 기본적인 구성을 받쳐주며 흥을 돋우는 데에 쓰이며 모든 놀이가 노랫소리로 이루어져있다. 예전에는 김매는 소리에 중심을 두었다면 지금에 와서는 모심는 소리, 모내는 소리, 김매는 소리를 이어 타작과 풍년을 기원하며 추수하는 과정까지 모든 과정을 재미있고 구성지게 하는 것이 특징이다. 힘과 흥을 돋우는 농부가 선 소리를 하면 이를 받아 마을사람들이 하나의 목소리와 몸 동작으로 농사일의 과정을 재현한다.

놀이시기

버들개 농요는 주로 농사철 모내기과 7, 8월 김매기에 부르던 농요다.

구성

기수 10명, 태평소 1명, 쇠 2명, 징 1명, 장구 6명, 북 6명, 선소리꾼 2명, 대감, 마님-각 1명씩, 잡색 1명, 농부 16명, 동네사람들 6명

진행과정

입장(모를 심기 위해 동네사람들과 농부가 입장하여 대열한다.)-모찌는 소리(모를 심기위해 모찌는 소리를 하며 모판에서 모를 찢다.)-모심기(뽕 모를 모심기소리와 함께 모를 심는다.)-초벌논매기(초벌논매기소리와 함께 맨손으로 논을 맨다.)-두벌논매기(두벌논매기소리와 함께 호미로 논을 맨다.)-모타작(수확한 모를 거두어 타작과함께 풍년가를 부른다.)-대동놀이 및 퇴장(풍년의 기쁨을 대동놀이로 마무리하며 퇴장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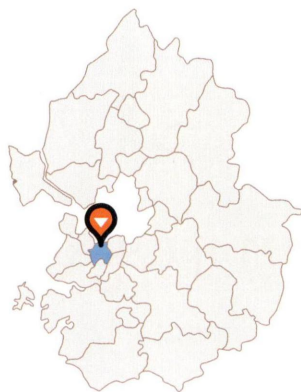


09

안 양



안양시



안양만안답교놀이

고 증 | 김지석

지도위원 | 인대식

유 래

안양지역의 정월풍속으로 정월 초닷새부터 열엿새까지 주로 짚지패가 주동이 되어 답교놀이를 부자집 마당에서 날미농악을 하며 부자집에서 술과 떡국대접을 받아 노는 마을 축제에서 유래되었다.

구 성

기수: 6명, 태평소: 1명, 선소리: 2명, 짹이(꽁과리2, 징2, 장구4, 북4): 12명, 무동(소승): 4명, 밀무동(장정)/버나: 4명, 잡색(왜장녀2, 양반1, 스님1, 피조리5: 9명, 마을사람: 28, 제례자: 9명 (스텝포함)

발굴경위

세시풍습 중에서 정월대보름에 다리를 왔다갔다 거닐면서 노는 놀이가 있는데 이를 다리밟기 또는 답교놀이라고 한다. 만안교는 조선 정조(正祖)의 현릉원(顯陵園) 참배 행차 시 통행 편의를 위해 가설한 다리로 정조 19년(1795)에 건립하였다. 역사적으로 의미있는 만안교에서 정월대보름에 행하여졌던 만안답교놀이가 있었다. 일제강점기에 일제의 식민착취가 시작되면서 경제적 여유가 점차 없어지고 인심도 각박해져 술과 음식을 대접하는 풍습이 점차 사라지게 되었다. 1987년 지역의 원로들이 실태조사를 하여 1988년부터 5회(1988년~1992년)에 걸쳐 안양문화원에서 만안답교놀이를 재현했으나, 이후 점차 잊혀지는 지역의 민속놀이가 되었다. 하지만 안양문화원의 노력으로 2013년부터 다시 구전과 남아있는 고증자료를 토대로 재현되고 있다. 만안답교놀이는 역사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진 만안교에서 마을 축제의 장으로 행하여지던 만안답교놀이를 복원하고 지역문화전승을 실현하기 위함이다.

진행과정

길놀이(당굿) - 마당놀이(다리밟기) - 다리고사 - 답교놀이(풍물판, 선소리판, 무동춤판, 줄다리기) - 달맞이(짚불놀이, 대동놀이) - 퇴장



특 징

답교놀이는 주로 다리 위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만안답교놀이는 부자집의 집마당에서도 연희되어졌으며 술과 떡국대접을 받는 마을 축제형식으로 여러 가지 볼거리가 있는 연희 마당이 있는 것이 특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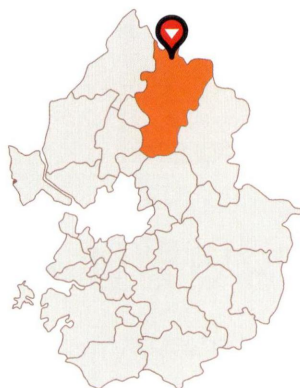
놀이시기

정월 초닷새부터 열엿새까지



10
포 천

무궁무진 포천



포천가노농악

고 증 | 조상규

지도위원 | 이병욱

유 래

옛날 다섯 선비가 금수정에서 시를 읊으면서 영평천의 맑은 물이 금수정을 굽이치며 흐르는 물줄기와 빼어난 주위의 경관을 보고 다섯 선비가 참으로 아름다운 마을이었다 하여 오인(五人)의 합자인 오(伍) 자에 아름답다는 가(佳)자를 붙여 오가리라 하였다. 포천지역의 금수정, 창옥병, 아름다운 강, 산, 마음씨 좋은 사람 등 다섯 가지 아름다움이 있다하여 오가리라 부르게 되었다는 유래가 있다. 포천 지역은 민요 노동요 일의 성격 일터의 환경 지역의 특성에 따라 여러가지 형태로 형성되어 지는데 포천은 산과 들이 고르게 펼쳐져 있어 여러 종류의 노동요와 농악의 형태가 전해 내려오고 있다. 특히 포천 오가리 가노농악은 3백년 전인 영평현(가노 부락 옛 명칭)에서 전해내려 오고 있으며, 당시 나라에서 도장을 가노 부락에 하사하여 연천, 철원, 가평등 지역의 농악을 관장하게 하였다. 농악을 하려면 이도장을 받아 가야농악을 행할 수 있었다고 한다. 당시 창수면 오가리 지역에 농악이 성행하였으나, 6.25 전쟁 당시 접전 지역인 포천지역이 문화재 유실이 많았다고 한다.

발굴경위

6.25 전쟁당시 접전지역인 포천지역인 문화재 유실이 많아 가노농악 또한 유실되어 그 당시 살아 계신 분들을 통하여 다시 복원

특 징

포천가노농악은 지역적 특성과 같이 소고쟁이들의 놀이가 구성지고, 특히 내돌립 벽구에서 외돌립 벽구로 이어져 휘몰아치는 부분이 일품이며 여타 경기농악의 오방진과 다르게 약기소고의 진과 새미들로만 구성된 진이 동시에 이루어져 꾸밈한 연희를 볼 수 있다.

놀이시기

음력 6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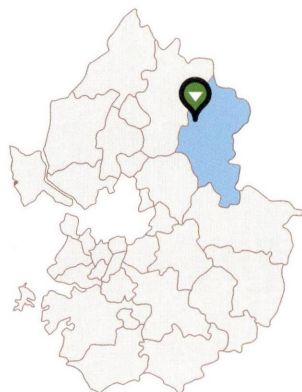
구 성

입장으로 시작하여 엮뛰기, 벽구놀이, 새미놀이, 당산벌립, 오방진, 가새벌립, 사방치기, 원 좌우치기 4줄백이 짹짹이 등으로 이루어졌다.

진행과정

입장→엮뛰기→벽구놀이→새미놀이→당산벌립→오방진→가새벌립→사방치기→원 좌우치기→4줄백이→짹짹이→인사굿





풍년기원 기우제와 대동놀이

고 증 | 김만중

지도위원 | 류경한

유래

가평군은 한반도의 거의 중앙에 위치하고 있다. 또한 경기도에서 제일 높은 산(화악산, 명지산)이 2곳이나 있으며, 그 외 50여 개의 산들로 둘러싸여 있다. 이와 같은 이유로 가평군 모든 지역에 내리는 비와 눈에 의해 만들어진 하천은 한강의 지천이 된다. 좀 더 자세히 설명한다면 가평군의 모든 하천은 북한강으로 흘러 들어가 서울을 중심으로 하는 수도권의 젖줄이라 할 수 있기에 가평지역 주민들은 천신께 드리는 기우제를 국가의 안위와 직결됨을 알고 있기에 기우제 제향을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다.

발굴경위

가평의 생업은 대부분 잣농사, 밭농사가 주류를 이루는데 이 과정에서 채득, 전래되고 있는 농악과 춤, 민속놀이, 제향제례를 조사, 발굴한 바, 풍년농사를 기원하는 가평잣과 기우제, 고천문, 제수방법 등 제례를 위해 농악놀이도 병행 하는 것으로 발굴되었다.

특징

가평 기우제는 잣나무가 무성한 용추폭포에서 용이 여의주를 물고 승천했다 하여 기우제를 올리고 있으며, 이를 통해 농민을 위로하고 농사의욕을 복돋워 주려고 농악과 군무가 조화를 이루는 것이 특징이다.

놀이시기

파종부터 수확시까지 농사철에 가뭄과 홍수는 농민의 생업을 위협하기 때문에 기우제(6월 경)와 기청제(祈晴祭 - 10월 경)를 통해 농민들의 근심을 덜어 드리고자 수시로 천신(天神)에게 제향제례를 마을의 큰 행사로 자리 잡고 연례 놀이행사로 치루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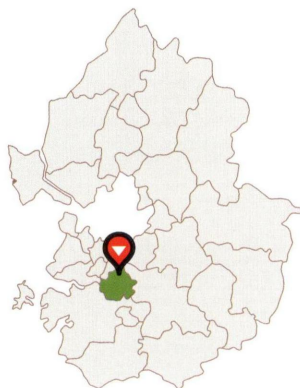
구성

초헌관, 아헌관, 종헌관, 집사, 풍물패, 사물패, 소리패, 춤꾼, 지역민으로 구성되어 있다.

진행과정

- 1막 - 천지산신(天地山神)을 모시는 영신례와 세기기우(洗箕祈雨)
- 2막 - 기우제와 기청제로 풍년을 기원하는 고천문(告天文) 낭독
- 3막 - 농악, 소리꾼, 춤꾼들의 “풍년이로구나!” 한마당 놀이
- 4막 - 신을 배웅하는 송신례(送神禮)와 소지례(燒紙禮) 후 퇴장



12
수원

수원대보름굿

고 종 | 임광식

지도위원 | 김현수

유래

수원두레는 정조대왕이 수원에 화성을 축성하면서부터 유래된 역사 깊고 의미 있는 전통 농악이다. 수원에 수원화성이 축성될 때 둔이 설치되면서 농민들이 농한기에 군사 훈련을 받던 때로부터 군악과 농악, 굿판이 함께 어우러지고 축성과정, 근무형태, 왕의 거동 등을 내포한 풍물로 발전하였고, 수원두레는 판굿뿐만 아니라 고사굿의 형태로 발전하였다. 수원 두레는 타 지역 풍물에 비해 토속적이고 질서와 법도 있는 화려한 군악 및 도시풍물의 특징을 보인다.

발굴경위

수원두레농악의 전승 주체들은 화성 축성 장졸과 관예, 수원 마을 굿, 경도농악, 재인청농악, 수원대유평농악, 수원두레농악 보존회로 이어지고 있다. 1900년대 이후 활동하였던 운학 이동만을 비롯하여 상석 임재근(버드내 농악)과 김경국(수원 지동)과 전승의 중심에 있는 임광식의 활약이 커 보인다. 임광식은 수원 버드내(세류동)의 상석인 임재근의 아들로 태어나서 11세에 수원 버드내 농악에 입문하였고, 수원 마을곳에서 농악을 시작하여 현재 수원대유평농악과 수원두레농악보존회의 농악 지도 및 전통 복원에 큰 힘을 쏟고 있으며, 현재 그의 제자인 김현수가 수원두레농악 보존회를 이어가고 있다. 2002년 수원두레 농악 시연공연, 2008년 전국농업인풍물경연대회 입상, 2013년 “꽃보다 나비처럼” 수원두레농악 시연 공연, 2015년 경기도민속예술제 대상 수상, 2016년 한국민속예술축제 동상 등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으며 수원두레농악의 원형 보존과 전승활동에 전념하고 있다.

특징

수원화성 축성시의 향상과 군인들의 근무형태 그리고 수원 주민들이 행하여지는 고사소리를 기초로 하고 있으며, 원천 우물굿, 성밧기, 입성놀이 양반들의 향락문화를 해학적으로 표현하고 마을의 안녕과 국가의 안녕을 빌기도 하였고, 경기제의 민요 창법으로 특이하게 꾸는 창법과 옛 어른들이 농사에 중요성과 가족의 안녕을 소망하는 작은 서민적인 사설이 담겨있다. 또한 서열이 남매의 억울한 사연을 담은 단무동 놀이 등 주변 지역과는 특이한 점이 많이 있다. 평택이나 안성농악과도 대조적인 고유의 소리굿, 고사굿, 잔굿, 춤굿, 마당굿 등이 있는 지역 전통 민속 예술이며 마당 풍물놀이로서 보존 육성하며 발전시킬 가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놀이시기

수원두레는 일 년 동안 여러 가지의 방법으로 우리의 민중속에 일삼적은 놀이었다. 정월부터 대보름까지는 마을에 안녕과 집안의 안녕을 기원하는 지신밧기 축원 고사굿을 연회하였으며 농사가 시작하는 때에는 농사를 잘되게 기원하는 축원, 농사가 진행되면서는 농요와 함께 힘든 농사일에 힘이 되어 주었으며, 추수가 끝나면 하늘에 감사하는 농악이 이루어 졌다. 그 중 수원두레는 정월초에 행하여 졌던 지신밧기와 마을의 공공건물을 지을때 수익을 남기위해 했던 결립굿, 추수가 끝나고 하늘과 땅에 감사하는 판굿이 유명하다.

구성

농악대의 편성은 영기(令旗), 농기(農鼓), 호적(호평소), 팽과리(상공운·부쇠·종쇠), 징, 장구(수장구·부장구·종장구), 북, 법고(상법고·부법고·꼬리법고 등 8~12명), 무동(상무동 외 8명), 새미, 탈광대로 되어 있다. 전라 농악에 비하여 잡색(雜色)이 적고 무동이 많은 편이다. 이들 농악대의 복색(服色)은 팽과리잡이는 등거리 잡방이에 남색 더거리를 걸치고 나비상모가 달린 방거지를 쓰며, 징잡이, 장구잡이, 북잡이들은 쾌자에 나비상이 달린 방거지를 쓴다. 법고잡이는 쾌자를 걸치고 채상모가 달린 방거지를 쓴다. 무동은 춤을 추는 어린이이로 붉은 치마에 노랑 저고리를 입고 머리에는 땡기를 단다.

진행과정

낭고사→당산굿→마을우물굿→문굿→우물굿→터주굿→조왕굿→마당밧기→성주굿→판굿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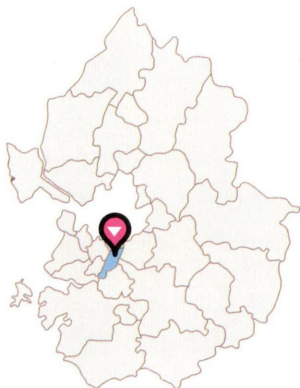


13
의 왕

의왕왕곡동제

고 증 | 박철하, 김상식

지도위원 | 안순남



유래

지금부터 약 300년 전 마을에서 발생하는 재앙 및 재난을 남녀노소 마을주민 모두가 한자리에 모여 공동으로 대처하고 마을의 안녕과 평화를 기원하는 데에서 유래되었다고 한다. 왕곡리(고천)는 백운산(해발 564m)의 기맥이 마을을 감싸고 있으며, 산신당과 장승이 있어 이곳에서 해마다 마을 사람들이 모여 천지자연의 은혜를 감사하며 일 년간 무병장수와 풍년을 기원하는 동제를 지내고 있다.

발굴경위

2002~2007년 『의왕시사』편찬과정에서 의왕의 민속신앙을 조사하던 중 의왕지역은 청계동의 청계산, 학의동의 바라산, 내손동의 모락산, 고천·왕곡동은 백운산이 둘러싸고 있으며, 삼동과 이동 그리고 월암동 일대는 덕성산이 위치하고 있다. 마을 동제의 명칭이나 내용에도 이러한 지형적 특징이 반영되어 산 또는 산신을 모시는 공동체 의례가 주류를 이룬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음을 확인하고 의왕지역 동제를 조사·연구하게 되었다. 또한 1993년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에서 공로상을 수상한 왕곡동제를 재발굴하여 의왕시 민속예술로서 보존·전승하여 맥을 이어가고자 한다.

특징

왕곡리 동제의 제일은 백운산 신령이 하강하는 날로서 손이 없어야 하며 그 해 당주의 생기복덕과도 맞아야 한다. 택일이 되고 당주가 선정되면 축관, 유사, 사령이 선정되고 마을사람도 각기 언행을 주의해야 한다. 당주집 문 밖에는 금줄을 띄우고 향토흙을 군데군데 놓아 잡신을 막으며 특히 당주는 가축의 도살장면을 목격해서는 안된다. 제일이 되면 당주는 제물을 준비하고 사령들은 산에 올라가 나무를 베어 장승 1쌍 2기, 솟대 1쌍 2기를 깎는다. 장승에는 천하대장군과 지하여장군을 쓰며 소나무에 얼굴 부분만 간략히 조각하고 銘文, 머리, 사모, 이목구비는 筆墨으로 그려 넣고 천하대장군에는 비녀가 꽂혀 있다. 그리고 백지가 장승몸에 묶여 있었다. 솟대는 가느다란 소나무 상부가지를 살리고 새를 깎아 올려놓았다. 장승과 솟대가 완성되고 나면 사람들이 장승을 메고 동네 마을 사람들과 풍악을 치며 마

을 입구 양편에 한 쌍씩을 세운다. 해가 지면 당주와 축관은 백운산 신령에게 산신제를 지내는데 예전에는 白雲寺 스님이 비손·축언을 해주기도 하였다고 한다. 제를 지내고 마을에 내려와 장승제를 지내고 마을사람 모두가 참여하여 풍물을 치며 대동놀이를 벌인다.

놀이시기

매년 음력 10월 초하루 및 초순

구성

무대에 당집이 마련되어 있다. 마을사람들이 모여 당주와 제일을 결정하는 동회를 연다. 제물로 올릴 소를 분육하며 아낙들이 제례음식을 준비하고 한편에서는 장승을 만든다. 당주를 비롯한 제관들이 당제를 지내고 마을로 내려와 장승제를 지낸다. 제가 끝나면 마을주민들과 음복을 하며 풍물단의 흥겨운 농악놀이와 함께 대동놀이를 벌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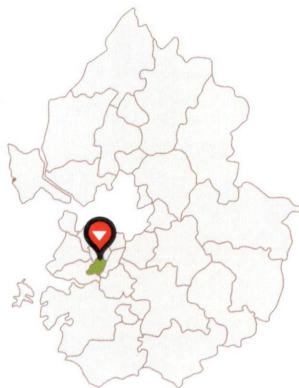
진행과정

①제일을 택일하고, 당주를 선출한다. ②제물용 소를 잡고 분육하고 ③조라술을 담고 당집에 술향아리와 낚시단지를 둔다. ④사령들은 장승을 깎고 ⑤아낙들이 모여 제물을 준비한다. ⑥당주와 제관은 산신제를 지낸다.(스님이 비손, 축언을 한다) ⑦당주는 우물에서 물을 길어 노구메를 짓고 절을 한다. ⑧장승 고사를 지낸다. ⑨마을사람들과 함께 음복을 하며 풍물패와 흥겨운 농악놀이를 하며 퇴장한다. ⑩나레이션이 함께 이루어진다.



14

군 포

Gunpo
군포시

군포군웅제민속마당

고 증 | 엄창웅

지도위원 | 안영권

유 래

숙종대왕이 군웅제를 지낸 것에서부터 이어져 오고 있다. 군웅제는 마을의 평온과 각 가정의 건강과 마을의 발전을 기원하며 제물을 바친 것에서 유래를 찾아볼 수 있다.

발굴경위

수리산 도립공원에 있는 군포시 속달동 덕고개(당숲) 마을에서 배달 나라를 연 14대 환웅천왕(일명 도깨비대왕)으로 붉은 악마의 상징이기도 한 도깨비 대왕을 모시는 제례를 마을 제례 행사로 지내왔으며 현존하는 군웅제 중 명맥을 이어온 몇 안 되는 역사적인 보존가치를 지닌 제례이다.

특 징

군웅제 군웅터 터줏가리는 매년 그해의 벼짚으로 엮는데 마을의 안녕과 평화를 기원하며 동시에 풍년을 기원하는 역할을 해왔고 환웅천왕은 2002월드컵대회 중 붉은 악마를 상징하며 대한민국 응원단으로 활약을 한 바 있다.

놀이시기

마을에서는 매년 음력 10월 1일에 군포시 속달동 당숲에서 마을주민과 제사에 참여하고 시민이 어울려 평안을 기원하는 군웅제 행사가 진행된다.

구 성

50여 명의 마을주민 역할 민속 무용수와 20여 명이 농악놀이에 맞춰 마을의 안녕과 풍요를 기원하며, 흥겨운 장단에 맞춰 무용수와 참가자들이 합심하여 축원 발원하는 길쌈놀이와 대동 놀이가 선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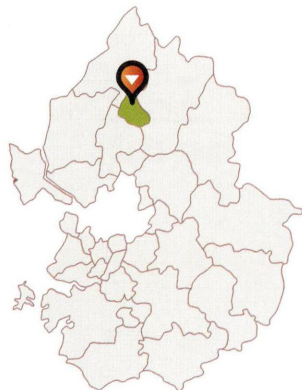
진행과정

풍년 아리랑 노래를 부르며 무용 리더와 사물놀이 등 악기와 무용수의 부채춤이 어우러지며 나발 연주와 축원 제를 올리며 주민 간 함께 아우르는 민속마당을 재연하는 역할을 한다.



15

동두천



탐동상여회다지소리

고 증 | 정경철

지도위원 | 이석기

유래

탐동은 동으로 왕방산, 남으로 천보산, 북으로 소요산으로 둘러싸인 두메산골로서 이조 마지막 왕후였던 윤비의 생부인 윤판서를 운구하였던 상여를 탐동 남모루에 놓고 가는 것을 계기로 유래되어 왔음

발굴경위

1980년대 초 고장의 토박이인 김수근(작고), 윤창노(86세), 김상우(83세) 세분의 선각자에 의해 발굴, 현재에 이르고 있음

특징

1. 달구 3, 5, 7개로 하는 1개에는
2. 사위를 골탕먹임으로서 인간으로서의 도로를 자성하도록 함의 나무다리
3. 외나무다리
4. 마지막달구에서 흥을 겸한 파배기 울동은 탐동에서만 지켜온 회다지를 위한 춤이라 할 수 있음

놀이시기

매년 8월 대농놀이시

구성

상제 3, 사위 2, 안상제 3, 팔 2, 선소리꾼 1, 상여 및 화다지꾼 20, 영정 1, 건포 1, 만장 12, 문화원기 1, 보존회기 1, 대회출전기 1 등 총 47명

진행과정

제1과정
집마당에 마지막으로 잔을 올린다. 제를 다 올린 후 요령을 흔들어 상여를 메고, 발을 맞추고 상제(남여)의 마지막 집에서의 절을 3배 받고 출발한다. 이때의 상여소리는 슬픔을 공감하고 가진분의 극락왕생을 기원한다. 안상제들은 가진분의 집을 앞마당에 태우고그런 기도 상여를 따라 간다고 한다. 세상을 달리하신 어른에 대한 슬픈 마음을 후렴을 통해 곡하는 것처럼 소리를 하는 특징이 있다.

제2과정 : 사위 상여 밑에 가두기

상여가 한곳에 머물러 제자리걸음을 한다. 이때 사위가 절을 하면

상여를 이동시켜 상여 밑으로 넣고, 빠져나가지 못하게 발로 차는 등 시위를 가둔다. 다른 동네에 살면서 거들먹거리는 양반들을 이때나 골려주자는 의도와 사위가 망자에게 생전에 효도 하지 못한 일을 반성하고, 잘못을 뉘우치며 극락으로 갈 수 있는 비람을 기원하기도 한다.

제3과정 : 외나무다리 건너기

외지로 멀리 나가있는 친인척이 마지막 상편을 하기 위해 3일장이나 5일장을 치루는 동안 홍수가 나서 기존다리 훼손되어 큰 나무를 쓰러뜨려 놓고 임시 외나무다리로 상여를 모시었다 한다.

※ 다른 곳과는 달리 통나무 2개를 좁게 걸쳐 행동심과 마음이 일치함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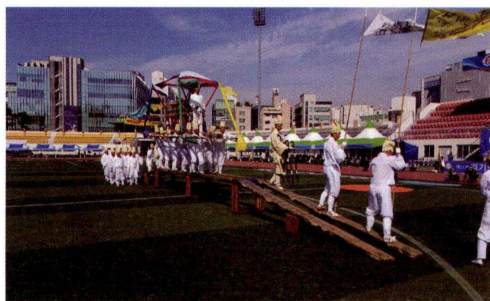
제4과정 : 화다지기

화다지는 3개 내지 5개를 다지는데 1개에서는 그 타에 대한 축원 즉 명당이라는 뜻의 소리를 하고 2개에서 인간사의 허무함과 후세대에 후회 없는 삶을 살기 바라는 덕마의 뜻에 소리를, 3개에서는 상주를 비롯한 모든 참석자가 슬픔에서 벗어나 흥으로 내일을 준비할 수 있는 마음을 갖도록 제일 흥이 나는 방아타령 새터령 소리를 한다.

※ 파배기 달구리는 동작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하나의 파배기 춤이라 할 수 있다.

※ 1개에서는 긴화다지 소리를 하는 것이며 지금까지 전해진 적이 없는 긴달구 소리를 발굴하여 그 간에 긴달구소리가 일부 잘못 전승되어왔음을 보여주고 있다.

※ 긴달구소리 :故 김수근 씨의 소리를 녹음한 것을 발굴하여 긴달구소리의 원형을 최초로 이번 기회에 재현 발표한다.



16

김 포



김 포 시



조강치군패놀이

고 증 | 조문연

지도위원 | 우선영

유 래

조강에는 조강포구, 마근포구, 강녕포구가 있었는데 고려와 조선시대 충청도와 전라도에서 올라오는 모든 세곡선과 물화를 실은 배들이 개성과 한양으로 가기 위해 거쳐 가는 곳으로 사람들의 왕래가 끊이지 않았다. 세 곳의 포구에서는 농악의 일종인 “치군패” 놀이가 성행했었다.

발굴경위

6.25전쟁 전까지 조강포구에서 살았던 김성복(1931년생) 씨를 통해 치군패놀이가 50년 동안 실낱 같이 남아 있었는데 2008년 치군패를 알고 있는 김성복 씨를 통해 가락을 채보하고 김성복 씨와 함께 조강포구에 살면서 용왕제와 치군패를 보았던 신호철(1933년생) 노인회장을 만나면서 용왕제와 치군패를 구술을 토대로 발굴했다.

특 징

치군패의 가락의 특징은 처음 시작할 때 일채를 “갱 갱 갱 갱 갱개개개개개개개개” 시작으로 이채가락인 “개개 개개 개개 개개 개개”으로 명확하게 구분하면서 시작된다. 사채는 가락이 인근 마을 보다 화려하며 칠채와 육채가락은 같다. 칠채가락을 시작하기 전에 쟁가리 도입가락은 웃다리 가락의 북소리인 점고가락과 같다. 칠채 도입가락은 “갱갱 갱갱 갱 갱”북으로 하면 “둥둥 둥둥 둥 ~ 둥”이 된다.

놀이시기

치군패는 정월초이레에 용왕제를 시작으로 정월 대보름까지 집집마다 돌아가면서 농악놀이를 했다. 해방이후에는 3.1운동 행사 후에 현 월곶초등학교(일제시대 주재소) 자리에서 밤 11시까지 농악놀이를 했다고 한다.

구 성

포구 깃발, 용 깃발, 용왕제 제주, 태평소, 쟁가리, 장구, 북, 태징, 제금, 소고, 목마놀이와 포구주막주모

진행과정

당산나무(당집) 용왕제→진을 펼치며 포구마당 도착→삼원진으로 갖추며 포구에 나온 사람들에게 인사→장구, 북, 쇠들이 판을 만들어주면서 제금이 힘이 넘치는 동작으로 액운을 물리치는 동작→색동저고리를 입은 소고가 질서 있는 놀이→아버지가 자녀를 목마를 하고 치군패 가락에 맞추어 색동소매를 펼치는 놀이마당→전체 치군패들이 다시 원진풀이 등을 펼치며 마무리.



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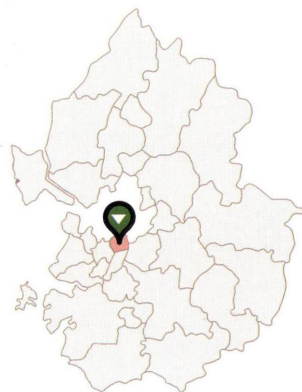
과 천



삼남길새술막놀이

고 증 | 오은명

지도위원 | 오은명



유래

과천 삼남길은 조선시대 10대 대로 중의 하나로 옛부터 과천 삼남길은 한양과 삼남을 잇던 관문으로 보부상의 왕래 길이자, 과거를 보러 가던 선비들의 관문이기도 했다. 새술막은 과천 향교 말 아래쪽(남쪽) 큰길을 따라 길게 형성되어 있었던 마을로 조선시대 가장 중요한 도로 중 하나인 '삼남로(三南路)' 변에 입지하였다. 새술막은 새로 이루어진 술막(술집)이라는 뜻으로, 조선시대부터 술집이 자리해 있었던 마을 이름이다. 이곳 술집들은 과거를 치르러 가는 길손이나 보부상을 상대로 영업을 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과천의 새술막은 삼남길에 길목에 자리 잡아 지역경제의 한몫을 하였다.

발굴경위

‘한양에 가려면 과천에서부터 간다’라는 유래와 같이 과천 관악산은 산이 험준해서 산적질이 횡행했는데 이들의 행위가 여우 짓 같다 하여 이 고개(남태령)를 ‘여우고개’라고 불렀다. 산적의 약탈을 막기 위해 과천 쪽 유인 막에 행인 50인이 모이면 관군이 호송하여 고개를 넘었다고 해서 ‘쉴새미고개’라고 불리기도 했다. 외점(外店) 새술막은 내점을 오기 전에 들러 술과 음식을 찾는 이들이 많음으로 이들을 상대로 하여 도로변에 술집이 많아지면 서부터 이 곳 마을을 새술막지라 부르게 되었다고 한다. 또한 조선시대 명성왕후의 아버지인 과천현감 민치복(閔致祿)은 과객이 한양으로 갈 때 마지막 밤을 과천에서 묵게 되는데 이때 과천에서 노자를 다 쓰고 가게 하여 과천의 경제를 살리는 역할을 톡톡히 했다. 이러한 과천지역의 역사를 소개하고 사기막골의 웅기를 소개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애를 썼던 과천시지와 향토사연구회의 협력으로 과천민들의 삶을 나타내고자 하였다.

특징

삼남길 길목인 과천에서 남태령 고개를 지나가는 양반, 보부상 등 민초들의 삶과 과천의 상권을 위하여 애를 썼던 각 마을의 역할을 놀이로 풀어내었다.

놀이시기

조선시대 후기

구성

기수, 마을풍물패, 마을현감, 마을사람, 무동, 촌장, 보부상, 나그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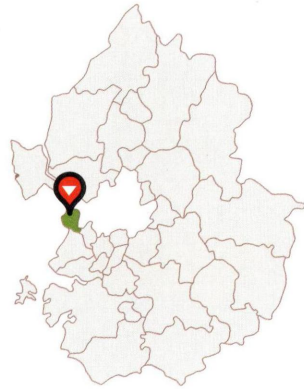
진행과정

1. 인사굿 2. 삼남길 당고사 3. 새술막터밧기 4. 새술막마을놀이-향교말, 사기막골, 선바위 5. 남태령장사밧기 6. 뒷풀이



18

부 천



부천석천농기고두마리

고 증 | 유영래

지도위원 | 손영철

유 래

부천석천농기고두마리는 1800년대 초부터 1910년대 까지 옛날 부평군 석천면, 현재의 부천시 송내동과 상동 및 중동 일대에서 이어온 민속놀이이다. 논농사의 세벌매 기를 마치고 7월 백중날 마을 대항으로 치른 풍물이 어우러진 놀이이다.

발굴경위

부천 토박이 (박승선(고), 유영래 / 부천시 대장동)에 따르면, 초창기의 농기고두마리는 인근 마을 중에서 농기를 먼저 만들어 사용한 마을이 상좌에 오르면서 비롯되었다고 한다. 자연스럽게 마을 대항의 농기싸움으로 변화 발전하면서 이를 '상좌다툼'이라 부르기도 한다.

특 징

독특한 명칭이 돋보인다. 농기고두마리 즉 농기 폭대기에 꽂혀 있는 쟁장목을 부천에서는 독특하게 '고두마리'라 불렀다. 기싸움은 논매기 중 자연스럽게 이루어졌고, 승패가 판가름 나면 이긴 마을은 형님, 진 마을은 아우님이 되어 일년동안 사이좋게 지냈다.

놀이시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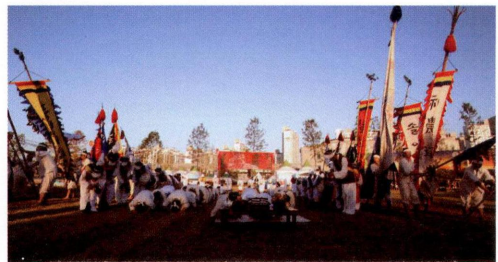
7월 백중날

구 성

술안말과 서촌말의 농기싸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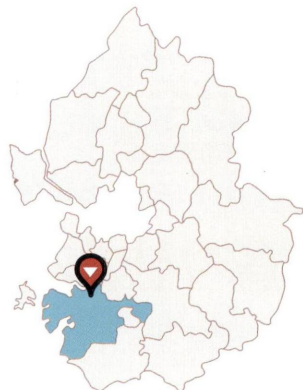
진행과정

놀이마당 들어가기와 인사 - 세벌논매기 - 마을잔치 - 풍년제 - 농기싸움 - 기세배 - 화합의 한마당



19

화 성

The Way to Better Living
같이 열리는 화성시

화성역말두레놀이

고 증 | 김원중

지도위원 | 강호철

유래

화성시 봉담읍 동화리 '역말'은 조선조 때 양재 도찰 방에 딸린 동화역이 있던 역촌이다. 역말농악패의 '기'에 1909년이 적혀 있는 것으로 보아 그전부터 행해져 왔음을 알 수 있다. 역말농악은 오늘날 군단위 농악으로 최대의 놀이가 걸립이었다. 동화리 뿐 아니라 인근 화성과 수원지역까지 걸립을 다녔다. 주로 정월 보름께 나갔는데 집집마다 우물고사를 해주었다. 또한 역말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줄다리기는 인근 마을의 농악패들이 대거 참여하여 이루어지는 대동놀이이기도 했다.

발굴경위

일제강점기에도 줄다리기 등의 두레놀이가 행해졌지만, 1970년대 초반 새마을운동이 일어나면서 차츰 사라졌다. 쓰던 줄은 모두 잘라서 겨울에 군불을 때는데 사용했다고 한다. 그 당시에 줄다리기를 했던 마을 어르신들이 소수 남아있고 그들 대부분이 지금도 역말농악에 참여하고 있다. 그러나 나이가 고령이고 재현이 불가능한 관계로, 민속 예술제를 통해 역말의 농악 뿐 아니라 '두레놀이'의 형태를 복원하여 잊혀져갈 지역의 문화를 되살리는데 목적이 있다.

특징

농악 복색 - 옷다리 농악에서는 특수하게 징, 북, 장구가 고깔을 쓰는데, 이것은 역촌마을이었던 옛 영향을 많이 받았다. 가락 - 길가락, 출가락, 잔치패가락 등 가락의 이름이 다른 지역과 다르고, 가락의 형태도 옛 형태를 보존하고 있다. 용줄다리기 - 암줄에는 혼전의 남자가 여장을 하고 줄에 오르고, 수줄에는 남자가 올라 줄다리기를 한다. 암줄에는 혼전남자와 여자들이 한 패가 되어 줄을 당긴다.

놀이시기

정월 보름날을 포함한 그 즈음

구성

기-5명, 고사소리-1명, 팽과리-2명, 징-2명, 북-3명, 장구-3명, 소고-8명, 무동-5명, 태평소-1명, 암줄-20명, 수줄-20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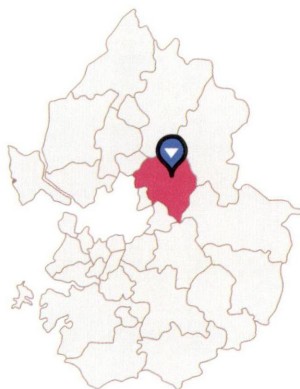
진행과정

지신밟기 - 우물굿 - 용줄고사 - 용줄다리기 - 농악



20

남양주



늘을지신밧기

고 증 | 정인수

지도위원 | 김주범

유 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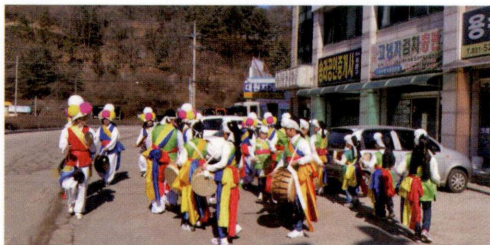
늘은 경기도 남양주시 중앙부에 위치한 호평동의 옛 지명인 판곡(板谷)의 우리말로 아릅드리 밤나무가 많아 널판이 많이 생산되는 것에서 유래한 지명이다.

늘을지신밧기는 뜬쇠들의 영향을 받은 두레패가 행하던 것으로 두레패가 집에 당도하면 주인이 반가이 맞이하고, 소반에 정화수와 쌀을 담은 그릇에 초를 꽂아 소박한 음식을 마련해 불을 밝히고 마당놀이와 지신풀이 가사를 창하며 각 가정의 다복을 축원하는 데에서 기원된 놀이다.



발굴경위

선조들의 일과 땀이 뻘 옛 지명들을 보전하고 전승시키는 일은 오늘을 사는 우리 모두의 의무이며 향토를 아끼는 첫 시작으로, 조사된 유래의 자료가 후일 지역의 젊은이들을 통하여 전승되고 내가 사는 고장에 대한 애郷심을 고취, 정주의식이 심어지는 계기로 전통문화를 보존하고 전승하는 토대를 마련함이다.



특 징

삼판에서 작업한 인부들이 노동요의 형식과 결합되어 편안하면서 푸근한 판의 형태를 나타낸다. 민요가락을 주로 하여 흥을 돋구며, 주민들과 같이 어우러지는 특색이 강하다. 일반 윷다리농악의 형식과 달리 잡색놀이가 두드러진다.



놀이시기

정월대보름

구 성

기수-4명, 태평소-2명, 풍파리-4명, 징-3명, 장구-9명, 북-9명, 소고-5명, 채상-9명, 잡색-5명



진행과정

1. 열림굿 2. 지신풀이 3. 마당밧이

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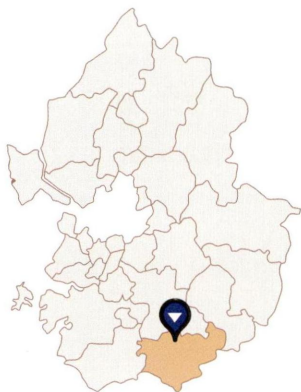
안 성



안성장승성혼식

고 증 | 임영일

지도위원 | 안향신



유래

적재(積載)울(현-기좌리)은 큰 동네로 제지(한지)공장, 인쇄소(75개소), 금광이 있었고 관아의 창고도 많이 재화의 유동이 많았던 부락이었다. 이를 지키기 위하여 인근 부락 5개마을(보개면의 불현리·기좌리·곡천리·신장리·이전리)이 모여 장승을 세우고 장승제를 열어왔다. 몽고의 침입과 임진왜란, 병자호란을 겪으면서 전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 배우자를 찾기도 어려워 결혼이 어렵고 후손이 귀하였다. 마을 사람들은 혼인의 성스러움을 인식하게 하고 가가호호의 가화만사성을 기원하였으며, 부부 화합을 다짐하는 의식으로 장승 성혼식을 치루며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고 축하하였다. 그렇기에 장승을 마치 남녀가 성혼식을 치루듯이 위인화하여 행사를 치루는 것이 안성지역만의 독특한 특색을 갖고 있으며, 고대로부터 송배되어 온 민족의 시조인 단군성조와 치우천왕을 깃발과 장승으로 상징화하여 이를 가리고 제를 올리는 민족고유의 전통신앙이 내재된 행사이다.

발굴경위

안성시 보개면 기좌리(적재울) 입구에 장승을 세워 놓아 장승거리로 불리고 장승제를 지내 왔었으나 일제에 의해서 중단되었었다. 그 뒤 재연되었으나 도로 확장 공사와 새마을 사업으로 봉건잔재로 인정되어 없어졌다. 유식하고 전통악기, 소리, 무속, 의식 등 전통에 박식했던 김도화(1911~1975), 김인태(창출)의 부친, 국가무형문화재 제97호 보유자 고 김숙자의 오빠)가 전통의식, 소리, 악기 등 온갖 재주를 가지고 있던 고 박수원(1927~2018)과 같이 재연하여 오다가 다시 중단되었으나, 고 박수원과 같은 동네에 살던 박수원의 제자 고 임병두가 주관하여 국악협회 안성시지부 회원들과 안성 향당무 회원들의 도움을 받아 다시 복원하였다. 박수원 선생은 일제말경 어린 나이에 일본 탄광에서 강제 노동을 하고 귀국하여 가족과 마을을 위하여 태평소, 피리 등을 배워 연주하며 두레농악 보급, 민요, 민속 의식, 치병의식, 민속놀이 등을 열심히 전수하였다.

특징

안성장승제에는 장승 점안식과 성혼식이 있는데, 성목을 선별하여 깎아 장승터에 세울 때 점안식을 하고 성혼식은 일 년에 한 번 또는 간간히 지냈다. 성혼식은 장승 내외의 혼례를 치루는 것인데

늘 가까이 있지만 다가갈 수 없음을 안타깝게 여겨 청피 홍피로 이어서 사랑을 맺어 주어 가화만사성, 가가호호 부부지정과 자손 번창, 무병장수, 연풍시화를 기원하는 주술적인 놀이 요소가 있는 공동체 의식놀이이다.

놀이시기

장승제는 수시로 지내기도 하나 정월 대보름날은 인근 5개부락이 함께 행사를 치렀고, 삼월 삼짇날, 중앙절에도 지내왔으며, 마을 혼사집의 요청이 있을 때 신혼부부의 이성지함, 백복지원을 기원해주시기도 했다.

구성

1. 장승터밧기(두레와 가무)
2. 정제(淨濟)의식
3. 성혼식
4. 합근결맥놀이(대신부부춤, 장승성혼소리)
5. 오방지신제(오곡낭 봉납-후사청원놀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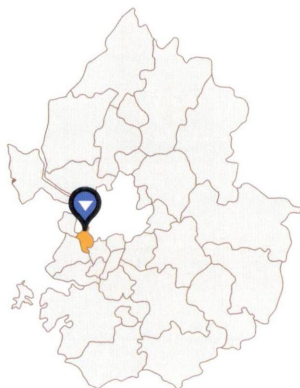
진행과정

1. 두레농악과 가무단 장승터 지신밧기
2. 청피 홍피를 장승에 매었다가 결맥을 한다.
3. 천신께 헌주, 지신께 헌주, 신랑·신부 봉작 후 술은 음복
4. 청홍황 3색피를 함께 잇는다.
5. 오곡낭(오곡주머니)을 공양한다.(후사청원놀이)



22

광 명

빛을 품은
광명시

철산리두레농악

고 증 | 이영희

지도위원 | 임웅수

유 래

450여 년 전부터 광명시 소하리 철산리 학운동 지역에서 전해져 내려오던 두레농악은 농사철에 주로 행하여졌다. 1년 중 정월대보름, 단오, 칠월칠석 백중에 많이 치고 놀았던 두레농악은 추석이나 설에는 집집마다 지신을 밟아 주고 가가호호, 무병장수를 빌어주고 마을의 안녕과 국태민안을 기원하였다. 두레농악은 들에 나갈 때 치던 길놀이(장원진)와 논에서 일의 능률을 올리기 위해 소리와 춤을 추었으며 심신을 달래며 일체감을 조성하였다.



발굴경위

광명시는 경기 서남부에 위치한 시민 35만의 도시로 1981년 시 개청 이후 91년부터 전통민속에 대하여 발굴하기 시작했다. 91년 광명농악, 93년 구름산도당놀이, 98년 아방리줄다리기, 2002년 아방리농요, 2011년 철산리 디딜방아 액막이놀이 등을 발굴하였으며 2016년 철산리 두레농악을 발굴하게 되었다.



특 징

철산리 두레농악의 특징은 두레와 농악이 어우러져 노동의 지친심신을 신명으로 이끌어 일에 능률을 올리며 나눔과 소통으로 복지의 기틀을 마련한 것이다.



놀이시기

연중 정월대보름을 기점으로 10월까지 주로 농사철에 행하여 졌다.

구 성

농부, 농악대, 마을사람들, 소리꾼, 깃발 등으로 일하고 소리하는 놀이형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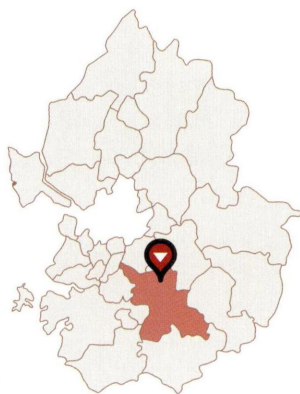
진행과정

들나가기- 모찌고 모심기- 논매기 형식으로 이루어졌다.

백암농요

고 증 | 홍순석, 한동현

지도위원 | 박상옥



유래

백암농요는 모찌는 소리로 시작해서 모심기, 초벌논매기, 두벌논매기, 세벌논매기에 이르기까지 일꾼들이 함께 부르던 노동요이다. “겨루세, 겨루세 이 모판을 겨루세”로 시작하여 모를 찌면서 모내기하고 김매기를 하던 우리의 전통가락으로 오래 전부터 백암면 지역에 전승되어 온 노동요를 재현한 것이다.

발굴경위

서울시 무형문화재 제21호 휘모리 잡가 예능보유자로서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백암면 가창리가 고향인 박상옥 선생이 1965년부터 농사일을 할 때 부르던 소리를 자연스럽게 따라 부르며 익혔다. 2017년 백암농요를 발굴하여 현지 사람들과 백암중학교 강당에서 공개발표회를 가졌고, 2018년 9월 용인시민의날 기념 용인시민속예술제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였다.

특징

전국 어디에서도 들을 수 없는 소리이며 메나리조로 구성되어 구성질 뿐만 아니라 힘이 넘치는 분위기를 연출하는 것이 특징이다.

놀이시기

• 모 찌기, 모내기 : 5월초~5월말 • 김매기 (①애벌 김매기 : 6월초 / ②두벌 김매기 : 6월중 / ③세벌 김매기 : 6월말)

구성

I. 모찌는 소리 (모자리에서 모를 끼울 때 부르는 소리) II. 모내는 소리 III. 애벌 김매는 소리(호일레 소리) IV. 두벌 김매는 소리 V. 세벌 김매는 소리

진행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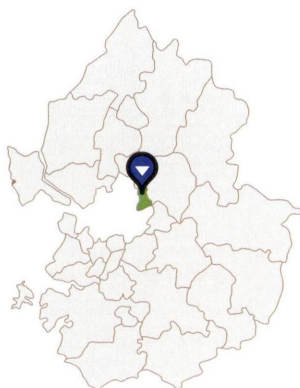
- 1과장〈모찌기〉: 농악을 하며 입장하고 모판을 중심으로 사각 대형으로 자리를 잡는다. 이후 굿거리장단에 맞춰 농요를 부르고 합성을 지르며 끝낸다.
- 2과장〈모내기〉: 뭇줄을 기준으로 선소리꾼의 소리에 맞춰 모를 심는다. 차츰 빠르게 소리를 하며 끝에 합성을 지르며 끝낸다.

- 3과장〈애벌 김매기〉: 모를 다 심고 농악에 맞춰 논두렁을 돌며 호미를 들고 흥겹게 김을 맨다. 다음 세마치장단, 자진모리장단으로 점점 빠르게 진행하여 코를 뚫으며 합성을 지르며 끝낸다.
- 4과장〈두벌 김매기〉: 두벌김은 벼포기를 훑어가며 풀을 뽑는 과정을 연출하며 굿거리장단, 세마치장단, 자진모리로 점점 빠르게 소리를 하며 마지막에 합성을 지르고 끝낸다.
- 5과장〈세벌 김매기〉: 피사리라고도 불리는 세벌 김매기는 논을 돌아다니며 피를 뽑는 과정을 연출한다. 역시 굿거리-자진모리장단에 맞춰 차츰 빨라지며 코를 뚫으며 고향을 지르고 마무리 한다.
- 6과장〈뒤풀이〉: 세벌 김을 매고나면 본가와 영기를 앞세우고 농악에 맞춰 신명나게 춤추고 뛰고 놀면서 마을로 들어가며 마무리한다.



24

구 리

구리, **시민행복**
특별시

구리구지농악

고 증 박명섭

지도위원 류승표

유래

마을 주위의 모습이 춥과 매화와 닮았다 하여 이름이 붙어진 경기도 구리시 갈매동은 불암산 줄기의 구름지대로 산지와 농경지가 많고 산이 완만하며 물이 가까이 있어 농사짓기에 적합하였다. 농민들이 함께 마을의 고된 일을 할 때 노동의 피로와 협동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신명 나는 음의 농악을 연주하기 시작했다. 이 농악은 파종과 추수를 축하하고 농가의 평안을 비는 음악으로 발전되었다.

발굴경위

도시 속, 농사가 사라지고 점점 현대화가 되어가는 바쁜 일상 속에서 더 이상 농악을 연주할 사람들이 없고 농사의 고통을 위로해 주는 농악의 필요성이 사라지고 있다. 악보도 없고 기록도 없는 농악을 보존하기 위하여 발굴하게 되었다.

특징

구리 구지농악은 주로 농민들이 두레를 조직하여 한 해 농가의 평안과 일의 능률을 올리고 구성원들의 협동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그 가락이 빠르고 경쾌하여 신명나는 것이 특징이다.

놀이시기

농경기(김매기, 논매기, 모심기, 추수기) 및 마을 행사

구성

농기, 영기, (오방기), 호적, 쇠, 징, 장구, 북, 벅구, 무동, 잡색

진행과정

돌림버꾸, 오방진, 마당놀이, 당산 벌림, 절구버꾸, 사동백이, 옆치기, 대대옆치기, 짹짹, 밀 버꾸



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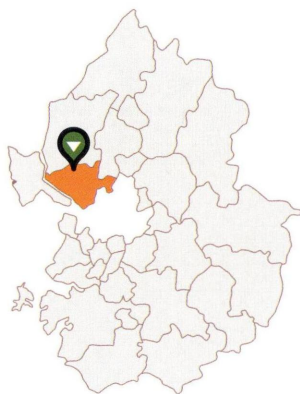
고 양



진발두레농사소리

고 증 | 박전열

지도위원 | 장구석



유 래

경기도 고양시의 고봉산 자락에 있는 진발마을은 옛날 신라가 삼국통일을 위하여 고구려로 향하던 중, 이 지역을 지나다가 말이 모두 진창에 빠져서 말을 끌고 걸어서 이 지역을 지나갔다는 유래가 있을 정도로 흠이 찰지기로 유명 하였는데, 그때부터 이곳을 진발이라 불리었다고 전해지고 있다. 그 만큼 우리 진발마을의 농사일은 더 힘이 들었고, 그 고단함을 이겨내기 위하여 두레를 결성하여 농사를 지었는데, 논농사를 지을때 선소리꾼과 농부들이 서로 소리를 주고 받으며 흥을 돋우며 서로서로를 위로하며 단합하여 농사를 지었다. 우리의 농사 소리는 조선 중기 이후 모내기 농업이 시작된 이래로 농부들이 하던 소리를 이어 온 것이다.

발굴경위

진발 마을에서 십 수 대를 살아오며 실제 농사소리를 하며 농사를 짓던 어르신들은 현재 대부분 고인이 되셨으며, 영농이 기계화되면서 두레가 해체되고 농사소리가 사라져가는 것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시던 어르신들께서(이미 고인이 되신 신유희, 정준섭 등과 생존해 계신 이계희/44년생), 소리를 전수해 주시면서 유지되었고, 고양시에 거주하시는 민속학자이신 박전열 교수님으로부터 고증을 받았다.

특 징

농사소리는 논농사를 지을 때의 소리로 1)모찌기소리 2)모내기소리(열소리) 3)김매기소리로 농사의 진행 단계에 따라 구성되어 있으며, 김매기소리는 1)뿔다 2)홀소리 3)꽃방아타령 4)상사도야 5)우후야 6)뭍돌 등 6가지다. 이 중 특히 모내기소리인 열소리는 하나에서부터 열까지 순차적으로 부르는 소리로 작업의 효율성과 통일성 있게 모를 낼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으며, 특히 소리의 꺾임이 많아 구성지고 흥이 절로 나는 것이 특징이다.

놀이시기

모찌기소리와 모내기 소리는 입하가 지나서 모내기를 시작할 때 하였으며 김매기 소리는 모내기가 끝난 후 약 20일이 지난 뒤부터 장두레 호미로 초벌 김매기를 하고 다시 약 20일

이 지나면 맨손으로 김매기 하였는데 그 때 불렀으며, 백중을 전후해서 김매기가 모두 끝나면 마을에 모여서 잔치를 벌이며 놀았다.

구 성

농사소리를 이끌어 갈 선소리꾼과 받는소리꾼 및 농부들, 흥을 돋을 수 있는 짚이와 농사준비를 하는 황소와 쟁기 및 썰레, 논에 물대기를 하는 용두레, 농부들에게 음식을 대접하는 광주리 등의 아낙네들, 기수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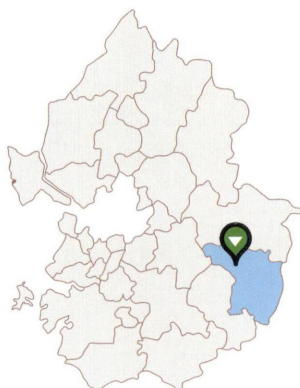
진행과정

옛날 통신수단이 없을 때 마을 한가운데서 징을 울리면 농부들이 사방에서 모이듯이 시작과 함께 기수, 짚이, 광주리 등을 머리에 인 아낙네들, 양반과 소를 몰고 쟁기와 썰레를 지게에 진 농부들이 각각 농기 밑으로 모여서 한바탕 놓고 난 후 논에서 1)모찌기소리, 2)모내기소리(열소리), 3)김매기소리를 선소리꾼과 농부들이 주고 받으며 농사일을 한다. 논둑에서는 아낙네들이 준비한 셋밥을 잠시 먹으며 용두레로 논에 물을 대고, 황소는 논을 갈고 썰레질을 한다. 모내기와 초벌김매기를 끝낼 때마다 우리마을에서 농사일을 잠시 쉴 때 하던 장난상여놀이와 지게놀이 및 낮치기를 시연하게 되며, 김매기를 마친 농부들은 풍년가를 부르며 논에서 나와 대동놀리로 마감을 하고 퇴장한다.



26

여주



봉산탈춤

고 증 | 김기수

지도위원 | 장준석

유래

본래 황해도 봉산지방에 전승되어 오던 가면극으로 1967년 6월 16일 중요무형문화재 제17호로 지정되었다해서 탈춤에 속하며 산대도감계통의 극이다. 예부터 해서의 각 지방에는 5일장이 서는 거의 모든 장터에서 1년에 한 번 씩은 탈춤놀이 가 벌어졌는데 봉산은 남북을 잇는 유리한 지역적 조건 때문에 나라의 각종 사신을 영접하는 행사가 잦았고 경제의 중심지로 놀이가 성행하였다.

발굴경위

1890년대 우리나라를 찾은 이사벨라 비숍(영국국립 왕실 지리학회 회원)이 발간한 저서 '조선과 그 이웃나라들'에 1890년 우리나라 경기도 여주의 천양(이포)이란 곳에서 대갓택에서 주체하는 잔치에 갔더니 조선 사람들이 좋아하는 음악과 놀이판이 준비되고 있었다 한다. 예부터 풍요로웠던 여주는 매 절기마다 일꾼들이며 마을사람들이 함께 즐길 수 있도록 잔치를 사나흘씩 열었는데 그때마다 전국의 광대패를 불러 놀았다 한다.

특징

춤은 팔목춤의 외사위, 겹사위, 양사위, 민사위, 무동춤과 취발이의 깨끼춤, 말뚝이의 두어춤, 미양의 궁둥이춤, 까치걸음등 다양하며 음악은 쇠, 징, 장구, 북은 물론 피리, 대금, 해금 등 삼현육각을 갖추어 한다.

놀이시기

연희시기는 5월 단오날 밤에 시작하여 다음날 새벽까지 이뤄졌으면 4월 초파일에도 놀았다.

구성

전체가 7마당 5거리로 구성되었으며 본격적인 탈놀이전 '길놀이'로 시작된다. 탈고사와 사상좌의 의식춤으로 탈놀이의 본관이 열리고 몸짓과 동작, 재담, 노래 등으로 다양한 이야기가 진행된다.

진행과정

제1과장 사상좌춤, 제2과장 팔목중춤, 제3과장 사당춤, 제4과장 노당춤 (제1경 노장춤, 제2경 신장수춤, 제3경 취발이춤), 제5과장 사자춤, 제6과장 양반춤, 제7과장 미알춤



27

양 주

Yangju
양주시

양주들노래

고 증 | 김현선

지도위원 | 박정화

유 래

양주는 곡창지대가 풍부하여 예로부터 농사가 발달한 지역으로, 논농사를 둘러싸고 일과 관련된 노동요가 매우 발달할 수 있었으며 들노래소리를 전하고 있는 1930년대 출생 김병옥·김환익·허영이·황상복·박인병 등으로 볼 때 적어도 1900년대 초반에는 들노래가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음

※ 『경기도 양주시 토박이 소리꾼의 소리』(2007년 문화관광부 전통 예술 복원 및 시연사업)

- 또한 지역적 특색으로 인해 조금씩의 차이점을 가지고는 있지만 양주들노래와 유사한 소리를 이웃 고장인 파주, 고양, 동두천, 포천 등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 양주들노래는 백석음의 소리를 중심으로 하면서 광적면과 남면의 토박이 소리가 곁들여져 들노래의 다양성을 결정하였다.

발굴경위

(1) 양주는 들이 넓고 쌀이 많이 나는 곡창지대여서 예로부터 노래와 놀이가 풍성하게 발달하였다. (2) 가멸진 문화적 환경이 다 양한 노래를 만들어서 골골이 여러 가지 각양각색의 소리를 구현했다. (3) 인심이 순후하고 소리로 문화를 만드는 창조력이 양주들노래의 핵심적 내용이 된다. (4) 양주들노래는 백석음의 소리를 중심으로 하면서 광적면과 남면의 토박이 소리가 곁들여져 들노래의 다양성을 결정하였다.

특 징

(1) 양주들노래는 지역적으로 황해도소리와 서울소리에 인접하고 있으므로 이 두 가지 소리가 어울리는 오묘한 소리가 우러나게 된다. (2) 수심가토리의 맛과 경토리의 빠대가 혼용된 소리의 면모가 발현되는 점을 만날 수 있으며 소리의 결과 깊이를 만나는 특징이 있다. (3) 소박한 논농사와 함께 여러 가지 재미나는 소리과 놀이가 어울어져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놀이시기

모심는 철부터 시작하여 애논파기 (호미로), 두벌논매기 (손으로), 삼동논매기 (손으로) 시기까지 두벌논매기나 삼동논매기때 논매는 소리를 한다.

구 성

(양주들노래의 구성)

소모는소리—가래질소리—모찌는소리—모심는소리(홍죽리, 송촌말열소리)—논매는소리 1. 논바닥에 들어서면서 하는소리 2. 긴방아소리 3. 사도소리 4. 꽃방아소리 5. 훨훨이소리 6. 상사소리 7.새날리는소리 8.마당너구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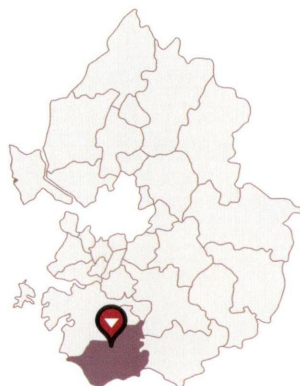
진행과정

입장 - 논만들기(가로10m 세로 6m)를 사각으로 만들고 그 안에서 모심고 논매는 동작들이 모두 이루어짐) - 논엿 좌·우 양쪽 에 아낙들이 새참준비할 간이부엌 만들 - 소리꾼 무대좌측이나 우측에 풍물팀과 함께 10여 명이 고정적으로 경연 - 끝나면 좌측이나 우측으로 퇴장한다.
소품위치 소 1마리 논 의 좌나 우 배치, 용두레 논 측면에 배치



28

평택



평택안중농요

고 증 | 김태규, 엄철호, 윤재의

지도위원 | 조진국

유래

우리나라 주요 산업이 농업이었기 때문에 주로 농사일에 관련된 노래가 많다. 평택지방은 드넓은 벌판을 배경으로 농업이 발전해 왔으며, 자연히 노동의 능률을 높이거나 즐겁게 하기 위해 부르는 노래가 많았으며, 농경생활 초기부터 행해졌던 것으로 추정된다.

발굴경위

주된 산업인 농업의 효율과 능률을 향상시켜 온 소리가 농기계, 제조제와 같은 문명의 발달로 우리의 생활 속에서 점차 사라져가는 전통문화의 하나인 노동요를 지역의 어르신들 통하여 채록하여, 전통문화를 발굴하고 육성하여 지역의 문화정체성을 확립하고자 함

특징

평택지역은 지명에서도 알 수 있듯이 물이 풍부하고 농토가 기름진 옥토로서 '모든 사람들이 고루 잘 산다'는 의미가 있으며, 높은 산이 없는 평야지대로서 중부지방의 곡창지대이다. 이런 지리적 배경으로 안중을 두레소리는 형식과 내용으로 볼 때 향토색이 짙고 가락이 무척 다양하고 흥겨우며, 절로 어깨춤이 취질 정도로 신명난다.

놀이시기

추운 겨울이 지나고 차츰 따스해져 오는 5월부터 모든 추수가 마무리되는 11월까지이다.

구성

풍물패와 두레꾼들이 풍물을 치며 논으로 향한다. 일꾼들이 논에 들어가 일자로 서서 모를 심는다. 모를 심고 15~20일 후 호미로 논이 움푹 파인 곳을 메워주고 잡초를 뽑는다. 아낙들이 새참을 준비하면 일꾼들은 새참을 즐긴다. 20일 후 손으로 잡초를 뽑으며 두벌매기를 한다. 기러기 모양으로 넓게 퍼져 만물매기를 한다. 두레패가 한바탕 논다.

진행과정

매주 화요일, 목요일 4시간씩 농요를 재현하며 농요소리, 장단, 안무 순서로 진행한다.
모를 심는다-초벌을 맨다-새참-두벌을 맨다-풍물패와 한바탕 논다 순으로 진행된다.



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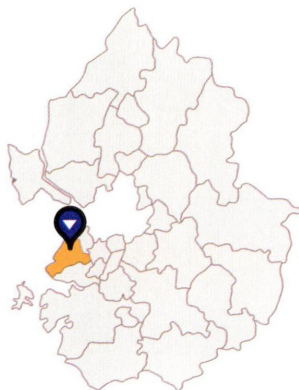
시흥



시흥월미농악

고 종 | 유영대

지도위원 | 김소민



유래

시흥월미농악은 시흥시의 월왕동 월미마을·금이동·매화동·도창동에서 행해지던 농악이다. 마을에 행사가 있거나 농사를 지을 때 주로 두레풍물로 행해졌는데, 이는 1950년대 이전에는 그 활동의 맥이 끊겼다가 1950년대 중반에 이르러 그 전승의 맥락을 활발히 이어 나갔다. 월미농악이 활발해졌던 시기를 보면 '김맹식'이라는 인물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후 걸립을 다니며 공연 및 대회에 참가하여 실적을 남겼고, 시흥에서 으뜸가는 농악으로 거듭날 수 있었다.

발굴경위

1994년 시흥시 향토사료 전문위원 故 이한기 제안으로 1차 고증조사 및 연구 진행, 2003년 시흥문화원 주최 아래 고려대 유영대교수를 책임연구원으로 2차 고증조사 및 연구 진행, 2016년 한국예술종합학교 산학협력단과 현장조사 실시 3차 고증조사 및 연구 진행

특징

시흥월미농악은 농악연행과 더불어 두레기싸움이 있는 것이 특징인데, 이 기싸움을 통해 이웃마을간의 세력관계를 확실하게 하곤 하였다. 농악연행때 나타나는 소고동작이나 무동 춤을 보면 농사 풀이 모습을 재현하여 그 농경의 의미가 나타나는 특징이 있다. 또한, 시흥월미농악에서 쓰이는 악기를 살펴보면 쟁과리, 징, 장구, 북, 소고 등의 타악기와 태평소의 관악기로 이루어진다. 장단은 이분박·삼분박·혼합박 계열의 장단들을 연주하는데, 대표적으로 이분박의 지존가락, 삼분박의 무등패가락, 혼합박의 길군악 칠채와 육채를 주되게 연주하고 춤가락으로 짝짝이, 타령, 동리삼채 장단 등이 있다. 특히 상쇠의 가락과 놀음이 현란하고 경쾌하며 벼구쟁이들의 상모놀림이 어느 지역보다 단정하며 빠른 것이 특징이라 할 수 있다.

놀이시기

시흥월미농악은 정월대보름이면 세초(歲初) 벽사진경 및 기풍(祈豊) 행사의 목적으로 하며, 5월에는 파종 때와 단오, 6월 김매 때는 농번기 이므로 작업의 능률을 올리기 위하여 하며, 7월에는 일손을 놓고 하리를 펴는 때이므로 호미씻이, 백

중놀이라 해서 하며, 8월에는 농민들의 경사스러운 명절이므로 하며, 10월에는 추수를 끝내고 공공을 축하하고 마을의 안녕과 풍년을 기원하기 위해 '동제(洞祭)'를 지낼 때에 놀던 농악놀이로, 농민들의 공동체 의식과 일체감을 형성하여 주고 마을의 화목을 촉진시켜주는 대동놀이였다.

구성

치배의 편성은 쇠, 징, 장구, 북, 소고, 태평소, 무동, 잡색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무등패가락, 짚지패가락, 도드래가락 등의 가락을 연주하며 농사모의적 행위·군사진법·제의성·유희·기예 등 판제의 여러 복합적인 요소를 다양하게 표현, 구성되어 있다.

진행과정

윗마을과 아랫마을이 만나 대립을 하는데, 이때 재담이 오가며 기싸움으로 이어진다. 이후 세력관계가 정해지면 화합의 의미를 담아 시흥월미농악을 진행하는데 이 농악에는 보리밭 밟기부터 보리밭거름주기, 논갈이에 이어 벼씨뿌리기, 수수부룩치기, 벼베기 등의 농경의 모습을 담아 판제로 풀어낸다.



30

파 주



파주시

파주교하농악

고 중 | 조영현

지도위원 | 김명기



유래

파주 교하 지역은 개성 상인들을 비롯한 다양한 지역의 상인들의 왕래가 많았으며, 이 상인들 중에는 여러 가지 재주를 가진 재주꾼들도 많았다고 한다. 이리하여 기세울(현 와동리) 마루골지역에 구성된 농악대들과 상인들(다양한 재주를 가지고 있는 재주꾼들)이 서로의 재주를 교환하기도 하고 함께 악기를 연주하기도 했다고 한다. 파주 교하 기세울 농악이 화려하고 볼거리가 많은 이유는 이런 여러 지역의 재주꾼들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여 진다. 지역적, 사회적 특징과 배경으로 볼 때, 파주 교하 기세울 농악은 조선 세조 때부터 걸립과 더불어 굿(사당)적인 요소, 두레적인 요소 등을 다양하게 가진 농악놀이로 세시풍속을 동반한 의식행사와 같은 마을의 경조사를 모두 아우르는 민중놀이였을 것으로 생각되어진다.

(※ 이상의 내용은 파평 윤씨 정종공파 36대손인故 윤시덕(1931년생, 고종 당시 만 80세)씨를 비롯하여 김명기, 권대현, 박성걸에 의하여 고증되어진 내용을 정리한 내용임을 밝힘.)

발굴경위

파주농악보존회의 조영현 전회장이 파주 교하 기세울 농악을 알게 되었고, 여러 가지 역사적 근거에 의해 파주 기세울 농악을 발굴하게 되었다. 파주 교하 기세울 농악은 제15회와 제17회 전국청소년민속예술제에 경기도 대표로 참가하였던 문산제일고등학교의 파주농악 작품을 바탕으로 파평 윤씨 정종공파 36대손인故 윤시덕(1931년생, 만 80세)씨를 비롯하여 김명기, 권대현, 박성걸의 고증을 받아 파주 교하 기세울 농악의 역사적 근거와 파주지역의 농악에서만 행하여 지는 가락과 진법에 대하여 발굴 복원하게 되었다.

특징

파주 교하 기세울 농악은 중부권에 속하는 전형적인 농악놀이로, 지역 토착민들과 함께 전문재주꾼(전문예인집단)의 영향을 많이 받아 경기지역과 황해도지역을 아우르는 한강 이북지역의 농악놀이이다. 다양한 장르의 놀이들을 복합적으로 구사하고 있으며, 그 중 쇠가락과 소고잡이들의 채상놀음이 여타 농악대들과는 달리 화려하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할만한 부분이다. 개성과 연백 등 황해도 지역의 영향을 받아 늦거리(늦은채), 십자거리, 내는 가락, 인사굿 등이 타 지역의 농악과는 다른 특징을 보이고 있다.

놀이시기

정확한 놀이시기는 정해져 있지 않은 것으로 추정됨.

구성

쇠-3, 바라-1, 징-2, 장구-4, 북-4, 소고-10, 무동-6, 태평소-2, 농기-1, 영기-2, 단체기-1, 오방기-5, 잡색-4, 총45명

진행과정

인사굿-돌림벅구-앞당산-오방진(길군악)-뒷당산(찍찍이, 패자춤)-십자걸이-사통백이-좌우치기-늦거리-밀벅구-개인놀이



4. 체험 및 부대행사

부대행사

구분	행사명	일시	장소
의전행사	개막식 개막공연(사물놀이 한울림-김덕수)	09. 20.(금) 11:00	수원체육관 특설무대 (내부)
	폐막식 폐막공연(수원시립공연단 무예24기)	09. 21.(토) 17:30	
경연대회	1일차 경연: 13개 팀 참가	09. 20.(금) 09:00~18:00	수원체육관 메인경연장 (내부)
	2일차 경연: 17개 팀 참가	09. 21.(토) 08:30~17:30	
전시 체험행사	문화예술 체험부스	09. 20.(금)~21.(토) 10:00~17:00	주차장 특별부스 (외부)
	푸드트럭 운영		
	수원역사문화투어		관내

*위 내용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문화예술 체험부스

1. 가족공예
2. 나만의 뱃지 만들기
3. 마법의 종이 슈링크 네임택
4. 손향기(손으로 나누는 커피향기)
5. 인테리어 석고방향제 만들기
6. 전각체험
7. 캐리커처
8. 향기로운 선물용 향초만들기

체험프로그램



개막공연



《(사)사물놀이 한울림 예술단 소개》

(사)사물놀이 한울림 예술단은 김덕수패 사물놀이를 모태로 1993년에 창단되었다. 사물놀이가 가장 한국적인 음악이면서 세계적인 음악의 하나로 자리하는 과정에서 사물놀이와 한국의 예술혼을 배우기 위해 모여든 예술인들을 주축으로 전통 가무악을 확대 발전하여 우리 것의 전승 연행에 머물지 않고, 전통 연희의 새로운 창작부터 시작하여 나아가 재즈, 관현악, 대중음악 등 전세계 음악과의 협연을 통해 장르의 경계를 넘어 발전시키고 우리음악의 세계화에 앞장서는 단체이다.

《공연프로그램 소개》

출연_김덕수, 홍윤기, 김성대, 김정욱, 김희수, 방성혁, 송동운, 이정일, 하준혁

1. 축원

예전부터 한국의 신명을 담아 관중과 광대가 함께 어우러져 판을 벌일 때는 항상 길놀이로 시작된다. 길놀이에 이어 광대들은 관중들에게 복을 가져다주는 축원에 의미를 담고 있는 한국 전통연희의 뿌리인 무속을 가(歌)·무(舞)·악(樂)이 함께 어우러지는 공연예술로 승화시킨다.

2. 삼도농악가락

사물놀이는 팽과리, 징, 장고, 북의 사물악기로 빛어내는 기운생동의 세계이다. 그리고 삼도농악가락은 세계인을 감동시킨 사물놀이의 대표곡이다. 하늘의 소리와 땅의 기운이 네 가지 악기를 통해 사람에게 전해지며, 한국인의 신명과 조화 그리고 역동성이 표출된다.

폐막공연



《수원시립공연단 소개》

열정과 패기, 최고의 퍼포먼스로 관객과 함께 호흡하는 수원시립공연단!

2015년 7월, 수원시와 대한민국의 문화역량과 문화적 긍지를 향상시키고자 힘찬 발걸음을 내딛은 수원시립공연단은 국내 최초로 무예24기 시범단과 극단을 합하여 창단되었다. 무예24기 시범단은 매일 오전 11시 수원화성행궁에서 무예24기 시범 상설공연을 선보이며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수원에 가면 반드시 봐야할 공연으로 선정되는 등 수원시 문화·관광의 정병으로도 연일 활약하고 있다. 특히 수원화성문화제 폐막작인 무예브랜드공연 '야조(夜操)'와 마상무예6기를 고증한 마상무예공연 '선기대(善騎隊)', 화성을 달린다' 등 다양한 레퍼토리로 우리 고유 전통무예의 우수성과 감동을 선보여 시민들과 관객들에게 큰 호응을 받으며 국내 문화관광 콘텐츠의 중심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국내를 넘어 세계가 감동할 콘텐츠를 보여주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는 수원시립공연단은 시민과 직접 만나는 '찾아가는 예술무대', 연기와 무예를 배워보는 '아카데미'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120만 수원시민들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더욱 넓혀 나가고 있다.

IV

제22회
경기도
민속예술제

평가

1. 평가회
2. 토론회

1. 평가회

1-1. 개요

- 일시 : 2019. 10. 08(화) 16:30
- 장소 : 수원문화원 3층 다목적실
- 참석자 : 총 18명

소 속	이 름	비 고
경기도문화원연합회장	염 상 덕	대회장/추진위원장
경기도문화원연합회 사무처장	최 영 주	실무추진단장
경기도문화원연합회 팀장	박 현 미	실무담당자
경기도문화원연합회 연구원	오 다 예	
경기도문화원연합회 사원	정 지 희	
수원문화원 사무국장	최 중 영	실무추진부단장
수원문화원 경영지원부장	신 구 식	
수원문화원 문화사업팀장	김 경 란	
수원문화원 경영지원팀장	박 지 연	
수원문화원 문화사업팀 차장	노 현 호	실무담당자
수원문화원 경영지원팀 대리	안 호 진	
수원문화원 문화사업팀 주임	김 진 경	
수원문화원 문화사업팀 주임	최 형 일	
수원문화원 경영지원팀 학예주임	이 수 현	
수원문화원 문화사업팀 주임	김 태 완	
수원문화원 고색향토문화전시관 주임	허 승 무	
수원시청 문화예술과 문화정책팀장	고 기 남	
수원시청 문화예술과 문화정책팀 주무관	이 경 욱	수원시 주무부서 담당자

1-2. 회의내용

- 내부 평가회의 및 토론

1-3. 회의결과

- 경기도문화원연합회
 - 본 대회 운영에 있어 능력밖의 상황에 상처받지 않았으면 하는 바램이 있음
 - 처음으로 지방문화원이 주도하여 진행된 본 대회는 다수 행사 경험과 가용인력이 많은 수원문화원이었기 때문에 성공적으로 개최되었다고 생각되며 내년 행사가 걱정됨
 - 지자체의 협조가 잘 이루어짐
 - 경기도문화원연합회와 수원문화원의 업무 스타일이 다르나 협업이 잘 되었음

- 올해는 대상 한 팀만 전국대회에 출전함으로 시상에 신경을 많이 썼음
- 본 대회의 지방문화원 참여 실태를 많이 느꼈을 것(협조 및 진행의 어려움)
 - 주민등록증 지참, 신청서 취합, 시상참여, 공지사항 전달 등등
- 평소보다 전반적으로 수원문화원 주도로 업무추진에 있어 원활하고 쉽게 진행되었음
- 경기도문화원연합회와 지방문화원의 업무영역에 대한 구분이 모호하였으나 행사종료 후 명확해 졌으며, 이에 따른 메뉴얼 제작 검토
- 내빈실 운영시 손항기(손으로 전하는 커피항기)의 도움으로 수월
- 출전 입장구와 내빈실 동선이 동일하여 혼잡

• 수원문화원

- 내부 평가회 개최 이유는 향후 본 대회의 개선 및 발전을 위한 것
- 수원체육관 사후 청소미흡에 대한 수원도시공사 요구에 대하여 도시공사의 입장이 이해됨
- 주민등록증 지참 강력히 재공지 할 것
- 시상식은 사무국장 이상 참여하여 수상 진행
- 심사위원에 대한 사전검증 필요
- 출전 참가신청의 기간이 있었으나 잘 지켜지지 않았음
- 출전확인시 주민등록증 소지 안내공지 미흡, 추후 강력 공지 할 것
- 내빈응대 잘 진행되었음(손항기 - 손으로 전하는 커피항기)
- 프로그램북 부족으로 항의가 있었으며 향후 충분히 확보 할 것
- 안전사고 없이 행사 종료, 도움주신 모든 분들과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
- 우천시 출전확인 진행 중 다수의 인원이 비를 피할 장소 없었음
- 용인 출전팀이 사전 협조되지 않은 진흙 사용으로 사후처리에 어려움 발생, 사전공지 할 것
- 김포 출전팀 환자발생시 구급요원의 부상자 대응이 불친절 하였음
- 자원봉사 및 스태프들의 도움으로 진행에 원활하였음
- 자원봉사 운영은 1일차는 관리가 어려웠으며 2일차부터 전지훈 차장의 도움으로 수월히 진행됨
- 민속경연 대회를 관람할 기회가 흔치 않으나 관람객이 많이 없어 아쉬웠음
- 출전 시·군의 인솔담당자가 경연의 기본사항에 대해 숙지가 미숙함(경연장 배치 등)
- 관람석의 안내 미흡으로 관람에 어려움 발생
- 출전단체별 물품리스트를 받지 못하여 물품량에 따른 진입의 순서결정 및 조립에 어려움 발생
- 경연장의 내부 배치가 비효율적임(출전자 대기실과 입장의 동선이 김)
- 입퇴장로 및 내부 배치도의 안내 미흡
- 경연 출입로 안내 미흡으로 출전인원과 물품의 혼선발생
- 사진촬영 통제 미흡

• 수원시청

- 대회개최 중 태풍과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으로 모두 고생 많았음
- 관람객, 내빈, 스태프의 구분이 어려움, 인원통제 용이하게 내빈 및 스태프는 표찰 패용
- 수상은 참여 시·군 모두에게 돌아가는 만큼 1명이상 필히 참석 하였으면 함

1-4. 총평

- 경기도민속예술제가 관계자들에게는 큰 사업이지만 민속경연대회라는 특성에서 오는 무료함이 큰 문제로 킬러컨텐츠나 부대행사로 시민들의 관심을 모을 필요가 있음.
- 예산규모 대비 축제 파급력이 미미한 부분이 있으며, 홍보 다각화 필요.
- 기존 진행방식과 다르게 개최지와 운영주체를 일원화하여 진행하는데 약간의 혼선이 있었고, 일원화는 기본 매뉴얼이 필수적으로 있어야 함.

2. 토론회

2-1. 지속발전가능한 문화원만들기 액션 토크

개요

- 일 시 : 2019년 12월 10일(화) 13:00~18:00
- 장 소 : 경기도 남양주시 서경청소년수련원 대강당
- 대 상 : 전국 230개 지방문화원 네트워크, 경기도 문화가족
- 주 최 : 경기도문화원연합회
- 공동주관 : 경기도문화원연합회, 남양주문화원
- 후 원 : 경기도, 경기도의회, 한국문화원연합회, 남양주시, 남양주시의회

사업목적

- 한문연-도연합화-지방문화원의 네트워크를 활용한 지속적 담론구조 마련
- Bottom-up방식의 논의구조를 정착시켜 실질적 실행단위의 동기부여 강화
- 구체적 아젠다를 설정, 향후 실천이 담보된 포럼으로 조직

추진방향

- 총 4 개의 섹션으로 분리, 각 섹션마다 자유롭게 토론하는 방식으로 추진
- 각 세션별 참가 사전 신청으로 적절히 인원 안배를 하고, 토론의 질을 높여 실질적 결론을 도출하도록 함
- 좌장-패널-토론자를 분리시키는 것이 아닌 원탁회의 형식
- 문화원 관계자 뿐 아니라 타 지역, 타 기관 패널 적극적으로 섭외

기대효과

- 경기도 문화정책의 현황 공유 및 상생의 방향 모색
- 경기도와 지방문화원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
- 지방문화원 발전방향 공유 및 현실적 대안 마련

지속발전가능한 문화원 만들기 액션토크

Action
talk

일시 2019년 12월 10일(화) 11시~18시

장소 경기도 남양주시 서경청소년수련원

프로그램

* 프로그램 내용은 추진상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시간	주제	발표자
11:00~12:00	제21회 경기도문화가족합동연수 및 지방문화원 어워드 시상식	
13:00~14:00	• 주제강연 지역문화협력과 거버넌스	차재근 지역문화협력위원회 위원장
14:00~16:20	제1섹션 경기도민속예술 이대로 좋은가?	
	• 경기도 민속예술 발전을 위한 실천적 대안 모색	김정환 용인문화원 사무국장
	• 경기도 민속예술(무형문화)의 현황과 발전을 위한 제언	임종수 경기무형문화재총연합회 이사장
	제2섹션 지역문화원은 청년과 손잡을 수 있을까	
	• 지역문화원은 청년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고, 무엇을 지향하는가 • 청년은 문화기관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고, 무엇을 지향하는가 • 청년은 지방문화원과 협력하여 어떤 지역문화를 만들 수 있을까?	최치호 동두천시 문화체육과 문화예술팀 주무관 박도빈 동네향을 대표 남진우 컬처임팩트 대표
	제3섹션 어르신문화사업과 신중년, 그리고 지방문화원	
	• 진흥원 차원의 어르신문화예술교육사업 추진방향 및 지방문화원과의 협력가능성	김재순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본부장
	• 한국문화원연합회 차원의 어르신문화사업 추진방향과 비판적 대안	송은숙 한국문화원연합회 차장
	제4섹션 지방문화원의 현재 분석을 통한 미래비전 모색	
	• 지역분권과 문화자치. 지방문화원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 지역소멸과 지역경제성. 지방문화원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 문화향유를 넘어 문화주체로. 지방문화원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전고철 지역문화진흥원 이사 이동준 이천문화원 사무국장 박성희 인천 미추홀혁신문화원 사무국장
16:20~18:00	종합토론	진행: 이하준 김포문화원장
	• 기조발제 지역문화진흥원과 지방문화원 그리고 지역문화진흥 5개년 계획	김영현 지역문화진흥원장
	• 각 섹션별 포럼 결과 발표 • 각 섹션별 발제자 중심의 토론을 통한 종합적 실천방향 모색	섹션별 발제자 및 토론자 전부 참여

참가신청 <http://naver.me/5aFkHUqG>(해당링크에 신청)

신청기간 안내일부터 ~ 12월 6일(금)까지

문의 경기도문화원연합회 사무처 031)239-1020

주최 경기도문화원연합회 공동주최 경기도문화원연합회 남양주문화원 후원 경기도, 경기도의회, 한국문화원연합회, 남양주시, 남양주시의회

2-2. 세부추진내용

제1섹션 : 경기도 민속예술 이대로 좋은가?

- 의도 : 본 섹션은 경기도 민속예술진흥을 위한 제반사항을 토론하여 향후 경기도 민속예술 발전을 위한 지원구조방안 모색 및 축제로 승화시키기 위한 실천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장으로 구성
- 참가대상 : 경기도 31개 시·군 경기도민속예술제 참가단체(보존회 등), 지도위원, 고증자, 관계자 등
- 추진방향 : 본 토론을 통해 나온 결과를 향후(2020년~) 민속예술제 운영지침으로 만들고자 함
- 시간계획 : 14:20~16:20(120분)

좌장 : 김은호 평택문화원장

제1주제 발제	경기도민속예술제를 위한 실천적 대안 모색 (경연형식을 중점적으로)	김장환 용인문화원 사무국장
제2주제 발제	경기도민속예술제 발전을 위한 실천적 대안 모색 (무형문화재를 중점적으로)	임웅수 경기도무형문화재총연합회 이사장
토론자	- 손영철 부천석천농기고두마리 보존회장 - 정현채 김포문화원 사무국장	

2-3-1. 발제문 1

경기도 민속예술 발전을 위한 실천적 대안 모색

김 장 환 (용인문화원 사무국장)

I. 민속예술제의 현주소

과거에 있었던 모든 문화가 전통은 아니다. 전통은 역사상의 지속과 변화를 거치면서 축적되어 온 문화유산이며, 이는 오늘을 풍요롭고 윤택하게 하며 미래를 추진시킬 수 있는 근원적인 힘을 지닌다. 이러한 전통이 지닌 원동력의 한 부면은 과거 및 현재에 있어서 민중의 공동체적 삶의 원리와 실천으로서 기능했던 민속에서 찾을 수 있다. 민속에는 우리의 전통문화가 풍부히 용해되어 있기 때문이다.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지만 경기도는 각개의 마을들이 음력 10월 상달과 정월, 단오와 칠석 등이면 마을마다 공동체 의례나 놀이를 벌임으로써 공동체적 응집력과 정신적인 일체감을 유지하며 마을이라는 공동체를 운영해 왔다. 마을 단위로 모셔졌던 산제(山祭), 동제(洞祭), 당제(堂祭)를 비롯하여 고목제(古木祭), 정제(井祭) 등의 마을 의례가 있는가 하면 줄다리기, 거북놀이, 두레싸움, 답교놀이, 달맞이나 동해놀이 등 다양한 형태의 공동체 놀이를 지니고 있었다.

하지만 오늘날 경기도의 민속은 일제 강점기의 문화 말살정책에 이어 도시화·산업화가 야기한 문화변동을 겪으면서 쇠퇴를 거듭해 왔고, 많은 지역에서 그 존재여부조차 확인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고 말았다.

1905년 일제가 조선에 통감부를 설치한 이후 약 40여 년 동안 일제는 우리의 민속을 철저히 탄압했고, 1960~70년대 근대화 과정에서는 ‘미신타파’라는 구호 아래 우리의 소중한 민속 문화를 스스로 말살하기도 했다.

이로 인해 경기도는 문화의 전 부문에 걸쳐 심한 변동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 곧 마을과 가족 구성의 변모, 새로운 외지 인구의 유입, 전통적 농업 생산 기반의 변화와 도시화 등이 급격히 진행되다 보니 삶 전체의 가치와 양태도 크게 달라지게 되었다. 이러한 전반적인 문화변동은 경기도민들의 삶을 그들의 전통적 역사와 문화에서 크게 이탈시켰고 문화적 정체성을 상실하게 만들어 버렸다.

그러던 것이 경연대회라는 형식으로 세인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게 된 것이 1958년 서울 장충체육관에서 문화단체총연합회(문총)가 주최하는 형식상의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가 열리게 되면서부터이다. 물론 당시에는 경연대회란 성격이 아니라 축제의 의미를 띠고 있었지만, 1960년부터는 민속예술의 발굴과 개발을 위하여 본격적인 경연대회의 성격을 띠게 되면서 경

향 각지의 민속놀이가 참가하게 되었다.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에 시도 대표로 출전하기 위해서는 시도 단위의 예선을 거쳐야 했고 시도별 대표작을 선정키 위해 지역에서는 1966년 전라남도가 <1회 남도문화제>를 통해 전국 최초로 예선전 형식의 경연방식을 도입한 것을 시작으로 지역별로 비슷한 형태의 향토문화제 또는 경연대회를 신설하기 시작했다. 경기도는 1982년 <제1회 지사기 쟁탈 민속예술경연대회>가 열린 이래 금년(2019년)으로 22회째 개최하였다.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는 여러 가지 부작용을 개선키 위해 1999년 <한국민속예술축제>로 개칭하였고 <지사기 쟁탈 민속예술경연대회>도 <경기민속예술제>로 개칭하였지만 이후로도 여전히 경연대회 형식으로 행사를 치러오고 있다.

전국민속예술축제나 지방에서 예선대회로 치러지는 민속예술제에 대해서는 그동안 상반된 평가가 공존해 왔다. 긍정적인 관점에서의 평가로, ①사라져 가는 민족 고유의 민속예술을 발굴·보존·전승함으로써 민족문화 발전에 기여했다는 점 ②각 지역의 대표적인 민속을 한 자리에서 볼 수 있다는 점 ③ 지역민의 공동체 의식을 강화하고 자긍심을 고양시켰다는 점 등을 꼽을 수 있다.

부정적인 관점의 평가로는, ①전승 민속의 본래 모습을 왜곡·변형하여 가짜 민속(Fake lore)을 양산했다는 점 ②수상을 위한 지나친 경쟁의식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의미의 축제가 되지 못했다는 점 ③일반 민중이 축제의 진정한 주체로 나서지 못하고 소외되었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II. 민속예술제의 문제점

1. 민속 경연대회로서의 한계

1958년부터 열리기 시작한 민속예술경연대회는 실로 인멸해 가는 민족문화의 뿌리를 찾는 역사적인 전기가 되었다. 그로부터 60년간 이 대회는 사라져가는 향토 민속예술을 발굴, 재현함으로써 민족문화의 원형을 보존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해 온 것이 사실이다. 이 대회가 없었다면 이 소중한 문화유산은 자취도 없이 사라졌을지도 모른다.

그런데 많은 학자들은 근본적으로 민속은 경연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을 인식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경연대회 덕분에 새로운 민속자료가 많이 발굴되고 민속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졌다는 경연의 효과를 인정하면서도 다음과 같은 이유로 민속의 경연성을 부정하고 있다.

즉 민속은 그것이 형성되어 전승되고 있는 사회적 문화적 자연적 환경 속에서만 정상적으로 존재할 수 있고 그 의의도 제대로 발휘될 수 있는 것이므로, 인위적으로 마련된 공연장에 나가면 민속으로서의 본질이 왜곡될 수밖에 없다. 민속의 본질적 의의와 그 문화적 기능은 경

연대회에서 드러날 수 없으며, 또 몇 사람의 심사위원이 높은 데 앉아서 잠깐 내려다보는 정도로 그 가치를 쉽게 평가할 수도 없다는 것이다.

문화상대주의의 관점에서 좋은 문화와 나쁜 문화를 분류할 수 없듯이 좋은 민속과 나쁜 민속을 가릴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물론 민속을 예술작품으로 본다면 얼마든지 그 형상의 완성도나 미학적 성취, 또는 사상적 깊이 등을 따져가며 예술성을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민속예술경연대회에는 민속예술만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거의 갈래 차원의 제한 없이 모든 민속들이 참여 대상이라는 사실이다. 이를테면 기우제와 동제, 굿, 당산제, 보리타작, 줄다리기, 탑돌이 등 도저히 민속예술이라고 할 수 없는 각종 민속들이 아무런 제약 없이 경연대회에 참여하여 그 우열을 가린다는 사실이다. 즉 민속이면 무엇이든지 민속예술이라는 탈을 쓰고 경연대회에 참석하게 됨으로써 굿도 예술이고 농사일도 예술이며 줄다리기도 예술이 되고 만 것이다.

따라서 말만 민속예술경연대회이지 실제로는 민속경연대회이며, 달리 말하면 문화경연대회나 다름없다. 그러므로 문화상대주의 이론에 입각하면 문화가 경연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처럼 민속 문화 또한 경연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다.

2. 민속자료 발굴의 문제

민속예술제는 우리 고유의 민속을 발굴, 재현하여 민족문화의 뿌리를 찾고, 이를 보존·육성하여 후세에 길이 전승하는 것이 목적이다. 그런데 민속예술 자료를 ‘발굴’한다는 의식부터 문제가 있다. 마치 고고학자들이 지표 밑이나 고분 속에 묻혀 있는 자료를 뒤져서 골동품들을 찾아내는 작업처럼 민속자료도 같은 식으로 발굴해내는 것이라고 여기는 것은 잘못된 인식이다.

특히 경연대회를 염두에 두고 민속자료를 ‘발굴’한다는 것은 마치 골동품 전문가가 무덤 속에 묻힌 유물을 값나가는 골동품으로 간주하여 순전히 팔아먹기 위한 상품으로서 발굴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학술조사 작업으로서 현지조사를 염두에 두지 않고 입상을 겨냥한 이들에 의한 민속자료의 발굴이란 필연적으로 민속의 본디 모습을 훼손하기 십상이다. 경연대회에 입상 가능성이 있는 민속예술만 찾아다닐 뿐만 아니라, 때로는 그러한 경연 양식의 틀에 맞추어 발굴하고 재현하게 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이다. 골동품으로 팔아먹기 위해 고분을 발굴하는 이들에게는 상품적 가치가 있는 유물만 필요할 뿐, 유물과 함께 그것을 둘러싸고 있는 지표 안팎의 여러 문화적 상황은 필요하지 않다.

다시 말하면 그들에게는 유물이 지니는 문화적 가치와 역사적 의미 또는 유물에 대한 학문적 분석 작업에는 관심이 없다. 상품이 될 만한 유물은 발굴하되 그렇지 않은 유물은 현장에서 깨뜨려 버리기 일쑤이며, 유물에 관련된 학술조사보고서 작성 같은 학술적 작업은 아예 염두도 내지 않는다.

상품적 가치를 전제로 발굴을 하는 경우 심하면 도굴꾼의 행태로 나아갈 수도 있고, 때로는 실제로 없는 자료를 새로 발굴한 골동품인 양 그럴듯하게 가공하여 속임수로 팔아먹을 수도 있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민속예술경연대회를 겨냥한 민속 발굴 작업은 때로는 소박하게 전승되는 자료를 대단한 작품으로 부풀려서 꾸며낼 뿐만 아니라, 실제와 다르게 조작하여 출품함으로써 오히려 민속예술의 온전한 전승을 훼손하기에 이른다.

3. 자료의 보존과 전승의 문제

민속예술제는 또한 발굴된 자료를 잘 보존하고 전승하는 데 목적이 있다. 민속예술은 전문가에 의해 가르쳐지는 것이거나 오랫동안 연습해서 익히는 것이 아니라 더불어 생활하는 가운데 자연스럽게 전승되는 것이다. 그리고 구경꾼에게 보여주기 위한 구경거리나 보는 사람의 감상을 위해 존재하는 것도 아니다.

삶의 일상 속에서 일과 생활을 통해 자연스럽게 터득하고 전승하며 또한 전승자 자신의 필요에 의하여 연행되고 향유되는 것이다. 따라서 민속예술의 가장 바람직한 전승과 계승은 민속예술의 생태학적 본질에 맞게 이루어져야 한다.

문제는 마을공동체에서 자연스럽게 전승되던 민속예술이 경연대회에 나가자 연습하게 됨에 따라 경연대회에 맞게 새로 짜 맞추게 되고 입상을 목표로 본디 양식과 다르게 왜곡시켜 연행함으로써 현장에 뿌리박고 있던 민속예술을 무대예술로 왜곡시킨 것이다. 더욱이 밤새도록 놀던 탈놀이나 온 종일 부르던 농요를 3,40분의 제한된 시간에 공연하도록 일사불란하게 훈련시키는 것이 민속자료를 잘 보존하고 온전하게 전승하는 일인가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

또 무형문화재로 지정하는 경우도 훌륭한 보존 대책이라 하기 어렵다. 유물이나 유적과 같은 유형문화재는 본디 모습대로 보존하는 것이 바람직할지 몰라도 상황에 따라 가변성을 지니면서 전승되는 무형문화재는 사정이 다르다. 정부나 지자체로부터 문화재로 지정되는 순간 민속예술의 역동적 생명력과 즉흥적 재 창조력은 박제화 되기에 이른다.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지정된 내용과 양식을 벗어나서 연행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 내용만 고정시켜두고 연행 시기나 장소에 대한 규제는 없다. 그래서 전승시기와 장소는 거의 지키지 않고 있는 반면 그때마다 창조력을 발휘해야 할 연행내용은 과거의 것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4. 경연 공간의 문제

민속예술은 민중이 삶의 현장에서 생산하고 매개하고 수용하고 향유하고 재생산하는 주체성과 일상성, 변형성 등을 특징으로 하고 있는데, 민속예술제는 공설 운동장이나 실내 체육관 등 한정된 공간에서 이루어져 이 같은 민속예술의 특성에 부합되지 못하고 있다.

우리 민속예술의 본질은 하는 자와 구경하는 자의 구별이 없이 더불어 하나가 되어야 할 뿐 아니라 구경꾼들이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어 집단적 신명이 발휘되어야 한다. 신명풀이가 되려면 공연 진행에 관중이 능동적으로 개입하면서, 공동의 문제를 함께 풀어낼 수 있어야 한다. 이를테면 민요에 나타난 한과 신명을 소리꾼 혼자서 풀지 않고 장구나 북 잡이와 함께 풀고, 청중과 함께 풀 수 있어야 진정한 축제라 할 수 있다. 이처럼 우리 민속예술의 본질은 놀이꾼과 구경꾼이 따로 없는 동질적인 공감대 위에서만 신바람이 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장소 문제는 심각하게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구경꾼들은 운동장에서 진행되는 소리판과 놀이판에 구조적으로 끼어 들 수 없을 뿐 아니라, 행사 진행 요원들에 의해 곳곳에서 출입을 통제하여 놀이꾼과 구경꾼의 만남을 원천 봉쇄시킨다. 그나마 입장식 때 동원한 학생들이 빠져나가면 심사위원석이나 본부석 근처를 제외한 대부분의 관중석이 텅 비어 있기 일췌이다.

5. 심사의 합리성 문제

모든 경연대회가 제대로 이루어지려면 무엇보다도 심사가 합리적으로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경연대회가 지녀야 할 최소한의 요건이 심사의 합리성과 공정성이기 때문이다. 바람직한 심사가 되기 위해서는 심사 기준 또는 심사의 경향이 민속예술의 본질에 입각해 있어야 하는 동시에, 이 경연대회의 목적을 실현하는 길잡이가 되어야 한다. 심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민속예술을 전승하는 사람들의 의식과 전승 양상이 좌우되기 때문이다.

오늘날 민속자료를 인위적으로 극화하거나 과장 연출하는 경향이 나타나는가 하면, 인기 종목에 편중되는 경향을 보임으로써 민속예술의 원형을 왜곡시키는 문제들이 드러나는 것도 심사의 결과이다. 또 가짜 민속이 판을 치게 된 데에도 심사를 어떻게 하는가 하는 심사 경향이 더 큰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므로 심사위원의 책임이 크다. 심사위원은 민속예술의 본디 모습을 온전하게 재현하면서 출연하는 사람들 스스로 이를 즐기고 자발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신명풀이를 마음껏 하고 있는가, 또는 민속예술의 기능이 건강하게 발휘되고 있는가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심사를 해야 한다.

예를 들어 ‘쇼’와 같은 구경거리로 꾸며낸 민속예술, ‘매스 게임’과 같은 획일화된 조작적 민속예술은 심사과정에서 도태시켜야 한다.

그러나 심사에 대한 이러한 기대는 사실 다음 문제이다. 가장 우선적인 문제로서 심사의 공정성 여부부터 따져 볼 일이다. 심사가 공정하려면 먼저 심사위원이 민속예술에 대한 높은 식견과 객관적 평가의 안목을 갖추어야 한다. 이를테면 원형의 재현을 가장 중요한 심사기준으로 설정하였다고 하더라도 무엇이 원형인지 알지 못하는 사람이 심사를 한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 더군다나 그런 문제를 알면서 심사기준이나 원칙에 입각하지 않고 지역적 배려나

정실 등 일정한 편견을 가지고 평가를 의도적으로 조작한다면 그것은 더욱 큰 문제이다.

6. 심사위원의 자질 문제

심사위원은 자기 역량에 의한 독자적 심사를 근거 있게 하여 주관적 판단의 객관화가 실현될 수 있는 평가를 담보해내야 한다. 본디 전승과 다르게 인위적으로 조작해 낸 작품을 제대로 분별해내지 못하고 연출의 그럴듯함에 끌려서 높은 점수를 준다면 그는 자질이 부족한 심사위원이다.

민속예술 경연은 일시에 같은 종목을 상대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며칠 동안 연행된 다양한 갈래의 작품을 그 자체로 보고 절대적으로 심사하여 평가해야 하므로 공정성과 타당성을 동시에 확보하기가 쉽지 않다. 자연히 현지조사 경험이 풍부하고 연구업적이 두드러진 학계의 중진들이라고 하더라도 해당 출연종목을 현지에서 조사한 일이 없으면 그 작품이 어떻게 왜곡되고 보기 좋게 꾸며졌는지 알아내기 어렵다. 그런데 하물며 조사경험도 적고 학문적 업적도 뒤떨어진 사람들이 심사를 하게 되면, 그 결과가 어떻게 하는 것은 불을 보는 듯하다.

중요한 것은 그런 역량 있는 심사위원이 위촉되어야 경연대회에서 작품을 조작하거나 왜곡시키는 폐단을 처음부터 차단시킬 수 있다. 입상을 목적으로 심사위원의 눈을 속이는 작품이 다시는 출현하지 못하는 풍토를 조성해야 할 책임 역시 심사위원들에게 있기 때문이다.

7. 일회성 지원제도의 문제

경기민속예술제가 태동할 당시에는 입상한 작품에 대하여 일정한 시상금이 제공되는 시상제가 운영되었다. 이 제도가 상당 기간 동안 지속되다가 일회성 상금으로 줄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전승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지원해 주는 쪽으로 시상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여론이 일자 시상금 대신 매년 전승 지원금을 제공하는 쪽으로 바뀌게 되었다.

그리하여 매년(이후 격년) 열리는 민속예술제 대상 및 최우수상 수상작에 대하여 전국민속예술축제 출전 자격과 함께 600만원(도비 300, 시군비 300만원)의 전승사업 지원금을 지급하였다. 그러나 2014년 지원제도가 변경되면서 2015년부터는 대회 입상작 10팀을 선발하여 전승교육 지원금으로 각각 360만원(2018년부터는 3,500만원)씩 대회 이듬해 1회에 한하여 지원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이는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부분이다. 일례로 용인시에서 정월 대보름에 행해지는 달집태우기 놀이인 '삼배울 동해놀이'의 경우, 1994년 경기민속예술경연대회에서 입상한 이후 매년 경기도와 용인시에서 매칭 펀드 방식으로 지원되는 예산으로 20여 년 동안 행사를 재현해 왔다. 그러다 2014년 경기도의 지원제도가 변경되어 지원이 끊기면서 동해놀이가 갑자기 중단되는 심각한 상황에 직면하고 말았다. 물론 2년 후 용인시가 자체적으로 지원을 재개하여 정

상적인 행사가 열리고 있지만, 대부분의 민속행사들은 해당 지역의 공동체적 문화기반이 사라진 상태에서 재정 지원이 없으면 현실적으로 자립이 불가능한 상태이다.

8. 최고상 수상작품의 재출전 문제

현재 경기도문화원연합회에서 주최하는 <경기민속예술제>는 문화관광부에서 주최하는 <한국민속예술축제>의 시도 예선을 겸하고 있다. 즉 <경기민속예술제>에서 최고의 상을 받게 되면 <한국민속예술축제>에 출전할 자격이 주어지는 것이다. 다만 <경기민속예술제>는 1년 단위로 청소년대회와 함께 치러지기 때문에 격년으로 열리는 셈이어서 대상과 최우수상 수상 작품이 매년 열리는 전국대회에 나갈 기회가 주어진다.

그런데 제기되는 문제는 대상이나 최우수상을 받은 작품이 또다시 <경기민속예술제>에 나갈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일반적인 상식으로서는 대상이나 최우수상을 받고 전국대회인 <한국민속예술축제>에 도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고 하면 <경기민속예술제>에는 다시 출전하지 말아야 하고, 출전을 한다고 해도 시범을 보이는 선에서 그 의미를 부여하고 경연의 대상에서는 제외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이다.

민속예술제가 기존에 연회되어 오던 각 지역의 민속예술을 보존하고 전승하는 노력 못지 않게 이미 사라졌거나 점차 사라지고 있는 우리의 소리나 놀이를 발굴 복원하고 그 가치와 의미를 규명하는 계기를 마련한다는 것이 근본 취지이자 목적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해답은 분명하다.

더구나 대상을 수상하면 해당 작품은 대부분 경기도나 각 시·군 무형문화재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다음 항목에서 제기할 문화재 지정 작품의 참가 및 시상 허용 문제가 동시에 제기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9. 무형문화재 지정 작품의 입상 문제

경기도에는 무형유산에 대하여 도에서 지정하는 무형문화재 제도가 있고 각 시·군에서 운영하는 시·군 무형문화재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경기도 무형문화재의 경우 현재 61호까지 지정이 되어 있고, 각 시·군별로는 무형문화재, 또는 향토민속이라는 명칭으로 고유한 민속예술을 문화재로 지정하고 있다.

그런데 경기도나 각 시·군에서 이미 무형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는 작품이 <경기민속예술제>에 출전하여 일반 작품들과 경연을 벌일 수 있는가 하는 문제도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

현재 무형문화재 지정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경기도나 각 시·군의 관련 법규를 보면 일정한 조건과 자격을 갖추어 무형문화재로 지정이 되면, 해당 무형문화재의 보호와 육성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확보하여 전수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때문에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민속예술 작품들은 당해 종목의 전수교육 용도로 해당 지자

체의 보조금을 받고 있으며, 일부 여건이 좋은 무형문화재의 경우에는 자체 전수관을 운영하고 있기도 하다.

그런데 사라지거나 명맥만 유지하고 있는 민속원형을 어렵게 발굴하여 민속과 관련 없는 생업에 종사하는 주민들을 밤마다, 또는 주말에 동원하여 마을회관이나 학교 운동장을 빌려 단기간 연습하고 민속예술제에 출전한다면 과연 경쟁이나 될까?

무형문화재로 지정되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그 작품성이나 민속적 가치를 인정받고 있는 것이며, 게다가 지자체의 보조금을 지원받아 상시적인 전수교육을 통해 체계적으로 훈련된 인적 자원까지 확보된 상태라면, 이는 프로나 마찬가지로이다.

즉, 프로와 아마추어의 경쟁인 셈인데, 운동경기에서도 프로는 프로끼리 경쟁해야 하고 아마추어는 순수한 아마추어끼리 정정당당히 경쟁해야 하는 것이 스포츠 정신이다.

II. 문제의 해결 방안

이상에서 제기한 민속예술제의 문제점들은 상당히 오래 전부터 제기되어 오고 있는 한계점이므로 쉽게 해결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그럼에도 이를 제기하는 것은 함께 공유하고 고민함으로써 문제 해결의 방안을 함께 마련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사실 앞에서 나열한 문제의식 속에는 이미 문제 해결 방안이 내포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문제점에 대한 글을 읽으면서 동시에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할지를 많은 분들이 감지하고 있을 줄 믿는다. 때문에 토론회 현장에서 진지한 의견을 나누며 문제점들에 대한 해결 방안을 검토하기로 하고, 다만 몇 가지 중요한 사안에 대하여 필자의 생각과 전문가들의 입장을 빌어 해결방안을 제시할까 한다.

먼저 민속예술의 원래 모습을 복원하는 방안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한다. 사실, 민속예술제에서 높은 상을 받았다고 하여 그것이 원형에 충실할 것이라고 단언할 수도 없고, 또 지역에서 본디 양식대로 전승될 것이라고 전망할 수도 없다. 어느 민속이든 경연대회를 염두에 두고 이루어지는 작품은 준비시간을 포함하여 30분에 걸쳐 민속을 압축하거나 일부만 보여주기 위해 연출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오랜 연습을 거쳐 입상까지 하게 되면, 경연대회에서 변칙적으로 보여준 양식이 그대로 민속으로 굳어지게 되어 엉뚱하게 전승될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경연대회의 심사가 이원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한 차례는 현지에서 마을의 사정에 맞게 출연 종목이 본디 양식대로 온전하게 재현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민속지나 향토지를 근거로 세밀하게 관찰하고 면담하며 심사하는 일이며, 그것을 바탕으로 경연대회에서 제한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부분만 지금처럼 진행하도록 하고

이를 심사하는 방안이다.

그런가 하면 민속예술제에 참가하기 전 자체적으로 철저한 고증을 거치게 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지역에서 민속예술제 참가 신청을 할 때 해당 작품의 고증자를 명시하게 되어 있다. 그런데 실제로는 고증과 관련된 자료나 고증내역을 요구하지 않으므로 지극히 형식적으로 고증자를 선임하는데, 일정한 기준을 정하여 해당 분야 전문가를 위촉하게 하고 적어도 해당 작품에 대해서만큼은 고증자의 명예를 걸고 철저한 고증을 거칠 수 있도록 제도화 하는 방안이다.

그리하여 반드시 출전 신청 시 해당 작품에 대한 자세한 민속지·향토지를 첨부한 고증 자료를 함께 제출하도록 하여, 출연 작품뿐만 아니라 고증 자료도 함께 심사하도록 해야 한다.

다음은 심사위원의 자격 요건과 선정 방안에 대해서 생각해 보자. 먼저 믿을 만한 자질을 갖춘 민속예술 전문가를 심사위원으로 위촉하기 위한 방안으로, 다음 네 가지 기준에 의하여 심사위원의 자질을 검증할 필요가 있다.

①민속학의 학문적 역량이 저서와 논문을 통해서 객관적으로 입증되어 있는 학자인가. ②민속학자로서 전공 분야가 민속예술이며 민속예술에 관한 한, 독창적 연구 성과를 올리고 있는가. ③민속예술 작품을 널리 현지 조사하여 보고하고 체계적인 민속지를 작성한 경험이 풍부한가. ④실제로 민속예술 작품을 고증하여 민속예술경연대회에 발표한 경력이 있고 입상 실적이 있어 그 역량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가. 등이다.

가장 바람직한 자질의 심사위원은 위의 네 가지 질문에 모두 긍정적으로 답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춘 사람이지만 현실적으로 그런 조건을 모두 갖춘 사람이 없다면, 이론적인 역량으로서 가)와 나) 가운데 하나의 자질을 갖추고, 현장론적 경륜으로서 다)와 라) 가운데 하나의 자질을 갖추고 있는 사람이라면 심사위원으로 참여해도 좋으리라 생각한다.

그러나 누가 이러한 자질을 고려하여 심사위원을 선정하는가 하는 데 따라서 그 선정이 객관성을 유지할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다. 정실에 치우치면 이 기준을 자의적으로 적용하여 긍정적 평가를 내릴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주최 측에서 임의로 심사위원을 선정하고 위촉할 것이 아니라 일정한 기준을 제시하는 가운데 경기연구원, 민속학회, 또는 민속예술 관련 전문 기관에 심사위원 추천을 의뢰하고, 공동으로 추천된 사람들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일 수 있다.

이번에는 입상 작품에 대한 지원금과 관련된 문제를 논의해 보자. 민속예술제에서 좋은 성적으로 입상을 하고 민속예술을 그야말로 본디 양식대로 고스란히 현장에 되살려 놓았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계속해서 그와 같이 전승되리라 장담하기는 어렵다. 뿌리는 내렸지만 토양이 갖추어져 있지 않고 거름이 주어지지 않으면 온전하게 성장할 수 없기 때문이다. 가령 뿌리를 내릴 때 듬뿍 거름을 주었다고 성장이 보장되는 것도 아니다.

현재와 같이 매회 입상작 10팀에 대하여 전승교육 지원금 350만원을 일회성으로 지원하는 것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하는 것이다. 지원금을 수령한 당해에 한해서는 재현이 가능할지 몰라도 지속적으로 유지되기도 어렵고 그것이 지역에 뿌리를 내리기는 더더욱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앞에서 지적했듯이 오늘날 도시화·산업화를 겪으며 공동체적 문화기반이 무너진 상태에서 꾸준한 재정 지원이 없으면 민속예술은 도저히 살아남기가 불가능한 환경이다.

그러므로 현재의 1회성 전승지원 제도를 2014년 이전처럼 지속적인 지원으로 변경하되 무기한 지원이 아니라 5년 단위로 재평가를 받는 방식으로 전환하여 지속성 여부를 판단하는 변화가 필요하다. 또 현재와 같이 10개의 작품을 선발하여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매회 2개, 또는 3개 작품을 엄정하게 선발하는 방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물론 시상 팀을 줄이라는 것이 아니다. 시상은 하되 지원금 수혜를 줄여 민속예술의 지속성을 담보하는 실효성을 확보하자는 것이다.

이외에 공설 운동장이나 실내 체육관 등 한정된 공간에서 이루어짐으로써 민중이 삶의 현장에서 매개하고 향유하는 민속예술의 특성을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경연 공간의 한계성 문제, 대상을 받은 작품이 또다시 민속예술제에 나가 경연을 벌이는 것이 사라져 가는 민속예술의 발굴과 전승이라는 근본 취지에 부합하는지의 문제, 경기도나 시·군 무형문화재로 지정되어 전승교육을 위한 보조금까지 지원받는 작품에 민속예술제 참가 자격을 부여하고 시상까지 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하는 문제 등은 여기서 별도로 거론하지 않기로 한다.

Ⅲ. 맺는 말

경기도내 31개 시·군이 참여하는 경기민속예술제는 경기도의 유일한 민속예술경연대회로, 각 지역에 전승되어 오거나 새롭게 발굴된 민속예술을 한 자리에서 만날 수 있고 서로에게 발전적 모티브를 제공하는 좋은 기회이다. 오늘날 사회가 다양화되고 산업구조가 크게 변화되면서 선조들의 삶과 늘 함께 해 왔던 수많은 문화 요소들이 점차 사라지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에서 민속예술제는 우리 전통문화 창달과 민속예술에 대한 새로운 조명이라는 측면에서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럼에도 앞에서 제기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은 발전적 미래를 위해서 극복해 나가야 할 매우 중요한 요소들이다. 특히 행사 운영방식과 심사 및 지원 방식의 개선이 그동안 민속예술제가 안고 있었던 민속의 본질이 왜곡되고 단절되는 것을 바로잡고 행사의 본래 목적을 실현하는 총체적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글을 마무리하는 입장에서 시종 머릿속을 맴돌던 생각 하나를 소개할까 한다. 민속예술제의 심사기준으로 보통 원형성과 예술성을 떠올리게 되는데, 이 둘의 관계는 사실상 이율배반

적이라는 사실이다. 민속은 원형성이 매우 중요하지만 경연을 위해서는 예술성을 발현할 수 있는 개변과 연출이 불가피하고, 따라서 본래 모습, 즉 원형의 왜곡이라는 논란 또한 피할 수가 없다. 그럼에도 원형성과 예술성을 동시에 요구하고 있다면 이는 앞뒤가 맞지 않는 셈이다.

그러므로 경연대회에 참여하는 주체들은 심사 기준에 부합하는 예술을 창조하되, 자신의 창조성을 내세우지 못한다. 그들이 자신의 예술을 예술로 인식하거나 자신의 창조성을 내세우는 순간, 그것은 민속예술의 정의에 위배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참에 민속예술제와는 별도로 민속예술의 원형을 바탕으로 창의적 예술성을 제대로 구현하는 동시에 시대적 트렌드를 발현할 수 있는 〈민속예술 콘텐츠 경연대회〉를 시도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 보게 된다.

2-3-2. 발제문 2

경기도 민속예술제 발전을 위한 실천적 대안모색

임 웅 수 (경기도 무형문화재 총연합회 이사장)

1. 머리말

〈목 차〉

1. 머리말
2. 경기도 민속예술축제에 대하여
3. 경기도 무형문화재의 실태와 발전적 방향
4. 함께 생각하기
5. 세계무형유산 엑스포 제안
6. 맺는말

경기도 문화원 연합회에서 주최하는 경기도 민속예술제 발전·방안에 대한 발제다. 경기도 문화재 실태 및 발전·방안에 대한 발제와, 경기 무형문화재 실태 및 발전 방안에 대한 발제를 하라는 연락을 받고 많은 시간 고민을 하였습니다. 지난 20여년간 현장에서 민속예술을 체험하고 지켰던 사람으로 많은 문제점에 대한 이야기를 했지만, 실제 발표를 하려하니 보통 고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민속예술제와 무형문화재의 발전 방안에 대한 의미있고 실질적인 대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학술 행사를 갖게 되어 다행입니다만, 어디서부터 무엇을 말씀드려야 할지 고민입니다.

경기 민속예술제는 발굴 과정과 원형보존이라는 문제에 대하여 알아보고 발전 방향에 대하여 이야기 해보려 합니다.

그리고, 경기 무형문화재에 대한 것은 어떻게 문화재로 지정되며 지정된 문화재에 대하여 정책 당국의 정책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깊이 있게 진단하고 전승 당위성을 확인하고 사회적 합의를 통한 발전과 진흥에 관한 방안은 무엇인지 찾아보려고 노력했습니다.

이번 행사가 의례적이고 상투적인 토론회가 아니라 경기 민속예술제와 경기도 무형문화재의 현재를 가감 없이 진단하고 현실적인 관점에서 대안의 단초를 찾아내는 계기가 되어서 국적 없는 문화 쓰나미 속에도 자랑스러운 우리의 전통문화유산을 어떻게 지키고 이어갈 것인가에 대한 희망을 가져다주는 귀중한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학철부어의 심정으로 발제문을 쓰려합니다.

2. 경기도 민속예술 축제에 대하여



경기도에서는 민속예술의 보존과 전승 및 발전에 대한 방안으로 1999년부터 2019년 현재에 이르기까지 청소년 대회와 성인 민속예술제를 격년제로 운영하며 31개 시·군에서 선발된 대표 민속예술 작품의 경연 형식을 띠고 있다. (경기도 민속예술축제) 경연 종목은 민속놀이 민속극 민요 민속무용 농악놀이 등 5개 분야로, 한국 민속예술 축제에서 더해진 생활문화

는 빠져있다. 경기문화원 연합회에서 주최하는 경기 민속예술 축제를 통하여 선발된 대상 팀과 최우수 팀은 다음 연도와 그 다음 연도에 경기도를 대표하여 한국민속예술 축제에 출전하는 자격을 부여받아 전국대회에 출전하는 것으로, 한국민속예술 축제에서 상위 입상하는 민속놀이 팀은 지방문화재 또는 국가 문화재로 승격되는 중요한 역할을 해왔던 것이다.

그래서 여기가 중요한 것은 말이 필요 없는 것으로 원칙을 가지고 경기도 민속축제를 운영해야하며 민속놀이의 원형과 문화를 잘 이해하여 진행 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지난 대회에서 입상을 하였던 작품이 다음 대회에서 동일한 작품으로 출전하였을 때 경연 입상에서 제외된다는 것은 모순이며 전통 민속예술 축제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 방식으로 규정을 바꿔야 한다고 생각 된다. 특히, 경기도에서 많은 민속예술작품이 발굴되어 더 이상 발굴할 만한 작품이 없을 정도로 발굴되었다면 더욱이 그러해야 할 것이다.

또한, 민속놀이는 많은 수의 인원이 모여서 하는 것으로 동일한 사람이 매년 같이 할 수 없기에 더욱이 그래야만 할 것이다.

그리고 경기도와 문화원 연합회에서는 행사가 끝나면 우수전통 민속의 작품이 더욱 활성화 되고 전승 보존될 수 있도록 지원 정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원했다라는 희미한 흔적만을 만들어 전승한다고 하는 것은 어려운 현장의 종사자들에 고민만 안겨주는 지원정책으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경기 민속예술 축제 진흥법을 제도와 하여 우수 전통 민속놀이의 지속적인 지원 정책으로 어제의 흔적을 오늘에 이어 내일에 전하는 미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현 지원 체계는 소극적임)

그리고 경기 민속예술 축제에 현장은 그들만의 리그로 관객이 없는 남북 축구를 보는 듯하다. 민속놀이를 하는 주최자로서 그리고 상숙자로 무색하기까지 하다. 오천년 국가의 역사와 함께하는 민속놀이로써 시민과 함께 나누고 소통하는 흥과 신명의 축제가 되기를 바래본다.

3. 경기도 무형문화재의 실태와 발전적 방향

무형의 자산인 무형문화유산은 음악, 무용, 연극, 의식, 무예, 음식, 공예, 놀이 등으로 일상생활의 중심에서 5천년역사와 함께 세대 간의 공감을 이루며 이어져온 창조적 영감의 보고인 동시에 우리민족의 정서적 바탕을 이루는 문화정체성의 원천이자 할 수 있다.

문화원형의 개념과 원형 보존을 목적으로 태어난 무형문화유산 보전·전승에 대한 장치를 문화재보호법이라 할 수 있다. 문화재의 보존·관리를 위한 최초의 법령은 1961년 일제강점기에 제정된 조선총독부령 제 52호의 고적및유물보존규칙을 들 수 있다. 이 법령은 그 보존의 대상을 고적과 유물뿐만 아니라 명승과 천연기념물에까지 확대되어 1933년 조선총독부령 제 6호인 조선보물고적명승천연기념물보존령으로 제정되었다. 또한 이 보존령은 보물지정제도를 신설하여 조선총독이 지정할 수 있게 하였다.

우리나라 문화재보호법은 해방과 전쟁으로 문화유산의 소멸을 경험한 뒤 1962년에 제정되고 1964년 시행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시 기	구 분	주요내용
제1기 1945-1961	정책제정의 준비기	1945년 해방 이후부터 1962년 1월 19일 문화재보호법이 제정·공포되기 이전까지를 준비기로 볼 수 있다.
제2기 1962-1969	무형문화재지정제도의 성립	문화재보호법이 공포된 이후부터 1970년대 말까지로 일제강점기의 제정 법률인 조선보물고적명승천연기념물보존령을 폐지하고 우리 손으로 만들어진 문화재보호법이 공포되었다.
제3기 1970-1982	보유자인정제도의성립과 추진	보유자인정제도가 시작된 1970년 8월 이후부터 국가주도에 의한 전수교육제도가 시작된 1982년 말까지의 시기가 이에 해당한다. 1964년 12월에 중요무형문화재 제3호 꼭두각시놀음이 지정되었다.
제4기 1983-1989	전수교육제도의 성립과 선양	전수교육제도가 시행된 이후부터 80년대 말까지로 서울올림픽 등에 힘입어 무형문화재와 전통예술인들의 사회적 지위가 상승 되었다.
제5기 1990-1999	전수교육 자율화	90년대로서 무형문화재 전승의 내적, 외적 변화바람이 일면서 시대적으로 정책의 변화가 요구되는 시기였다. 1994년 이수자에 대한 관리감독권한이 가예능보유보유자와 보존회에 넘겨졌다.
제6기 1999-2001	개방형 정책추진	새로운 2000년대의 무형문화재 정책개혁 발표 1999년 12월부터 새 정책의 추진이 침체기로 접어든 2002년 전반기 이전까지.
제7기 2002-현재	개혁정책의 새로운 모색	2002년에 접어들면 기존 몇몇 보유자들의 기득권적 문화권 수호운동의 전개와 함께 개혁정책이 침체기로 접어들게 된다.

자료: 문화재보호법, 재구성.¹⁾

무형문화유산은 그 존재의 속성상 끊임없이 전승되어야만 존재할 수 있다. 무형문화유산이 현재에 지속된다는 것은 계속적인 교육이 진행되었다는 말과 같다. 무형문화의 전승이란 집단과 집단속에서 학습을 통해서 공유되는 것이다. 이러한 문화 전승에 있어 물질문화는 그

1) 양근수(2007), 무형문화유산 교육프로그램 연구, 중앙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6

물질에 대한 보호만으로도 일정부분 보존적 위피를 취한다고 할 수 있으나 행위나 언어는 전승에 있어 한계를 보인다. 특별히 기록되거나 형태화되지 않는 한 온전한 보존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이러한 무형문화유산의 보존의 매우 어렵기 때문에 이러한 무형문화 유산의 보존의 준거는 세 가지로 규정된다. 우선 실제 상황에서 전승되고 있는 것이다. 다음 가장 온전한 형태를 갖추고 있는 것과 끝으로 상대적으로 가장 오래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국가무형문화재 지정 심의기준은 다음과 같다.

첫째, 민족생활의 변천과 발달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이다.

둘째, 발생연대가 비교적 오래고 그 시대의 특색을 지닌 것이다.

셋째, 형식과 기법이 전통적인 것이다.

넷째, 학술상 가치가 특출한 것이다.

다섯째, 학술연구상 귀중한 자료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여섯째, 향토적으로나 그 밖의 특색이 현저한 것이다.

일곱째, 소멸될 우려가 많아 문화적 가치가 상실되기 쉬운 것으로 규정되고 있다.

이렇게 문화재청과 문화재위원의 지정심의를 거친 무형문화재 보존회는 보존을 위한 전승의 역할을 병행하게 된다. 따라서 무형문화유산의 보존을 위한 전승교육은 기·예능보유자를 중심으로 다음과 같이 이루어지고 있다. 전수조교는 이수자 중에 뛰어난 기량을 가진 사람이 선발되며, 기·예능보유자를 도와 전수생과 이수자에 대한 교육을 시키고 있다.

이수자는 전수생 교육을 받은 사람 중에 그 해당 분야의 전문가와 무형문화재 보유자가 심사하여 그 기능 또는 예능이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판단하면 문화재청이 이수자로 선정한다. 또한 전수자 교육으로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는 전수자를 발굴하여 전수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참고 경기도 무형문화재 지정 현황

• 종목(68개), 보유자(56명), 보유단체(21개), 전수교육조교(39명)

지정 번호	구분		종목명	지정일	보유자		전수교육 조교	세부구분	비고
					개인	단체			
1	기능	개인	계명주	87. 2.12	최옥근		이창수	음식	남양주
8	예능	개인	승무, 살풀이춤	02.11.25	김복연		신현숙 최선라 이영훈 (해지)	무용	수원
10	기능	개인	방자유기장	92. 6. 5	김문익		이춘복	공예기술	군포
11	기능	개인	조선장	93.10.30	김귀성		-	공예기술	하남
12	기능	개인	군포당정옥로주	94.12.24	유민자		안남순 (해지)	음식	안산
13	기능	개인	남한산성소주	94.12.24	강석필 (작고)		강환구	음식	광주
14	기능	개인	소목장(가구)	06.03.20	권우범		안규열	공예기술	남양주
14-1	기능	개인	소목장(창호)	95.08.14	김순기		안규조	공예기술	수원
14-2	기능	개인	소목장(백골)	02.11.25	김의용		김희준	공예기술	광주
15	예능	개인 단체	구리갈매동도당굿	95. 8. 7	조순자, 허용업	보존회	허재훈	놀이·의식	구리
16	기능	개인	지장	96.12.24	-		장성우	공예기술	남양주 *보유자: 가명
17	기능	개인	생칠장	97.10.13	송복남		송경주	공예기술	안양
18	기능	개인	옥장(장신구)	97.09.30	김영희			공예기술	파주
18	기능	개인	옥장	97.09.30			김성운	공예기술	안산
19	기능	개인	입사장	97.10.13	이경자		-	공예기술	안성
20	예능	개인 단체	광명농악	97. 9.30	임웅수	보존회	정구환	음악	광명
21	예능	단체	안성남사당놀이	97. 9.30		보존회	이상철 성광우	연극	안성
22	예능	단체	고양송포호미걸이	98.04.13		보존회	조경희 김기성	음악	고양
23	예능	개인 단체	김포통진두레놀이	98.04.06	조문연 (16.11.8)	보존회		놀이·의식	김포
24-1	기능	개인	나전칠기장(칠장)	98. 9.21	배금용		배광우	공예기술	성남
24-2	기능	개인	나전칠기장(나전장)	98. 9.21	김정렬		김영호	공예기술	양주
25	기능	개인	자수장(민수)	98. 9.21	신상순		-	공예기술	용인
25-1	기능	개인	자수장(궁수)	98. 9.21	황순희		-	공예기술	남양주
26	기능	개인	벼루장	98.09.21	신근식		김종선	공예기술	이천
27-1	예능	개인 단체	상여 · 회다지소리 (양주)	98.09.21	황정섭	보존회	김진명 조영석	놀이·의식	양주
27-3	예능	단체	상여 · 회다지소리 (양평)	98.09.21		보존회	-	놀이·의식	양평

지정 번호	구분		종목명	지정일	보유자		전수교육 조교	세부구분	비고
					개인	단체			
27-4	예능	단체	상여·회다지소리 (고양)	17.6.16.		보존회		놀이·의식	고양
28	기능	개인	단청장	99.10.18	김종욱		-	공예기술	수원
29	기능	개인	화각장	99.10.18	-		한기덕	공예기술	성남
30-1	기능	개인	악기장(북메우기)	99.10.18	임선빈		임동국	공예기술	안양
30-2	기능	개인	악기장(현악기)	99.10.18	최태순		최정욱	공예기술	용인
31-1	예능	개인	경기소리(휘몰이잡가)	16.11.8	김권수			음악	고양
31-2	예능	개인	경기소리(간잡가)	99.10.18	임정자		이윤경	음악	과천
33	예능	개인 단체	파주금산리민요	00.08.21	추교전	보존회	추교현 조흠승	음악	파주
34	예능	단체	안성향당무	00. 8.21		보존회	유청자	무용	안성
35	예능	개인 단체	포천메나리	00. 8.21	이영재	보존회	류태균 김영오	음악	포천
36-2	기능	개인	대목장(도편수)	01.11. 5	장효순		장원희	공예기술	성남
37	기능	개인	웅기장	00.11.25	-		김성호 김용호	공예기술	여주
38	예능	개인	풀피리	02.11.25	오세철		-	음악	포천
39	기능	개인	조각장	04.01.05	곽홍찬		-	공예기술	부천
40	기능	개인	서각장	04.01.05	이규남		-	공예기술	평택
41	기능	개인	사기장(청화백자)	05.02.07	한상구		한윤희	공예기술	여주
41-1	기능	개인	사기장(백자)	05.02.07	서광수		-	공예기술	이천
41-2	기능	개인	사기장(분청사기)	11.06.17	박상진		-	공예기술	광주
42-1	기능	개인	석장(조각)	05.2.7	박찬봉		김영탁	공예기술	광주
42-2	기능	개인	석장(석구조물)	13.12.31	임동조		-	공예기술	구리
43	기능	개인	금은장	05. 2. 7	이효준		이은	공예기술	고양
44	예능	개인 단체	과천무동답교놀이	05.02.07	오은명	보존회	-	놀이·의식	과천
45	기능	개인	주물장	06.03.13	김종훈		김성태	공예기술	안성
46	예능	개인 단체	양주농악	06.03.20	황상복	보존회	-	음악	양주
47	기능	개인	주성장(불구)	08.3.24	이완규		-	공예기술	용인
47-1	기능	개인	주성장(범종)	08.3.24	정동후		-	공예기술	용인
48	예능	개인 단체	평택민요	09. 3.19 17.6.16 17.6.16 17.6.16	이민조 여영애 이익근 인원환	보존회	-	음악	평택
49	기능	개인	목조각장	10.03.02	한봉석		-	공예기술	남양주
50	예능	단체	이천거북놀이	10.06.08		보존회	-	놀이·의식	이천
51	기능	개인	양태장	10.06.08	장정순		-	공예기술	과천
52	예능	단체	퇴계원산대놀이	10.08.02		보존회	-	놀이·의식	남양주
53	예능	개인 단체	경기검무	11.06.17	김근희	보존회	-	무용	구리

지정 번호	구분		종목명	지정일	보유자		전수교육 조교	세부구분	비고
					개인	단체			
54	예능	개인	경기송서(송서·울창)	11.12.6	한병옥 (작고)		이석기 (16.11.8)	음악	동두천
55	예능	단체	동두천민요	13.12.31		보존회	—	음악	동두천
56	예능	개인	경기고깔소고춤	15.11.20	정인삼		—	무용	용인
57	기능	개인	불화장	15.11.20	이연옥		—	공예기술	수원
58	예능	단체	젓머리성황제	15.11.20		보존회	—	놀이의식	안산
59	예능	단체	시흥군자봉성황제	15.11.20		보존회	—	놀이의식	시흥
60	기능	개인	야장	16.11.8	신인영		—	공예기술	안성
61	예능	개인	자리견이	16.11.8	정영도		—	놀이의식	부천
62	기능	개인	환도장	17.11.21	홍석현		—	공예기술	고양
63	기능	개인	지화장	17.11.21	이주환		—	공예기술	평택
64	예능	단체	경기시나위춤	2018.		보존회			

4. 함께 생각하기

경기도의 무형문화재정책은 일반적으로 모법인 무형유산법을 준수하며, 문화재청의 협의를 득하여 국가문화재정책 방향과 같은 결에서 운영된다고 볼 수 있다. 경기도 무형문화재는 1987년 지정을 시작으로 2017년 현재, 기능 38개 종목과 예능 27개 종목으로 총 65개 지정 종목, 64명의 보유자가 지정되어 있으며, 지속적인 무형문화재 발굴과 심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무형유산의 원형보존을 위한 전승행위들은 입에서 입으로, 손에서 손으로, 마음에서 마음으로 교수되는 구전심수식 교육방법이 대다수 이고, 전승행위의 주체는 보유자 또는 전수교육조교가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의 생명과 능력에는 한계가 있어 갑작스럽게 기억력이나 기력의 상실, 또는 사망등으로 기·예능의 전승기회를 놓쳐 원형유지에 실패할 수도 있다.

경기도의 무형문화재정책에 있어서 학술회의, 공청회 등을 통해 전승주체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다양한 노력이 진행되고는 있지만 보유자를 비롯한 보존회의 의견이나 학계를 비롯한 전문가 집단의 꾸준한 제도개선 요구에도 불구하고 즉각적인 조치나 제도개선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현실에서 혹시, 우리가 이들의 소리를 너무 정책적이거나 규정된 틀에서만 바라보고 있는지 점검해보기 위해 원형보존의 주체인 전승자들의 구술을 통해 서로가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다음의 내용은 이명선의 연구 중 주제에 맞는 구술들을 재구성한 것임을 밝힌다.²⁾

2) 이명선(2017), 중요무형문화재 정체성 형성에 관한 연구: 중요무형문화재 구술사례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장의 구술은 모두 이명선의 연구내용으로 소중한 자료에 고마움을 표한다.

● 누가 이을 것인가. (인터뷰)

전수자에서 이수자, 전수교육조교로, 보유자로 이어지는 전승승급과정에서 자잘한 문제들이 발생되고 있지만 전승자 대부분이 가장 중점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은 전수교육조교 선정과 보유자 선정에 따른 갈등일 것이다. 평소 일반전승자들과 전문가집단 대부분은 보유자에게 권력이 집중되어, 보존회 장악은 물론 가계전승을 꾀하는 등 다양한 무리수에 대해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을 보이고 있지만 다음 구술에 대해 같이 생각해 보자.

저는 워낙 세습이라는 게...사람들이 나를 너무나 불쌍하게 생각했어요. 주위사람들이...교수님이 세 딸밖에 모르는데 너는 아무리 노력해도 안될 건데...나는 그런 말을 많이 들었고 그런 말들이 너무 싫더라고요.... 정말 그때가서 우리 애들이 제일 잘한다하면 그렇지만 지금 내가 보기에는 우리 애들이 제일 잘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걸 분명히 하고 싶어요... 아직까지는 두고 보는 거지요.

아들들을 후계자로 시키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저는 워낙 세습이라는 게...그런데 그때 가서 우리 애들이 제일 잘 한다면 그렇지만 내가 보기에 우리 애들이 제일 잘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걸 분명하게 하고 싶어요...

아들이 대학을 졸업한 다음에 취직을 하려고 하는데 그때 취직을 하면은 한 달에 한 30-40만원 정도 받았을 거예요. ... 그거 받고 들어가면 영원히 그 자리에붙어서 있어야만 하니까 차라리 내 뒤를 이어서 네가 일을 같이하자. 그래가지고 주저 않았어요. 그게 한 30년 되었지... 같이 오늘날까지 일을 하고 있고... 전수조교로 되어가지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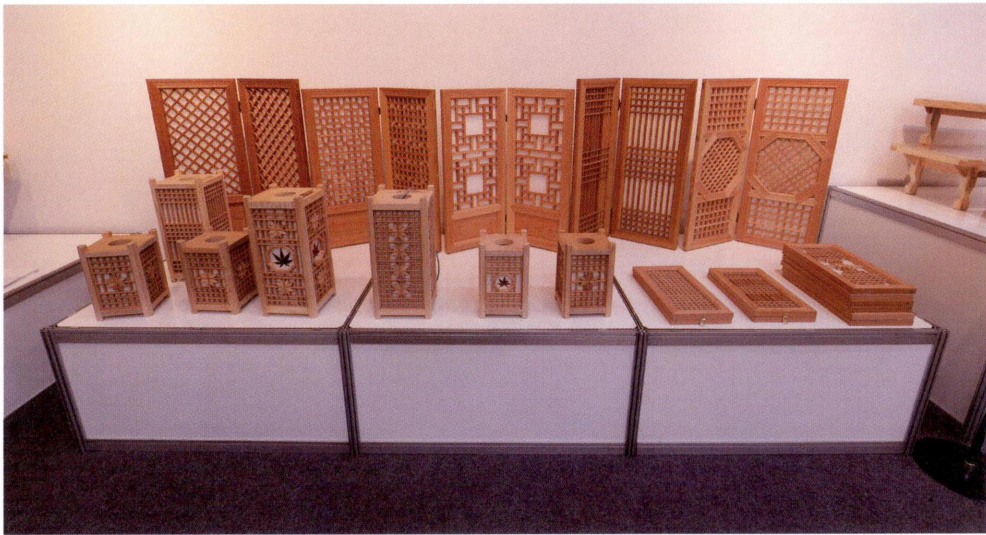
2남 1녀 중 가운데가 딸 아이거든요. 개가 지금 우리 이수자로 되어 있어요. 초등학교 다닐 때부터 나하는 걸 보고 웬만한 건 또 했어요. 중학교 가서는 모시 짜는 것도 또 짜대...고등학교 졸업하고 직장을 다닐 때도 모시를 짰어...이수자를 선출하라고 하셔서 그런데 (동네 사람들 중에서)이수자할 사람이 없어. 물어보니 다 앓는대. 그래 우리 애를....

우리 애들이 하잖아요...지금 큰애가 이수자예요...이 공예는요 집에서 본업화로 도와주지 않으면 혼자서 하려면 엄청난 시간이 필요해요. 기능인들의 살아온 흔적들을 보면요 거의 집에 내조가 거기 같이 매달린 사람이 거의예요...딴 사람들은 왔다갔다 이수자, 전수자라고 해도 왔다갔다 즐기면서 취미삼아 배우지만 식구는 보고 배우는 게 반이에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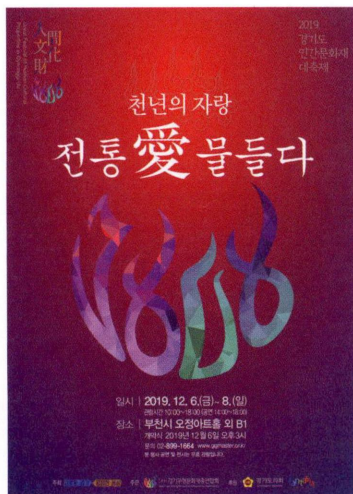
그 분들의 자식들이 있고 또 같은 길을 걸어가지만 저희는 트러블이 없어요. 그리고 그 부분은 저는 늘 감수해요. 저라도 자식을 먼저 챙길테니까... 그래서 무형문화재가 될 때에도 저는 안 한다

고 했어요. 저는 안 해도 된다고... 이수자로서 충분히 좋다고... 저는 정말 인간성 나쁜 사람이 되는 건 싫거든요....

나를 못 잡아 먹겠다고 으르렁거리. 전수교육은 안 시키고 맨날 돌아다니기만하고... 그런데 내가 먼저 인간문화재가 되니 할 말이 없지...그러거나 저러거나 나는 내 할 일만 하면 돼... 기능 보유자가 중심이 되어야지.. 곳을 잘 해야 보유자가 되는 거지 정치를 잘해야 보유자가 되면 안돼지... 그런 걸 국가에서 좀 정리해 주면 좋는데...



5. 세계무형유산 엑스포 제안



부천 오정아트홀에서 2019년 12월 6일부터 8일까지 경기도무형문화재 대축제가 전통에 물들다란 주제로 성황리에 진행되었다. 사단법인 경기무형문화재총연합회의 주관으로 경기도 무형문화재 제1호 계명주를 비롯해 40개 종목의 장인들이 제작한 100여개 제품이 전시됐고 광명농악 등 28개 예능 종목 보유자들의 전통공연이 다채롭게 펼쳐진 미래지향의 성공축제로 평가된다.

또한 국제적인 축제로 발돋움 한 경북 경주시에서 열리는 세계 각국 문화 체험 박람회인 경주세계문화엑스포(Gyeongju Culture EXPO)는 경주와 신라, 가야 문화, 유교문화의 자산을 세계문화와 접목하고 문화관광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1998년 9월 11일~11월 10일까지 ‘새천년의 미소’라는 주제로 열린 제1회 엑스포에는 48개국이 참가했으며, 행사비 140억원이 소요된 2007년에는 33개국 1만 명이 참가했고 140만 2776명(외국인 8만 8999명, 내국인 131만 3777명)이 관람했다.³⁾

최근, 11월 11일부터 12월 3일까지 23일간 열리고 있는 호찌민-경주세계문화엑스포2017 조직위원회에 따르면 현지시간으로 19일 밤 10시까지 총 관람객 201만6000명을 넘어섰고 17일 열린 한국의 국립무용단의 ‘묵향’은 무용극으로는 드물게 호아빈 극장의 2000석 좌석을 꽉 채웠으며, 18일 저녁 열린 ‘한-베 패션쇼’에는 5000여명 이상의 관람객이 찾았고 행사 메인 전시관인 ‘한국문화존’은 다양한 체험으로 관람객을 사로잡고 있다고 밝히고 있어⁴⁾ 국제적인 성공축제가 예상된다 하겠다.

성공축제와 관련하여 드러내고 싶은 또 하나는 지금은 폐지된 부천 세계무형문화유산 엑스포의 부활이다. 부천세계무형문화유산엑스포는 세계의 무형문화유산을 보존, 계승하고, 무형문화유산의 산업적 발전을 도모하는 동시에 문화도시로서의 부천시를 세계에 알리려는 목적에서 기획되었다.

부천시와 경기도가 주최하고 부천세계무형문화유산엑스포 조직위원회가 주관하는 제1회 부천세계무형문화유산엑스포는 2008년 10월 10일부터 10월 30일까지 총 20일간 경기도 부천시 상동 부천영상문화단지 및 상동호수공원 일원에서 개최되었다. 부천세계무형문화유산엑스포는 ‘전통과의 새로운 만남(Reunion with Tradition)’을 주제로 혼(Spirit)·즐거움(Joy)·감동(Impression)의 부제를 담아 아시아, 유럽, 남미 등 20여 국가, 국내외 300여 단체가 참가하여 세계무형문화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켰다.

제 2회 2009 부천세계무형문화엑스포는 2009년 9월 18일부터 10월 7일까지 총 20일간 부천영상문화단지 일원에서 개최되었으며, 주제는 전통과의 새로운 만남(Rendezvous with Tradition)이었다.

제 3회 2010부천세계무형문화엑스포는 2010년 9월 28일부터 10월 12일까지 총 15일간 부천영상문화단지에서 전통을 딛고 미래를 발견하다(부제:미래산업의 DNA를 찾아라)라는 주제로 문화체육관광부, 교육과학기술부, 경기도, 문화재청, 한국관광공사, 유네스코한국위원회,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중요무형문화재기능보존협회,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한국문화원연합회, 한국관광협회중앙회의 후원으로 개최되었다.⁵⁾

일반적으로 무형유산은 전승과 보존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번 장에서는 무형문화유산의 유통과 산업화, 확장성을 위한 세계무형유산 엑스포의 부활을 제안하고자 한다. 경기도는 한양도성을 둘러싸고 있어 조선 500년의 문화를 고스란히 담고 있어 우리 전통문화의 중심적 역할을 해오고 있는 것이 사실이며, 주지하다시피 정조대왕의 숨결이 머물고 있는 수원화성

3) 네이버 지식백과

4) 경북도민일보 11월 22일

5) 네이버 지식백과

은 1997년 UNESCO 세계문화유산으로 선정되어 우수한 우리 문화를 알리는데 커다란 역할을 해내고 있다.

성공축제의 장, 단점과 다양한 시너지에 대한 대해 논하기는 부족하지만 우리 무형문화재 사람들은 세계무형유산 엑스포에서 새로운 희망을 보았으며, 다시 한 번 그날의 영광을 되찾기를 고대하고 있다. 따라서 경기도무형문화재 대축제가 확장되어 UNESCO 세계유산 수원 화성에서 펼쳐지는 세계무형유산 엑스포의 확장성을 기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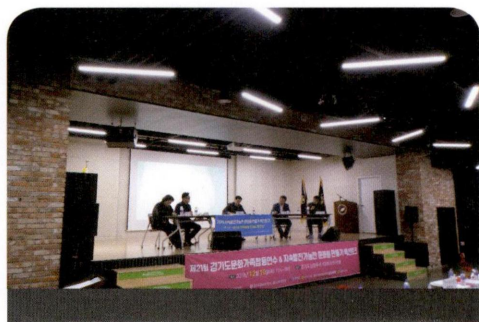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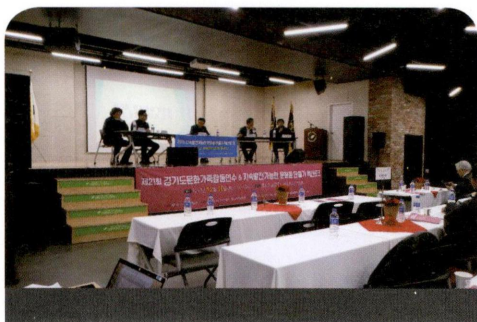
6. 맺는말

경기민속예술제의 발전방안과 경기도무형문화재의 진흥에 대하여 실질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뜻 깊은 자리였습니다. 무형문화재는 말 그대로 무형의 가치를 일깨워주는 소중한 자산입니다. 승무의 우아하고 섬세한 춤사위에는 생로병사의 흐름이 실려 있습니다. 신명난 농악은 풍년을 기원하는 농부의 마음을 전하고 경기민요는 인생의 희·노·애·락을 구성진 가락으로 풀어냅니다. 긴 세월을 이겨낸 형태로 해 아릴 수 없는 아름다움은 무형문화재속에 깊이 묵직하게 담겨져 있습니다. 이를 보존하고 전승하는 것은 우일의 의무인 동시에 권리이기도 합니다.

2019년 경기도 문화원연합회가 주최한 토론회에는 경기도무형문화재를 더욱 많은 도민께 알리고 한걸음 다가서는 소중한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우리 문화재들은 이러한 유·무형의 유산을 더욱 전승 보존하는데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2-4. 토론회 진행 사진





V

제22회
경기도
민속예술제
기타자료

1. 행사사진
2. 홍보물 및 제작물

1. 행사사진

1-1. 개막식



입장 퍼레이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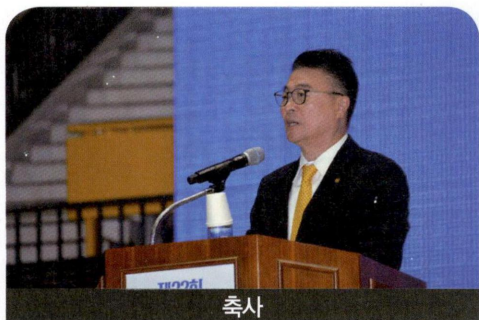
개막공연



국민의례



개회선언 및 대회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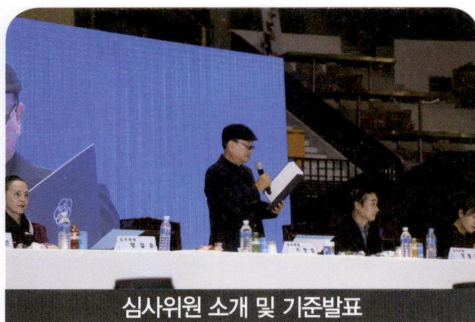
축사



우승기 반납



선수단 선서



심사위원 소개 및 기준발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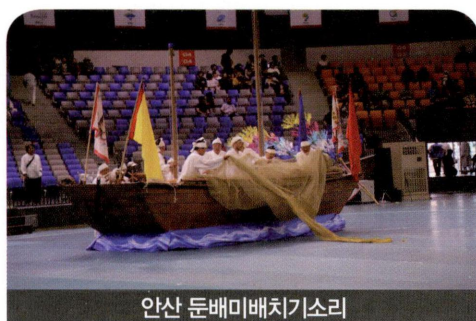
1-2. 경연대회 첫째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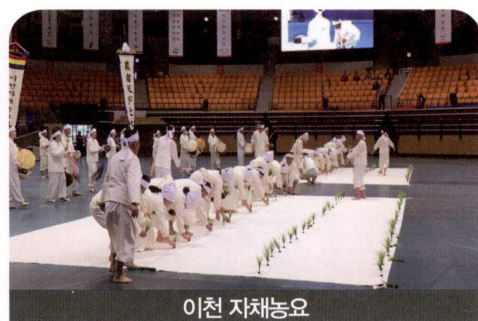
오산 금암동거북놀이



광주 엄미리장승제



안산 둔배미배치기소리



이천 자채농요



양평 두레농악놀이



성남 이무술 집터 다지는 소리



의정부 녹양버들개농요



안양 만안답교놀이

1-3. 경연대회 첫째날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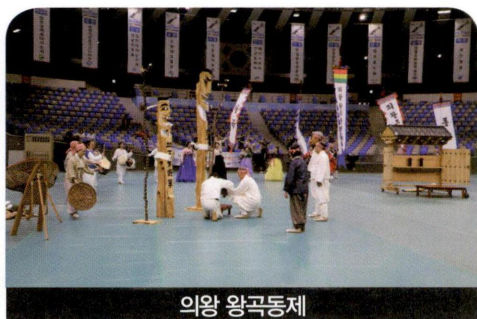
포천 가노농악



가평 풍년기원 기우제와 대동놀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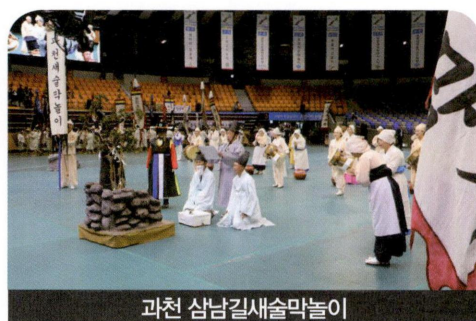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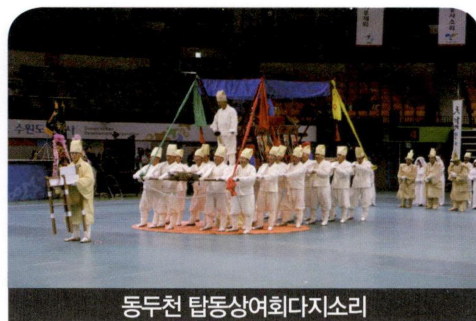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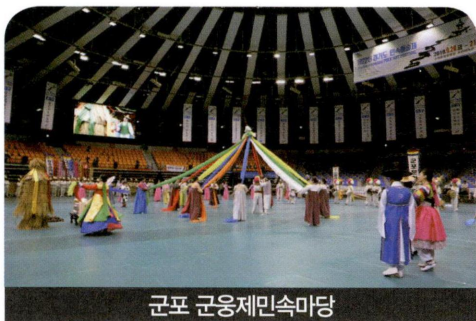
수원 대보름굿



의왕 왕곡동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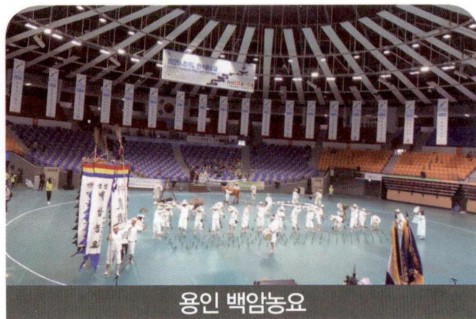
1-4. 경연대회 둘째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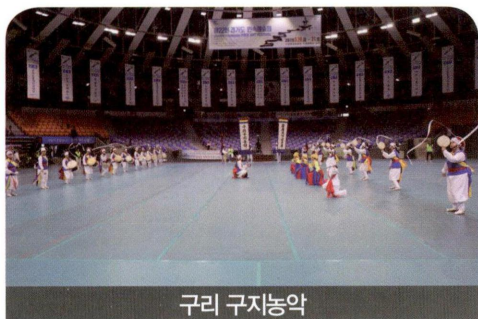
1-5. 경연대회 둘째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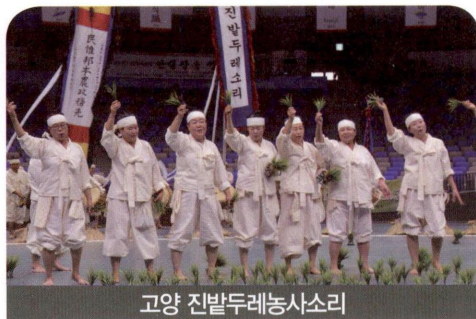
광명 철산리두레농악



용인 백암농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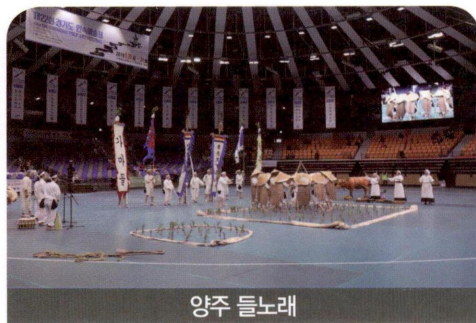
구리 구지농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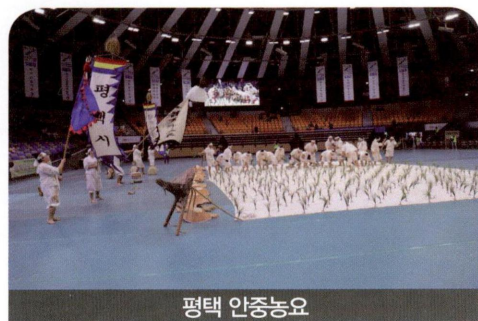
고양 진발두레농사소리



여주 봉산탈춤



양주 들노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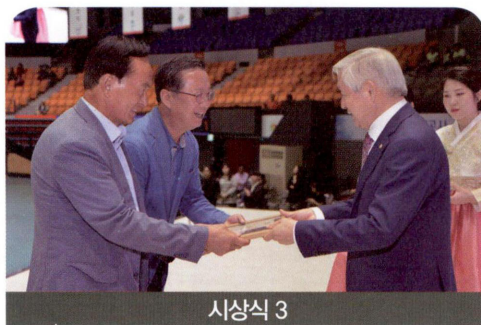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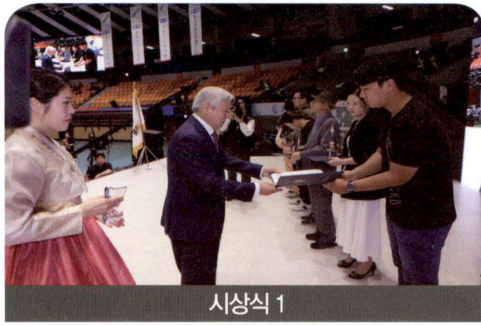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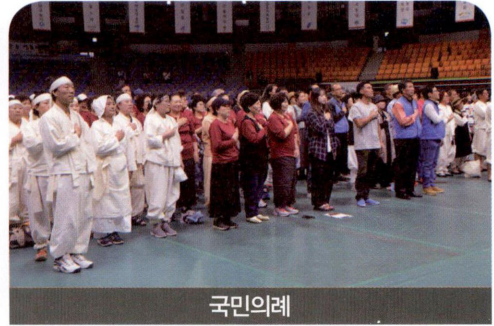


평택 안중농요



시흥 월미농악

1-6. 폐막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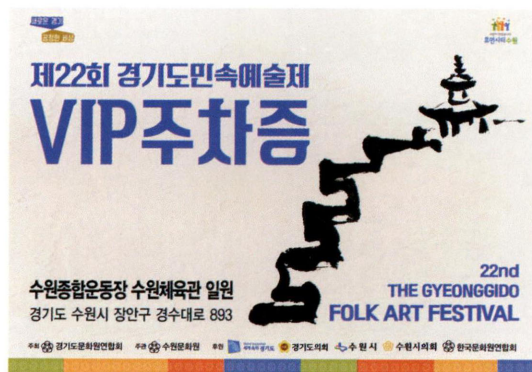


2. 홍보물 및 제작물

2-1. 홍보물 (단위 : cm)



포스터 (43×62)



주차증 (21×14.8)

제22회 경기도 민속예술제

22nd THE GYEONGGIDO FOLK ART FESTIVAL

2019. 9. 20.금 ~ 21.토
경기도 수원종합운동장 수원체육관 일원

주최: 경기도문화원연합회, 후원: 수원문화재단, 후원: 경기문화재단, 후원: 수원문화재단, 후원: 경기문화재단, 후원: 수원문화재단

전단 전면 (21×29.7)

제22회 경기도민속예술제

경연순서

1일차 9월 20일(금)

순서	시간	지역	경연단체명	경연곡명	단체명
1	10:00-10:30	경기도	경기민속예술제위원회	경기도민속예술제	경기민속예술제위원회
2	10:30-11:00	경기도	경기민속예술제위원회	경기도민속예술제	경기민속예술제위원회
3	11:00-11:30	경기도	경기민속예술제위원회	경기도민속예술제	경기민속예술제위원회
4	11:30-12:00	경기도	경기민속예술제위원회	경기도민속예술제	경기민속예술제위원회
5	12:00-12:30	경기도	경기민속예술제위원회	경기도민속예술제	경기민속예술제위원회
6	12:30-13:00	경기도	경기민속예술제위원회	경기도민속예술제	경기민속예술제위원회
7	13:00-13:30	경기도	경기민속예술제위원회	경기도민속예술제	경기민속예술제위원회
8	13:30-14:00	경기도	경기민속예술제위원회	경기도민속예술제	경기민속예술제위원회
9	14:00-14:30	경기도	경기민속예술제위원회	경기도민속예술제	경기민속예술제위원회
10	14:30-15:00	경기도	경기민속예술제위원회	경기도민속예술제	경기민속예술제위원회
11	15:00-15:30	경기도	경기민속예술제위원회	경기도민속예술제	경기민속예술제위원회
12	15:30-16:00	경기도	경기민속예술제위원회	경기도민속예술제	경기민속예술제위원회
13	16:00-16:30	경기도	경기민속예술제위원회	경기도민속예술제	경기민속예술제위원회
14	16:30-17:00	경기도	경기민속예술제위원회	경기도민속예술제	경기민속예술제위원회
15	17:00-17:30	경기도	경기민속예술제위원회	경기도민속예술제	경기민속예술제위원회

2일차 9월 21일(토)

순서	시간	지역	경연단체명	경연곡명	단체명
1	10:00-10:30	경기도	경기민속예술제위원회	경기도민속예술제	경기민속예술제위원회
2	10:30-11:00	경기도	경기민속예술제위원회	경기도민속예술제	경기민속예술제위원회
3	11:00-11:30	경기도	경기민속예술제위원회	경기도민속예술제	경기민속예술제위원회
4	11:30-12:00	경기도	경기민속예술제위원회	경기도민속예술제	경기민속예술제위원회
5	12:00-12:30	경기도	경기민속예술제위원회	경기도민속예술제	경기민속예술제위원회
6	12:30-13:00	경기도	경기민속예술제위원회	경기도민속예술제	경기민속예술제위원회
7	13:00-13:30	경기도	경기민속예술제위원회	경기도민속예술제	경기민속예술제위원회
8	13:30-14:00	경기도	경기민속예술제위원회	경기도민속예술제	경기민속예술제위원회
9	14:00-14:30	경기도	경기민속예술제위원회	경기도민속예술제	경기민속예술제위원회
10	14:30-15:00	경기도	경기민속예술제위원회	경기도민속예술제	경기민속예술제위원회
11	15:00-15:30	경기도	경기민속예술제위원회	경기도민속예술제	경기민속예술제위원회
12	15:30-16:00	경기도	경기민속예술제위원회	경기도민속예술제	경기민속예술제위원회
13	16:00-16:30	경기도	경기민속예술제위원회	경기도민속예술제	경기민속예술제위원회
14	16:30-17:00	경기도	경기민속예술제위원회	경기도민속예술제	경기민속예술제위원회
15	17:00-17:30	경기도	경기민속예술제위원회	경기도민속예술제	경기민속예술제위원회

부대행사 소개

주최	발행처	일시	장소
경기도민속예술제위원회	경기민속예술제위원회	2019. 9. 20. (금) 10:00~17:00	경기민속예술제위원회
경기도민속예술제위원회	경기민속예술제위원회	2019. 9. 21. (토) 10:00~17:00	경기민속예술제위원회
경기도민속예술제위원회	경기민속예술제위원회	2019. 9. 20. (금) 10:00~17:00	경기민속예술제위원회
경기도민속예술제위원회	경기민속예술제위원회	2019. 9. 21. (토) 10:00~17:00	경기민속예술제위원회

주최: 경기도문화원연합회, 후원: 수원문화재단, 후원: 경기문화재단, 후원: 수원문화재단, 후원: 경기문화재단, 후원: 수원문화재단

전단 후면 (21×29.7)

제22회 경기도 민속예술제

22nd THE GYEONGGIDO FOLK ART FESTIVAL

2019. 9. 20.금 ~ 21.토
경기도 수원종합운동장 수원체육관 일원

주최: 경기도문화원연합회, 후원: 수원문화재단, 후원: 경기문화재단, 후원: 수원문화재단, 후원: 경기문화재단

초대장 외면 (18×25)

초대합니다

제22회 경기도민속예술제

수원시 승격 70주년을 맞이하여 경기도 내 수원시의 위상을 높이고, 민속예술의 보존과 진흥에 대한 관심을 증진하고자 민족의 얼이 담긴 민속행사인 「경기도민속예술제」를 26년만에 수원시에 개최합니다.

이 뜻깊은 자리에 부디 참석하시어 자리를 빛내주시길 바랍니다.

경기도문화원연합회장
수원문화원장
경기도민속예술제위원회

일시 : 2019년 9월 20일(금) ~ 21일(토)
장소 : 경기도 수원종합운동장 수원체육관

개막식 : 2019년 9월 20일(금) 11:00
폐막식 : 2019년 9월 21일(토) 17:30

※참석여부를 9월 16일(월)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031-239-1020 경기도문화원연합회
031-244-2161~3 수원문화재단

주최: 경기도문화원연합회, 후원: 수원문화재단, 후원: 경기문화재단, 후원: 수원문화재단, 후원: 경기문화재단

초대장 이면 (18×25)



문화원 게시대 현수막 (680×245)



거리 현수막 (680×70)



버스전면 현수막 (160×40)



경연장 메인 현수막 (1050×300)

 경기도 민속예술제 2022 Gyeonggi-do Folk Arts Festival	 경기도 민속예술제 2022 Gyeonggi-do Folk Arts Festival	 경기도 민속예술제 2022 Gyeonggi-do Folk Arts Festival	 경기도 민속예술제 2022 Gyeonggi-do Folk Arts Festival	 경기도 민속예술제 2022 Gyeonggi-do Folk Arts Festival	 경기도 민속예술제 2022 Gyeonggi-do Folk Arts Festival	 경기도 민속예술제 2022 Gyeonggi-do Folk Arts Festival	 경기도 민속예술제 2022 Gyeonggi-do Folk Arts Festival
가평	고양	과천	광명	광주	구리	군포	김포
대동놀이 풍년기원기우제와	진발두레농사소리	삼남길새술마놀이	철산리두레농악	엄미리 장승제	구리구지농악	군포군동제민속마당	조강치군패놀이
 가평군	 고양시	 과천시	 광명시	 광주시	 구리시	 군포시	 김포시
 경기도 민속예술제 2022 Gyeonggi-do Folk Arts Festival	 경기도 민속예술제 2022 Gyeonggi-do Folk Arts Festival	 경기도 민속예술제 2022 Gyeonggi-do Folk Arts Festival	 경기도 민속예술제 2022 Gyeonggi-do Folk Arts Festival	 경기도 민속예술제 2022 Gyeonggi-do Folk Arts Festival	 경기도 민속예술제 2022 Gyeonggi-do Folk Arts Festival	 경기도 민속예술제 2022 Gyeonggi-do Folk Arts Festival	 경기도 민속예술제 2022 Gyeonggi-do Folk Arts Festival
부천	성남	수원	시흥	안산	안성	안양	양주
부천석천농기고두마리	성남집터다지는소리 성남이무술	수원대보름굿	시흥월미농악	안배치기소리 안산툰배미	안성장승성혼식	안양만안답교놀이	양주들노래
 부천시	 성남시	 수원시	 시흥시	 안산시	 안성시	 안양시	 양주시
 경기도 민속예술제 2022 Gyeonggi-do Folk Arts Festival	 경기도 민속예술제 2022 Gyeonggi-do Folk Arts Festival	 경기도 민속예술제 2022 Gyeonggi-do Folk Arts Festival	 경기도 민속예술제 2022 Gyeonggi-do Folk Arts Festival	 경기도 민속예술제 2022 Gyeonggi-do Folk Arts Festival	 경기도 민속예술제 2022 Gyeonggi-do Folk Arts Festival	 경기도 민속예술제 2022 Gyeonggi-do Folk Arts Festival	 경기도 민속예술제 2022 Gyeonggi-do Folk Arts Festival
연천	오산	용인	의왕	의정부	이천	파주	평택
아미산올어리	오산그림동거북놀이	백암농요	의왕왕곡동제	의정부개농요	이천자채농요	파주교하농악	평택안중농요
 연천군	 오산시	 용인시	 의왕시	 의정부시	 이천시	 파주시	 평택시

시·군 현수막 (110×500)

	제22회 경기도 민속예술제 22nd THE GYEONGGIDO FOLK ART FESTIVAL	향기로 온 향초만들기
	제22회 경기도 민속예술제 22nd THE GYEONGGIDO FOLK ART FESTIVAL	손으로 나누는 커피향기(손향기)
	제22회 경기도 민속예술제 22nd THE GYEONGGIDO FOLK ART FESTIVAL	가죽공예
	제22회 경기도 민속예술제 22nd THE GYEONGGIDO FOLK ART FESTIVAL	나만의 뱃지만들기
	제22회 경기도 민속예술제 22nd THE GYEONGGIDO FOLK ART FESTIVAL	캐리커처
	제22회 경기도 민속예술제 22nd THE GYEONGGIDO FOLK ART FESTIVAL	석고방향제만들기
	제22회 경기도 민속예술제 22nd THE GYEONGGIDO FOLK ART FESTIVAL	주차안내
	제22회 경기도 민속예술제 22nd THE GYEONGGIDO FOLK ART FESTIVAL	출전확인
	제22회 경기도 민속예술제 22nd THE GYEONGGIDO FOLK ART FESTIVAL	출전확인
	제22회 경기도 민속예술제 22nd THE GYEONGGIDO FOLK ART FESTIVAL	전각체험
	제22회 경기도 민속예술제 22nd THE GYEONGGIDO FOLK ART FESTIVAL	식수대
	제22회 경기도 민속예술제 22nd THE GYEONGGIDO FOLK ART FESTIVAL	마법의 종이 슈링클 네임텍
	제22회 경기도 민속예술제 22nd THE GYEONGGIDO FOLK ART FESTIVAL	시·군 홍보
	제22회 경기도 민속예술제 22nd THE GYEONGGIDO FOLK ART FESTIVAL	종합안내
	제22회 경기도 민속예술제 22nd THE GYEONGGIDO FOLK ART FESTIVAL	구급의료

부스 현수막 (500×50)



X배너 (60×180)



거리배너 (60×180)



안내 A보드 (90×160)



문화원 외벽 현수막 (400×1,200)

2-2. 제작물 (단위 : 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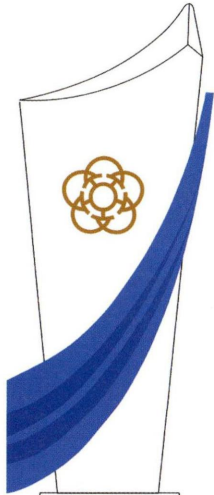
홍보 선전탑 1 (140×1,000)



게이트 현수막 (720×170 / 650×150)



홍보 선전탑 2



제22회 경기도민속예술제 대 상 2019년 9월 21일 경기도지사 이 재 명	제22회 경기도민속예술제 최우수상 2019년 9월 21일 경기도의회위원장 송 한 준	제22회 경기도민속예술제 우 수 상 2019년 9월 21일 한국문화재단이사장 김 태 웅	제22회 경기도민속예술제 우 수 상 2019년 9월 21일 경기도문화재단이사장 엄 상 덕	제22회 경기도민속예술제 우 수 상 2019년 9월 21일 수원시장 엄 태 영
제22회 경기도민속예술제 공 로 상 2019년 9월 21일 수원시장 엄 태 영	제22회 경기도민속예술제 예 술 상 2019년 9월 21일 수원시장 엄 태 영	제22회 경기도민속예술제 민 속 상 2019년 9월 21일 수원시의회위원장 조 명 자	제22회 경기도민속예술제 장 령 상 2019년 9월 21일 경기도문화재단이사장 엄 상 덕	
제22회 경기도민속예술제 소 품 상 2019년 9월 21일 경기도문화재단이사장 엄 상 덕	제22회 경기도민속예술제 지 도 상 2019년 9월 21일 경기도문화재단이사장 엄 상 덕	제22회 경기도민속예술제 연 기 상 2019년 9월 21일 경기도문화재단이사장 엄 상 덕		

상패 1 (8.5×28×6)



상패 2

제22회 경기도 민속예술제 22nd THE GYEONGGIDO FOLK ART FESTIVAL		
가평군	고양시	과천시
군포시	김포시	남양주시
수원시	시흥시	안산시
양평군	여주시	연천군
의정부시	이천시	파주시
광명시	광주시	구리시
동두천시	부천시	성남시
안성시	안양시	양주시
오산시	용인시	의왕시
평택시	포천시	화성시

시·군 퍼레이드 파켓 (120×30 / 60×30)



홍보판촉물 - 파우치 (23×16)



우승기 (120×80)



특설무대 1



특설무대 2

제22회

**경기도 민속예술제
결과보고서**